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3-8 대한방직B/D 3층 902호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6월 24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79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전통사찰 농지소유 '제동'

법제처 "시행규칙 개정불가" 심사 제외
조계종 "대통령 공약 이행"…개정 다각 모색

전통사찰이 사찰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림부가 개정하려한 '농지법시행규칙'에 제동이 걸렸다.

농림부 농지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통사찰이 사찰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한 농지법시행규칙이 법제처의 입법심사에서 제외된채 15일 되돌아 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법제처 농림담당 한장리 법제관은 "농림부가 상정한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지법과 법리상 상충돼 시행규칙으로 입법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지법시행규칙의 모법(母法)인 농지법에 전통사찰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된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통해 소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농지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로써 조계종의 숙원인 전통사찰의 농지소유 노력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 조계종은 국회정각회등의 유관단체들을 통해 국회차원의 '농지법 개정'을 다시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지난 3월 관보에 농림부공고 제1998-10호로 농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고시한 뒤 5월 8일 법제처로 심의를 의뢰했었다. 이는 작년 10월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이효계장관의 약속에 따른 조치였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의 논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과의 약속에 의해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무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불교 공약사항에 불교관계법의 해결이 들어 있었던 만큼 현 정부에서 책임있게 농지법을 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김대통령-종교계 인사 '오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등 종교계 인사 19명이 18일 김대중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김대통령은 미국방문 성과를 설명한 뒤 종교계가 실업자돕기운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주스님은 김대통령에게 "문화대통령이 되 달라"며 "모든 종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종교회관을 정부차원에서 짓는 것이 어떠니"고 제의했다. 간담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성초통리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임도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등 불교계 인사 9명이 참가했다.

평불협 · 진각종 · 영산재보존회 등 방북추진

신계사 복원등 북포교 '초석'

교계 통일운동단체을 비롯 태고종, 진각종, 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 등이 앞다퉈 북한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이 방북이 민간차원 북한방문의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나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평불협은 18일 종단협 법당에서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추진위원회' 창립법회를 갖고, 98년 상반기 중에 신계사 현장답사를 위해 대표단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공동위원장은 법타 평불협 회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김종서 前 덕성여대 총장, 김도현 前 문화재연구소장이며 신계사 복원에 10억여원이 투입된다. 또 평불협은 15일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8월 15일 북한에서 조국통일기원합동법회를 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메세지를 받고 조평련에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진각종은 이달말 2명의 대표단을 북경에 파견, 조평련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방북일정 및 교류사업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고종 영산재보존회는 9월17일경 북한에서 개최예정인 "은이상음악제"에서의 영산재 시연을 제의받고 4~5명선에서 방북을 추진 중이다.

동국대총학생회도 17일부터 금강산 유적답사와 북한 대학생들과의 교류에 대한 재학생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도 여러 통로를 통해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ado@buddhapia.com)

통일소 북송 현장記 20면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15일 오후 4시30분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6살 배기 어린이가 한 가게 여주인의 치마를 잡고 "봉사! 봉사!"하고 외치며 다닌다. 여주인은 어린이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이 가게 저 가게에서 각종 야채를 받아넣는다.

일요일을 뺀 매일 오후 4시경에 벌어지는 이 광경은 가락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강중남(43) 보살과 이웃 가게 아기 신준섭(6) 어린이가 한 노인복지시설에 보낼 야채를 모으는 모습.

강보살은 저녁 7시가 되면 모은 야채를 이웃 가겟집 용달차에 싣고 성남 자광원으로 달려간다. 자광원에 도착하면 노인들은 며느리를 맞는 양 반갑게 두 손을 잡는다. 감자 두부 상치 과 마늘 오이 호박 깻잎 고춧가루 등 다양한 부식거리가 '천막 식당'으로 옮겨진다.

강보살과 남편 이효태(56) 거사가 올해초부터 번갈아 가져오는 야채등 농산물은 이곳 노인들의 주요 먹거리. IMF 관리체제 이후 뚝 떨어진 후원금 때문에 힘겹게 운영되는 자광원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언덕이다.

외동아들 은혁군(16 · 휘문고 2년)도 부모님의 보살행을 옆에서 보다가 몇달전부터 매주 토요일 친구들과 함께 자광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고 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할머니들을 찾았을 때 비닐봉지에 모아둔 사탕을 건네주시더군요. 가진 것 없는 노인들의 작지만 큰 사랑을 보고 울었어요."

부인과 함께 어린시절에 부모를 잃은 이효태거사는 이들을 친부모처럼 모시고 있다.

새벽 4시에 나갔다가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고된 시장일. 남보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기에 IMF한파도 비껴간다.

강보살 가족은 오늘도 리어카에 '보살행'의 엽매를 담는다.

길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자비의 손길



이 한민족불교중흥회 전
한민족불교중흥회가 조계사 맞은편(전지점 7over4)으로 이전하였음을 사무대중께 알려드립니다.
▼ 오시는 길
조계사 인사동 종각역
● 여전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TEL : 720-1656
FAX : 720-1657(겸용)
♣ 간이 주차장 완비되어 있습니다.
♣ 모든이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세요.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미래불교의 주인공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용인 에버랜드의 자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고 밝은 심성을 길러주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는 새싹불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불자임이 자랑스럽고 함께 있음이 즐거운 어린이 연합캠프에 많은 어린이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용인 에버랜드 · 사찰에서 '2박3일'

◇일 정: 1998년 7월23일(목)~25일(토) (2박3일)
◇장 소: 용주사 신륵사 목아박물관 와우정사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대 상: 초등학교 1~6년 (5백명 선착순)
◇특 징: △불교문화유적 답사 △에버랜드서 숙식 놀이시설 · 수영장 래리비안베이시설 이용 아미타전 관람 △불교레크리에이션 · 야침저녁 예불 · 참선, 불교교리 공부 △T셔츠 기념품 선물 제공
◇참가비: 5만원
◇문 의: 현대불교신문 ((02)732-1523, 722-4162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 포교원 · 진각종 통리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지연합회
협찬: 불교조각원 · 현대프로덕션 ·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불교문화 체험기행

7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에서는 윤 5월을 맞아 3사 순례의 더불어 자신의 업장을 씻고 선업발기를 발원하는 재의식인 예수재 법재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동해안 일출로 유명한 등명낙가사, 현재 국보 심의중인 함불이 봉안돼 있는 두타산 삼화사, 적멸보궁으로 유명한 정선 정암사 등을 참배하며 '꼬레시계' 환영지로 잘 알려진 정동진 해맞이도 합니다.

7월 "윤오월 3사 순례로 무량공덕을"
'삼화사 · 등명낙가사 · 정암사'

◇출 발: 7월 11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4만원(아침 · 점심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김종서박사 '불교와 교육' 강연회

△주제: 21세기를 대응한 불교교육
△일시: 6월30일 오후2시 △장소: 길상사 (02)3672-5945
※이날 김종서박사(서울대명예교수 · 前 교육개혁위원장)의 저서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가 출간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언론인회 · 우리는선우 · 길상사

결 · 의 · 문

전남 순천시 승주읍 소재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제 20교구 본사로 우리 조계종단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음은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태고종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암사를 강제 점거하고 본종에서 발령한 주지스님의 취임을 다중의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음은 물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을 선암사에 설치하는 등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파행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조태분규를 다시 조장하는 태고종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 한국불교태고종은 선암사에 설치한 총무원을 즉각 철수하라.
- 선암사 대중스님들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임명한 주지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지하고 주지 취임을 방해하지 말라.
- 한국불교태고종은 1970년의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종단 등록당시 당국에 제출한 태고종 창종 종헌과 각서의 원칙을 이행하라.
- 문화관광부 장관은 순천시장의 재산관리인 자격을 해임하고 그 권리를 대한불교조계종에 인계하라.
- 지난 6월 10일 발표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과 전남 5개 교구본사 주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
- 총무원 집행부에 선암사 환수를 위해 종단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우리 중앙종회 의원 일동 또한 집행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불기 2542('98)년 6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일동

사 설

총무원장 선거를 보는 '눈'

"부처가 되고 싶으냐, 총무원장이 되고 싶으냐?"하고 묻는 부처님 앞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총무원장 요"하고 대답하는 스님의 모습을 그린 박재동씨의 그림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리라. 지금의 개혁종단을 출범케 했던 그 흥흥했던 법난 당시, 총무원장직 때문에 온 불교계를 폭풍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고 불교의 위상을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정도로 추락시켜버린 한 인물을 풍자하는 그림이었지만, 그 때라는 특수한 상황을 넘어 불교계 종단 내외에서 직함을 두고 스님들끼리의 갈등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한번쯤 스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기도 하다.

요사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되어가는 분위기 속에 승단의 치부들을 서로 드러내는 상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천만 불자들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끝나면 그 동안 개혁종단의 노력에 의해 작으나마 회복되었던 불교의 위상이 다시 한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가슴졸이고 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풍토는 결국 양쪽 모두를 치욕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뿐 아니라, 승단 자체의 권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부처님의 적자로서 모든 불자들을 이끌어갈 승단이 권위를 잃는다는 것은 결국 불교를 망치는 것이요, 부끄러운 싸움을 통해 장악하려고 했던 승단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 모두에게 비참한 패자의 자리밖에 돌아갈 것이 없는 싸움으로 총무원장 선출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실성 없는 이상론일지 모르지만, 스님들에게 있어서 지위와 감투라는 것은 본디의 출가수행이라는 목적에 비춰본다면 질곡이요 장애가 될 뿐이다. 마땅히 서로 피해가려고 애써야 할 일이다. 한걸음 더 물러서 이야기한다 하여도, "도덕과 수행에 있어서야 제가 다른 분과 견줄 수 없지만 세속적인 일처리에는 좀 뛰어난 편이니, 그런 뒤치닥거리는 제가 맡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야 스님들의 권위가 서고, 승단이 살고, 불교가 올바로 선다.

이렇게 이상론에 가까운 주문을 하는 것은 출가 승단이야말로 부처님이 일으키신 가장 청정한 공동체요, 승단의 청정한 규범은 바로 온 중생이 본받아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모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근원이 되는 승단 자체가 혼탁한 모습을 보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크게 외쳐댄다 할지라도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승단의 청정성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다.

개혁종단 출범 이래, 일정한 한계는 있었을지라도 불교의 사회적 위상은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 힘을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화하는 길을 더욱 더 힘차게 걸어야 할 이 마당에, 그 힘의 근원인 승단이 거꾸로 그 힘을 갉아먹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일이다. 천만 불자들을 포함한 온 국민의 깨인 눈들이 엄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만일 불교 자체를 치욕의 구렁에 빠지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는 모두를 패자로 낙인 찍는 엄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불자들이 패배자가 되고 만다.

부처님의 적장자로서 가장 존엄한 위치를 지녀야 할 승단의 존엄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출가 승단 자체의 권위는 승단이 스스로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종법개정 심의 연기
조계종종회 7월말 재소집

조계종 132회 임시중앙종회(의장 설정)가 5일간의 회기를 채우지 못하고 17일 오후 산회됐다.

15일 개회된 종회는 16일 오후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10조 '선거권이 없는 자' 조항을 축조심의하며 6항인 "본종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포함)와 그 도제" 대목에서 논란을 빚었다. 결국 논란은 다음날까지 계속 됐으나 의원스님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일단 종회를 산회하는데 합의, 17일 오후 산회를 결의했다.

총무원 총무보고에서 의원스님들은 초심호계위원회의 본사 주지 스님들에 대한 중징계 결의와 여의도불교문화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종회는 여의도불교문화센터 문제와 관련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진아)가 진상을 조사키로 의결했다.

'본종산하법인대책특별위원회'를 해체 결의한 종회는 '종법제개정특위'를 '종헌종법개정특위'로 확대 개편 11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스님들은 '종헌종법개정특위' 구성의 가부를 묻는 표결이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은 16명의 찬성으로 결의된 것은 잘못이라며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종회 의장단은 각종 선거법 등 쟁점법안을 보완 7월말께 다시 종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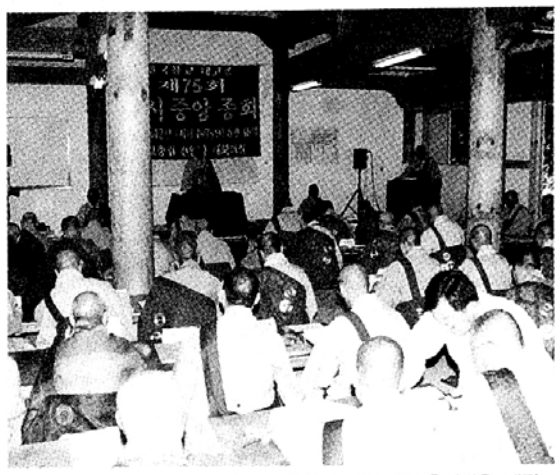
임연태 기자

중앙신도회 운영위 27일 회장직대 선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송재건회장의 사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회장직무대행 체제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회장직 사의를 밝힌 송재건회장의 소집으로 열린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는 17일 태고종이 선암사에서 총무원을 철수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태고종은 16일 선암사에서 종회를 열고 태고총림법을 제정 공포하고 종단차원에서 선암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암사 놓고 조-태갈등 심화

조계종 종회 '재산관리권 인수' 결의
태고종 총림법제정 종단차원 운영

순천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계종은 10일 전남지역 5개 본사 주지와 공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뒤 17일 중앙종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 태고종이 선암사에서 총무원을 철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선암사 총무원 즉각 철수 △조계종 총무원장이 임명한 주지의 취임을 방해 말 것 △70년 종단등록당시 창종 종헌과 각서의 원칙 이행 △문화관광부 장관은 순천시장의 재산관리인 자격을 해임하고 그 권리를 조계종에 인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종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조계종 총무원과 전남지역 5개 본사주지 공동명의 성명서 적극지지 △총무원 집행부에 선암사 환수를 위해 종단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것을 촉구하며 중앙종회 의원 일동 또한 집행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도 천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결의문 가운데 현재 순천시장이 집행하고 있는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조계종으로 인계할 것을 주장한 부분은 조계종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암사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주목된다.

태고종은 16일 선암사에서 제75회 임시종회를 열고 태고총림법을 제정 공포했다. 태고총림법은 선암사를 태고종의 총림으로 규정하고 총림운영에 총무원장을 비롯한 총무원 간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월 25일 선암사 승려대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태고종 총림법은 총무원장을 당연직 주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요사항을 심의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지와 부주지가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도록 한 운영위원회는 총림의 행사, 재산관리, 인사, 예산편성등 실질적 운영 전반을 관장하도록 해 선암사를 사실상 태고종 총무원이 운영하도록 했다.

태고종의 총림법 제정 공포에 대해 조계종측은 "선암사가 조계종 소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태고종이 총무원을 옮긴 것도 어불성설인데 총림법까지 제정해 선암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총무원의 철수를 촉구했다. 태고종측은 "태고총림법을 근간으로 선암사를 종단의 근본 도량으로 지켜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40년을 이어 온 조-태분규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선암사 문제를 두 종단이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1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한중일 교류협 7월3일 서울서 연락위 준비모임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회 연락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7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엠베서더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준비모임에서는 올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연락위원회 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준비모임에는 한국측에서 홍파스님(관음종총무원장) 능관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자월스님(종단협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일본에서는 후나우까(船岡芳昭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상임이사) 다까하시(橋本聖圓 〃) 오니이시(大西眞興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회사무국장)스님이 중국에서는 신재부(申在夫 중국불교협회부비서장) 장림(張琳 〃) 장택서(張澤西·중국불교협회변공실부주임) 등이 참석한다.

임연태 기자

공원입장료 폐지 '갈팡질팡'
생태계 보전비 징수검토 등 부처간 이견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한 관리공단과 정부 의견이 다르다.

정부산하단체의 경영혁신방안을 마련중인 기획예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가재정이 어려운만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미 환경부와 공단측과의 조율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영혁신방안 보고서에는 입장료폐지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엄대우 이사장은 5월19일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3~4부능선 이상을 등산하는 사람에 한해 현입장료 수준의 생태계 보전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장료 폐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임연태 기자

군법당 회계관리 '주먹구구'
조계종 실사보고…지출점검등 불가능

조계종 포교원이 군법사들 사이에 알짜배기로 통하는 군법당에 대한 지도방문 결과 "재정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군법당에 대해 비민주적 운영, 재정 불투명 등의 지적들이 있었으나 종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호국원광사, 통해사, 법웅사, 금련사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최근 임시종회를 앞두고 종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장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실 기재하여 재정의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며 △재정수입이 건실한 군법당으로서 군포교 기여도가 적으며 △상임운영위가 활성화 안돼 군법당 운영의 민주화 공개화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관리와 관련 포교원은 △회계장부를 수입지출이 발생할 때 기록치 않고 일시에 작성하거나 △영수증등 증빙서류 미확보 △관항목이 분리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출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하게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교원은 예결산 양식과 회계규정을 세칙으로 정하고, 군법당 상임운영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통일로 가는 길…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

한국 최대 백옥 와불 이운식

문무골 산자락에 안개 걷히고
구만산 바라보며 피어난 연화장에
그 위용 당당히도 우뚝 솟은 자명사
미묘한 염화미소 슬그머니 나투시고
안온히도 누워 계신 백옥 와불님!



주지 효성 스님

2천5백년전부터 태국 승왕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될 적멸보궁이 강원도 홍천 구만산에 건립되었습니다.

적멸보궁 자명사(慈明寺)는 4천여평의 대지에 1차로, 지상2층 지하1층의 연건평 3백50평규모의 무설전과 요사채를 낙성하고 오는 7월5일 개원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또한 개원법회에 맞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국내 최대 규모(길이 3m · 무게 4t)의 백옥 와불(臥佛) 이운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친견하는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하게 맑아지는 법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백옥 와불은 태국에서 조성돼, 대만 故성인대사(聖印 · 前 대만 만불사주지)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한국에 모셔져 이번에 자명사에 봉안되는 것입니다.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에 전국의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 진신사리 및 백옥 와불 친견의 인연 공덕으로 혜법(慧法)이 충만하시길 삼가 기원합니다.

구만산 적멸보궁 자명사 주지 효성 합장



◀무설전에 모신 국내 최대 백옥 와불. 후불탱화는 10대 제자상으로 조성됐다.



▼홍천 구만산에 조성된 적멸보궁 자명사 전경

· 대 법 회 안 내 ·

■증 명 :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 — 華대종사
대한불교 총화종 前종정 冶翁대종사
대만 만불사 부주지 常上노사
(대만성 자명상공高校 간사장)

■일 시 : 1998년 7월5일(음 윤5월12일) 오전 11시

■장 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산84

적멸보궁 자명사 ☎ (0366)434-1571/435-1571

♣교 통 편 : 철도 경춘선 강촌역에서 하차 팔봉산방향으로 15분거리.
(강촌역서 자명사行 셔틀버스가 운행합니다)

· 서울지역 출발/용미산 용왕사 앞에서 행사당일 오전 7시 출발합니다.
(전철 2호선 구의역에서 마을버스 2번 용왕사행을 타시면 절앞까지 옵니다)

용 암 사 ☎ (02)446-1571

※ 자영사는 개원을 맞아 만등으로 무명을 밝힙니다. 만등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종법과 동일효력 … 포교체계 정립

조계종 포교관련 종령 제·개정

전문직·장애인 단체 종단등록 가능
군법사 인사 포교원에 보고 의무사항

포교관련 종령이 제·개정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군승규정 등 6개 종령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총무원기획실과 협의를 마쳤다. 포교관련 종령 제·개정은 포교원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올초부터 작업을 해왔으며 이번 주중 종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포교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이 명시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포교업무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승규정에 군승단에 더한 종단의 관리·감독권을 명시한 점이 주목을 끈다. 최근 인사파동을 겪으며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응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또 신도단체관리규정에서 신도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해 규모에 관계없이 의료인 법조인 등 전문적 신행단체의 종단등록을 가능하게 했음도 진일보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전국단위의 신도단체만 종단등록을 허용하고 예산지원 등의 혜택을 주었다.

종령은 종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개정되는 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승규정 △군승의 효율적인 포교활동 및 수행을 위해 군승단 설치를 종령에 명시 △군법당의 건립, 군승의 인사, 주요 불사 등의 종단 보고 의무화, 포교원의 군법당 지도방문 명시 △군법당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고, 수입·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와 장부의 보관 이무화 △군법당 운영위원회 설치 △비리군법사 호법부 직권으로 징계회부 가능.

국제포교사관리규정 △외국어 구사에 능통하고 해외포교의 원력을 지니고 국제포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여 자격을 강화 △자격시험 년 1회 이상 실시 △실제 국제포교에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명예국제포교사증 발급 △자격취득 후 의무적으로 연수교육 의무화, 년 2회 이상 포교활동 보고서 제출.

신도단체관리규정 △의료인 법조인 교수·교사 언론인 공무원 예술인 연예인 등 전문직종사자 및 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단체등록 가능 △미등록 신도단체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명호 사용금지.

불교대학관리규정 △불교대학을 조계종지를 봉대하며 1년 이상의 학제, 지정된 교사, 일정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도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의 △학제 1년(수업시간 120시간) 이상, 필수교과목(44시간 이상), 강사진 석사급 4인 이상(조계종승려 2인 이상 필수), 학생수 30명 이상, 학사 20평 이상 등의 기준 이상의 불교대학만이 종단에 등록 △등록 불교대학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종단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포교원이 불교대학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명시.

경승규정 △경승단 조직 및 결재체제를 경승단 총재(총무원장)-경승단장(포교원장)-사무총장(포교부장)으로 명시 △경승의 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사교과 이상 수료) 10년 이상의 승려생활을 한 사람으로 강화 △경승의 추천방식을 소속 경찰서 경승실장의 추천과 경승단장의 위촉요청, 경찰서장의 위촉으로 명시.

포교대상규정 △포교대상 시상일 매년 12월로 규정 △포교대상 추천권자를 전국규모의 단체장에서 종단에 등록한 신도단체 대표자로 확대 △추천 및 접수기간을 폭넓은 참여와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학제 1년이상, 학생수 30명 이상등 불교대학 등록요건을 종령으로 명시하는 등 포교관련 6개 종령이 제정됐다. 사진은 조계사불교대학 강의 모습.

목어

통일소와 심우도

정주영씨가 소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북쪽의 고향을 찾아가 세계의 시선을 끌고있다. 정주영씨는 곧 500마리의 소를 더 보낼 예정이다. 우리국민은 한결같이 천마리의 소가 통일의 물꼬를 트는 '통일 일군'이 되길 바라고 있다.

불교에서는 소를 불성에 비유하고 있다. 심우도(尋牛圖) 또는 십우도는 깨달음으로 가는 선수행의 10가지 단계를 소찾는 그림으로 묘사한 선화다. 천마리의 '통일소'를 북으로 보내면서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심우도에 대비시켜 본다.

먼저 '심우'는 목동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는 발심의 장이다. 우리민족의 통일발심도 소찾아 나선 목동과 다를리 없다. '견적'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통일의 그날을 위해 해야할 일들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량일뿐 실천이 없으니 발자국을 본 정도다.

거기서 한단계 올라서면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려는 작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산가족 상봉을 시도하고 간간히 남북물자교류를 하니 소를 어렴풋이 본 '견우'에 비유할 수 있겠다. '득우'는 소를 찾았지만 아직 길들여 지지 않은 상태다. 더 닦아야 하는 이 단계는 북동포돕기운동, 경수로 공사지원등을 연상시킨다.

'목우'는 소에 풀을 먹인후 고삐를 물려 돌아오는 장면이다. 천마리의 '통일소'가 통일물꼬를 터, 올가을 속초에서 유람선을 타고 원산으로 들어가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다면…, 좀 성급하지만 통일로 가는 길이 '목우'쯤에 있다고 해도 좋으리라. 가슴설레는 단계지만 심우도에서는 깨달음뒤의 방심을 경계하고 있다.

여섯번째 '기우귀가'에서는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돌아온다. 피리 불고 춤을 추는 통일잔치가 이땅 곳곳에서 열리는 날이 멀지 않길 빈다.

소는 오간데 없고 사람만 있는 '망우존인', 여기서는 하나된 한반도가 있을 뿐이다. '인우구망'에서는 소도 자기도 잊는다. 일원상속에 평화로운 세상이 열리니 '반본환원'에서는 수연산청(水緣山靑)의 광경이 전개된다.

'입전수수'는 방편의 세계. 이웃나라 구제등 이타행을 한다. 7천만 우리 겨레가 한마음 열기만 하면 못할일도 아닌데….

전통사찰 공공성 보장 차원

농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3자 명의 토지 되찾고 사찰농지 효율관리

농지전용 부담금도 '짐'

법제처가 '농지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입법불가 판정을 내린것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매우 허망하다'는 표정이다.

농림부가 3월 관보를 통해 시행규칙을 공고하고 5월 8일 법제처로 심의를 의뢰할 때까지만 해도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계종은 국회에서의 농지법 개정이 계속 유보되는 상황에서 작년 10월 이효계 당시 농림부 장관과의 약속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추진됐던 점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었다. 작년 대선때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에서도 불교관련법개정의 약속이 있었다.

현재의 농지법 제6조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21조 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것. 그러나 농지법 제6조 2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로 9가지의 경우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조계종의 농지법 개정 요구는 바로 이 예외조항에 전통사찰을 삽입하고자 한 것. 전통사찰의 공공성과 문화재 관리 보존에 따른 농지 소유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법의 개정이 없이 전통사찰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농지전용에는 농지의 공시지가에서 20%에 해당하는 재원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 따르게 된다. 또다른 방법으로 영농법인의 구성을 통한 농지구입이 권유되고 있지만 이역시 개별 사찰이 일일이 법인을구성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영양가'가 없는 대안.

조계종은 삼보전재의 유실을 막기위해 공공의 목적에 의해 강제 수용되는 사찰토지에 대한 대토의 의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수용된 농지만큼 다른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아닌 개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하는 모순에 빠져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토지수용법에 의해 매각된 조계종사찰의 농지는 95년에 4만6천8백71일방미터였으며 96년에는 12만1천7백9평이나 된다. 결국 그만큼 제3자 명의의 사찰 농지가 늘어난 셈이다.

이같은 사찰토지의 제3자 명의화는 장기적으로 정재의 유실에 대한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계종의 우려다. 때문에 농지법을 개정, 그간 제3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되찾고 효율적인 사찰농지 관리를 위해서는 농지법의 개정이 필수조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사찰이 농지법제6조2항이 지정하는 예외조항 속의 학교, 실습지등에 비해 월등한 공공성을 갖고 있는만큼 조계종의 농지법 개정 요구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아직 새로운 종단차원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사찰의 농지소유는 타당성이 있을뿐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할 현안이라는데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갈등의 벽 허무는 빛의 화합을"

수요 인터뷰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선포
전국불교산악인련 손현수 회장



1년만에 3만회원 동참
단위산악회 80곳 목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행사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이 행사는 어떤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민족에게 있어 가장 큰 당면과제는 조국통일과 국민화합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민족과 숨결을 같이해온 불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불자들이 한반도 108곳의 산봉우리에 불법의 등불을 밝혀 그동안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던 갈등과 시기, 미움과 다툼, 혼돈과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화합과 희망의 세계로 여는 계 뜻이 있습니다. 불자들의 원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조국통일과 국민대단합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그때에 청정불국토도 건설되지 않겠습니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북한측과도 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대장정은 한민족이 하나됨을 위한 북한동포돕기운동도 같이 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측과 협상과정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정부차원에서도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햇빛정책'을 쓰고 있어 민간교류가 활기를 띄고 있잖습니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추진중이예요.

-불교산악인연합회의 현황은 어떤지요.

▲지난해 본회가 창립한 이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산행을 통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어 이 세상을 밝힌다'는 불교산악인들의 적극적인 신행활동이 불교산악인연합회를 굳건히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13개 광역시·도 지회 및 33개 단위산악회에 3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창립 이후 모든 면에서 2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불교산악회가 많은 만큼 더욱 가입하는 단체가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불교산악인연합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요.

▲조직구성이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이 아닌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단위산악회를 중심으로 매월 1회이상 산행으로 신행을 다져온 것과 불교중흥을 위한 불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불교와 산은 떼어놓고 생각 할 수가 없듯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자인 것도 그 하나의 발전을 이루는 핵심이지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요.

▲중앙회를 먼저 확대하여 개편한 뒤 전국 16개 지회에 사무국을 두고, 단위산악회도 80개로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중입니다. 또 산행학교도 개설하고 월회보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인 불교산악인연합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내년에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기 2543(1999)년 카렌다 주문 받습니다.

불교이벤트 카렌다 씨리즈 I / 제목 : 어진이 (12장)
전통적 불교문화에 동화적 요소의 그림을 접목시켜 세련미가 나타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 작품종류 : 1) 어진이 (12장) 2) 산과 삶 (12장)
3) 육바리밀 (6장) 4) 초파일 (1장)
◈ 제작부수 : 500.000부
◈ 배포기간 : 불기 2542(1999)년 6월 25일 ~ 불기 2542(1998)년 11월 30일
◈ 탁상용은 100부이상 주문 제작합니다.
특전 : 8月末까지 주문시 1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카렌다 시리즈 2, 3, 4 는 다음 광고를 기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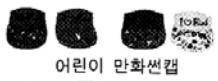
불교이벤트

여름불교학교용품전

최고의 품질, 올바른 가격
불교이벤트가 만들면 다릅니다!

〈T 셔츠〉

묵언 T
해탈 T 명상 T 방생 T
(위 캐릭터 중 선택 인쇄 가능합니다.)

〈썬캡〉

어린이 만화썬캡
어른용 2단 썬캡

〈조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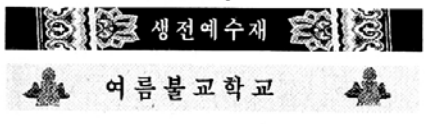

〈부채〉


〈레고〉


〈저금통, 오프너〉


〈법요집〉


• 암도큰스님 감수
• 앞면 : 법요집
• 뒷면 : 기초교리
• 사이즈 636×938㎜

〈현수막〉


〈현수막 규격〉
• 6미터 : 4만원
• 8미터 : 5만원
• 10미터 : 6만원

• 대 : 15.000원
• 중 : 10.000원
• 소 : 5.000원

* 가격
T셔츠
어린이용 : 5.500원
어 른 용 : 6.500원
(청소년용)
썬캡
어린이용 : 2.000원
어 른 용 : 3.000원
허리섹
어린이용 : 2.500원
어 른 용 : 4.000원
등 섹 : 6.000원
법요집, 기초교리챠트 150.000원
부 채 : 600원
조끼
어린이용 : 10.000원
어 른 용 : 15.000원
저금통, 오프너 1.000원

※ 대리점 모집중 : 부산, 대구, 광주 지역 限

기획상품

윤달수의 부모님께 수의를 준비해 드리세요.



〈수의〉 50, 100, 150만원

다기(백산요)

3인용 천목

3인용 분청

1인용 분청

다포

• 다기
1인용 : 1 만원
분청 : 4 만원
천목 : 6 만원
다포 : 5 천원

◈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 손혜자)
• 농 협 : 069-12-141862 • 국민은행 : 235-21-0452-984
• 우체국 : 012245-0171444 • 외환은행 : 189-19-13864-1

◈ 불교이벤트
• 본사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B/D (불교방송內 B1층)
전화 : (02) 716-7790~1 팩스 : (02) 716-7792

◈ 불교이벤트 지점
• 충주지점 : (0441) 851-8478 (FAX 겸용) • 홍콩지점 : 852-2802-8186 FAX : 852-2802-4836
• 미국 LA지점 : 213-620-9933 FAX : 213-620-9955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불교이벤트쇼핑몰

"지역사회에 회향해야 불교발전"

10년째 은평구민 위한 법회 연 성운 스님



"사찰수입의 절반은 지역사회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시대에 불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불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은평구사원연합회장 성운스님(삼천사 주지). 10년 동안 한해도 거름없이 '호국영령 추모 및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해온 성운스님의 지역불교론이다.

지난 10일 은평구사원연합회가 주최해 은평구청에서 열린 법회에는 관내 사암 주지스님과 신도, 이재오 국회의원, 이배영 은평구청장, 구의회의장 등 관내기관장과 지역유지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원연합회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모범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도 거르지 않았다. 장학금 수혜자가 5백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한 사찰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지역의 사암이 종파를 초월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합니다. 시·군·구 단위마다 사암연합회가 결성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종단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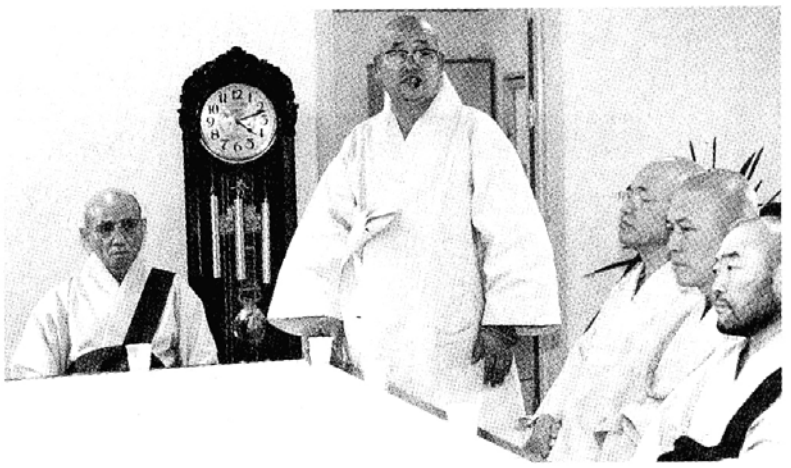
사암연합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은평구사원연합회는 지난 80년 결성돼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관내 50여 사암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행한 것만큼 돌려주자. 물질이건 정신이건 지역사회에 즉시 회향해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 결성 당시 스님들의 참여를 권유하며 하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생명나눔' 한자리

Focus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15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74-8번지로 법인사무소를 이전,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사무실은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이 인간방생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상으로 임대한 것.

생명나눔의 법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불국사 주지 설조,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이 동석해 눈길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교차로

'어떻게 살아야…' 특강



암도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은 동국대 사회교육원 초청으로 27일 오후2시 학술문화관 3세미나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한다.

백화점서 효도상품 기획전



정우 불교TV 사장 스님은 24일부터 1개월동안 서울과 경기지역의 뉴코아 백화점 7개 지점에서 '효도상품 기획전'을 열고 삼베수의, 양말 등을 전시판매한다.

청송감호소 재소자 위문



돈관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장 스님은 17일 청송 제2감호소를 방문, 재소자불자들을 대상으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남북농업발전협 공동대표에



효림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스님은 12일 남북농업발전을 위한 민간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경제난 극복 찬불가 제전



도원 천태종 교육부장 스님은 26일 오후1시 서울 우면동 관문사 옥불전에서 '경제난 극복 기원 찬불가 제전'을 개최한다. 이번 찬불가 제전에는 천태종의 35개 합창단이 공연한다.

중고생 28명에 장학금



지현 두송종합사회복지관장(관음사 주지) 스님은 16일 고교생 25명에게 각 25만원, 중학생 3명에게 각 1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경기 경찰청 경승실장에



성주 수원 용화사 주지는 경기 지방 경찰청 경승실 제2대 경승실장으로 임명돼 19일 경기지방 경찰청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백양사서 동승전 열어



원성스님은 20일부터 7월20일까지 백양사 고불미술관에서 '원성스님 동승전'을 개최한다.

길림 한·중 학술회의 참석



성낙승 불교방송사장은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아세아 경제위기와 한·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하는 한·중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했다.

사경대회 수상자 시상



김응현 동방연서회 이사장은 21일 서울 인사동 덕원미술관 3층 전시실에서 제2회 불교사경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울산일보 회장에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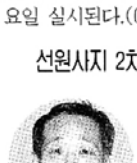
김양일 울산일보 사장은 최근 열린 울산일보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김회장은 신아일보비서실장 KBS홍보위원 경북매일신문사장 등을 역임했다.

생태공동체 수련관 개관



최한실 '푸른누리' 대표는 7일 경북 상주시 입석면 화북리에 생태공동체 수련관을 개설했다. 귀농교육은 매월 마지막 주 수~일요일 실시된다.(0582)536-8946

선원사지 2차발굴 착수



이기동 동국대 박물관장은 15일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에서 개토식을 갖고 선원사지 제2차 발굴작업에 들어갔다.

실천불교학당 강좌개설



백승진 법사(보현정사 원장)는 실천불교학당을 개설하고 25일부터 제1기 강좌를 실시한다.

전북불교대 동창회장에



김백호 전북불교대학 총동창회장은 12일 전북불교대 정기총회에서 임원진 전체와 함께 차기 총동창회장으로 유임됐다.

한·중 여성지도자 회의



강정원 한국종교여성협의회장은 22일 서울 소피텔 앰베서더 호텔에서 '가정시대와 가정윤리 확립'을 주제로 한·중 여성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在美 티벳스님 '독립요구' 침묵시위

티벳 승려들이 지난 15일 워싱톤 미의사당 앞에서 중국으로부터 독립과 인권보장, 종교자유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은 1951년 티벳을 강점한 이래 지금까지 티벳의 문화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40여년동안 총 10만여명의 티벳인이 망명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기행등 자연스런 포교 앞장"

개원 10돌 맞은 부산불교교육원 성재도 원장



"38년 개원한 교육원은 비불자들에게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러운 포교가 되도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왔습니다."

3일 개원 10주년을 맞은 부산불교교육원의 성재도 원장은 이렇게 지난 10년을 정리했다. 23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10주년 기념법회를 가진 부산불교교육원은 입문자 교육, 여래사 교육, 우리문화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반인과 친숙한 곳이다.

이중 84차를 맞이한 우리문화기행은 부산에서는 최초의 불교문화기행으로 부산불교교육원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성재도 원장은 "여래도서관과 참선교실의 활성화 등을 통해 불교문화의 생활화에 주력하겠다"며 기존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는 것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체험학습 통해 탐구력 길러요"

환경포스터 글짓기 공모전 장관상 이무열교장



"아이들의 탐구능력을 기르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로 선정된 이무열교장(은석초등학교)은 13일 제4회 '98청소년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에서 지도자부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체험학습은 서울시특책사업중의 하나로 은석초등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체험학습 보고서는 교내에 전시해 다른 학생들이 간접경험도 가능하다. 수작 보고서와 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이 들어있는 〈현장학습보고서〉도 만들어 전교생들에게 배포했다.

이무열교장은 "여름방학때 1·2학년 수도권답사, 3·4학년 백제문화권인 공주, 5·6학년 경남 남해에서 현장체험을 하게 됩니다"라고 앞으로 체험학습 일정을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실직자들에 쌀을 보냅시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본부'는 실직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IMF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고통을 분담하고 자비의 실천행을 펴 참불자의 공덕을 쌓읍시다.

한편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본부'는 자비의 쌀주머니 10만개를 제작, 30일부터 전국 사찰과 불자들에게 배포합니다.

'자비의 쌀 주머니' 10만개 제작 배포

◇본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 내 문화교육관 2층 (02)720-6564, 7067
◇충청지부: (0433)43-4556, 3550
◇부산·경남지부: (051)508-0428

※ 후원금도 받습니다.
국민은행 023-21-0552-767 (예금주 : 이관환)

주최: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현대불교신문사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박종(불성개발연구원장) ·차차석(동국대교수) ·김영태(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암도스님(교육원장) ·권탄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열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6월 15일~ 98년 7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8년 8월 1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대한민국 성씨대보총람 全4卷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읽기 어려운 한문족보를 대한민국 275성씨별 3,349본관별 대동보(大同譜)·세계보(世系譜)·파보(派譜)를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도록 한글 중심으로 집필.

1



※ 4×6배판 전 4권. 총 8,000여면
희귀원색자료 150여면 호화영구소장본 정가(4권)480,000

- 特 長 -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상) 제1권】
●275성씨별 총설·시조의 연원·본관지연혁·세거지 변천사·집성촌
●파명록·단군왕조이래 201위(位)역대임금 존영과 업적을 칼라로 수록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하) 제2권】
●원형그대로의 옥새와 마패등 유물 칼라로 수록·벌열·종문행례
●세계표, 항렬표, 역대인물고, 성씨별 인구분포도·현대인물선·묘원사원, 서원, 명당, 정려, 행의문과 소재지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 제3권】
●역대위인 3,000여 위(位)존영·400여 독립유공자 존영과 투쟁사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 제4권】
●시조, 중조, 파조, 선조 영정·성씨 본관별 세계표와 묘소, 제우
●효자각, 열녀문, 신도비, 묘비등 성씨별 유물과 유적지 등 칼라 집대성

책임강수 前충남대학교대학원 柳正基교수

2 全人教育의 教科書!

◆ 현대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줄 동양 古典의 精髓!
◆ 特 長
· 원문을 해독하기 쉽도록 모든 한자에 우리말 음(音)을 달아 초보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원문에 담긴 집약된 깊은 뜻을 풀어 풍부하고 정확한 해의(解義)를 곁들였다.
● 論語·中庸·大學·孟子·周易·詩經·禮記·春秋·書經·大辭典·故事成語



3 國內書道大典의 最高峰

4×6배판 1,020면/정가 50,000원

◆수백년동안 우리 선조들이 갈고 닦아온 문화민족의 위대한 유산



◆ 特 長
· 당대의 당원(名筆) 金正喜선생 系元, 趙方鎭등 현·중대서도가의 필적이 지닌 기운과 서예의 기본법인 영지팔법(永字八法)을 수록
· 서도의 전수인 해서 행서 초서 전서외 육체 및 이보등을 집대성시켜 초보자들의 서도기법 참출에 귀감토록 제작

구입방법
정 가 : ~~680,000~~
특별현금가 : 150,000
할 부 가 : 50,000×4회

☎ (02)253-3626~8
한국전통예절중앙회

우리 모임에선

포항·울산 MBC불교硏 창립

MBC 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는 27~28일 단양 구인사에서 합동 순례법회를 갖고 울산, 포항 문화방송 불교연구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포항MBC 불교연구회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2)789-2371

교불련 27·28일 가족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7·28일 철원 심원사와 도피안사에서 야외 가족법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심원사에서 입제식을 거행하고 철야정진기도로 진행된다. (02)552-2517

스카우트불교회 윤독법회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20일 불교방송 법당에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를 주제로 '대전화상 주심경(소의경전) 윤독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는 58개월동안 계속된 윤독강의를 끝맺는 회향형식으로 열렸다. (02)292-8502

석불문화硏 영월군 답사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7월 11·12일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석불친견 답사회를 갖는다. 또 7월 수요사랑방 모임을 7월8일 신촌오피스텔에서 연다. 문화재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회비는 1만원이다. (02)760-5171 류영렬

칠연회 기금 2백만원 모아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 칠연회모임이 13~14일 보현불교대학수련장에서 6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7명의 중증장애인도 함께 참가한 이번 모임에서는 보시금 등 총 2백만원의 기금이 모아져 장애법우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전국불교산악인련 '한라→백두 대장정' 선포

"백두대간 108峰에 연등 밝힌다"

내년 4월까지 '국민산행팀' 발대
2천년 방북·백고좌법회 추진



◇천국 불교산악인연합회는 14일 광주 무각사에서 1천5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및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대장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라에서 백두에 이르는 백두대간 108봉우리에 연등을 밝히는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14일 광주 무각사에서 창립1주년 기념법회 및 조국통일기원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밝히기 대장정(한백대장정) 선포식을 개최했다. 〈회장 인터뷰 3면〉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과 천운 대둔사주지, 서돈각 불교진흥원이사장, 박봉식 전서울대총장을 비롯 산하 33개 단위산악회 1천5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 불교산악회원들은 통일염원을 안고 백두대간에 연등을 밝히는 행사를 개최하여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염원을 성취하는데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이어 불교산악회는 1999년 4월까지 1년 8개월 동안을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산행팀을 모집하여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발대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발대식 이후 산행팀 교육을 실시하고 2천년 1월부터 7월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전국 108곳의 백두대간 연봉에서 단위산악회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연등밝히기 행사 및 큰스님초청 통일기원 백고좌법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행사기간인 2천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산행팀 본대가 판문점을 통과한다는 역사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불교산악인연합회는 판문점 통과와 관련 정부 및 북한측과 협의하여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열린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서 월주스님은 "한반도 주요 산봉우리에 자비의등 희망의 등을 밝힘으로써 한민족이 하나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현수회장은 "한반도 영산에 연등을 밝혀 21세기를 화합의 시대로 만들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수행통해 재소자포교 중흥"

불자교정인연합 임원수련

교정인불자들의 수행정진을 통해 재소자 포교방안을 모색하는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 창립 4주년기념 임원수련대회가 7월 4~5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다.

전국 4개지부와 32개 지회 임원 1백 2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임원수련회는 직지사 녹원스님 법문과 참선지도, 발우공양에 대한 강의, 철야기도정진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사찰주변 자연정화활동과 지역별 친선운동경기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불자교정인연합회 임원들은 '연합조직 활성화 및 재정확보' '지회와 불교교화위원회와의 관계설정' '회원배가' 등의 당면 현황에 대한 토의를 하며, 신행사례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02)605-3536



◇천리안불교동호회는 13·14일 용주사에서 전국모임을 갖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심준엽)가 13·14일 수원 용주사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모임을 가졌다.

효(孝)본찰인 수원용주사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포살법회를 가진 천리안불교동호회는 참선과 108배 참회정진, 〈부모은중경〉 독경을 했다.

용주사주지 정락스님은 "사회가 혼탁해지면서 마음들이 흐트러지고 있다"며 "불교의 보시 인욕 지계의 정신을 되새겨 바른 마음법으로 사회를 치유해야 한다"고 법어했다.

천리안불교동호회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용주사청년회와 수원성 등의 문화유적을 답사했다.

"부모은혜 되새기며 마음정화 했어요"

천불동 용주사서 전국모임

탐방 제주불교운전기사회



◇제주도불교운전지회는 5월24일 선운정사 개원식 및 삼중스님 주지 취임식에서 교통정리 봉사를 했다.

건전관광 안내로 포교 '한몫'

회원 30명…불자에 요금할인
교통안전캠페인…봉사활동 활발

한라산 일대 불교문화재가 산재하여 '나한도량'이라 일컬어지는 제주도. 도민중 60% 이상이 불교인 불국토 제주도는 아직도 찬란한 불교문화가 살아숨쉬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성지순례코스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불자들이 제주도를 찾을 때 제주불교운전기사회에 연락을 하면 통상요금의 20%나 저렴하면서도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수산물 청과 음식점 숙박업소 승마장등 불자가족이 운영하는 곳과 연계, 제주관광의 파수꾼이 돼준다.

96년 8월 24일 '삼보를 신앙하고 정법을 수호하는 참된 불자상을 정립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이념을 구현한다'는 창립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제주불교운전기사회(회장 오중수)는 30여명의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제주불교 신행의 흐름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불교교육자료를 만들어 한달에 2시간씩 관효스님(흥법정사 주지)을 지도법사로 교리공부도 열심이다.

21일에는 제주 서부지역 사찰인 극락사 대원정사 운포포교원 천안사를 성지순례하며 사찰주변을 청소하고 신심을 다지기도 했다.

제주불교운전기사회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자비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제주도 지역사찰의 행사시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펼치는 것은 물론 매달 1회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교통캠페인을 펼쳐 건전관광과 선진교통문화 창달을 해오고 있다.

또 장애아동 2명과 자매결연하여 한달에 각 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불교자비원에 유류비도 매년 전달하여 자비회사정신을 실현한다.

오중수회장은 "제주불교운전기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전개중이다"며 "불자들이 제주를 찾을 때 불교기사회에 연락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안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064)510-108(백팔번) 김원우 기자



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 고불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이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통일법요집'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 월주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통일법요집' 발간에 참여했던 법경·인문·화암스님 등 연구·집필위원 5명이 공로패를, 홍윤식교수(동국대) 등 편찬위원 4명이 감사패를 각각 수상했다.



조계종 복지시설·단체 대표자회의

조계종 총무원과 사회복지재단은 11일 오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불교사회복지시설·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사회부장 능관, 사회복지원장 혜창스님과 각 복지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IMF관리체제 시대의 불교사회복지 대응방안이 모색됐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 및 불교사회복지 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총람 고불식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17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불식을 가졌다. 타종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최응호소장의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돈각이사장은 "90년 1월 당시 장상문이사장의 발원으로 발간된 불교총람 개정판이 나오게 돼 기쁘다"며 "5년마다 불교총람을 간행하여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삼중스님 서울역 실직자 위로공연

전국교도소재소자교화후원회장인 삼중스님(자비사 주지)은 15일 서울역광장에서 종교인과 연예인, 기업인, 학자 등과 함께 실직자 돕기 캠페인과 위로공연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인간교육원(이사장 유달영),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회장 유호준 목사), 군경연예인봉사대(회장 김종수), (주)대경골드(사장 장경도)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깊은마음 · 참 나

'98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안내

장하게 흐르는 쌍계활수와 산허리에 이는 맑은 바람은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맑혀주고, 붓다의 말씀과 조사스님의 활구는 나약한 영혼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여 「깊은마음 · 참나」를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 행 사 일 정

	기 간	정 원	대 상
1차	7월 24일(금) ~ 7월 27일(월)	남30명, 여30명	일반인
2차	7월 29일(수) ~ 8월 1일(토)	남30명, 여30명	일반인
3차	8월 3일(월) ~ 8월 5일(수)	100명	초등학생

■ 동 참 안 내

- 수련법회 신청대상(3박4일) :일반인
- 자원봉사 신청대상 :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6명 내외
- 신청마감일 및 참가통보 : 신청 마감일은 7월 10일(금)까지이며, 참가통보는 7월 15일(수)까지 동참 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 동 참 금 : 일반인 5만원(교재, 기념사진, T셔츠 포함), 초등학생은 무료

■ 참가신청 방법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A4용지에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FAX)로 신청.

① 이름(한문,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우편번호 필히 기재) ④ 직업(구체적으로)
⑤ 전화번호(직장, 자택) ⑥ 종 교
⑦ 원하는 차수(상기 일정표 참조) ⑧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

※ 팩스로 신청하실 때는 접수 후 꼭 전화확인 바랍니다.

■ 문 의 처 전화 0595)83-1901~2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팩스 0595)83-6084

■ 접 수 처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담당자
(우)667-820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제 13교구 본사 쌍 계 사 주지 선 곡 합장

법회안내



고산스님(쌍계사 조실) 7월2일 오전10시 개운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 7월 13일 오전10시 부산 금천선원 보살계 수계법회. (02)926-4069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24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법당 6월 다보법회. (02)734-6401



연성타스님(팔공산 부인사 주지)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10시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법회. (053)982-5006



현덕스님(태현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 감사기도법회. 매월 음력 3일 오전10시 삼보법회. 매월 음력 7일 오전10시 칠일기도회향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법회. (062)672-5505



공덕스님(법화삼부경강원 강주) 7월 7일 오전10시 대구 강의실, 7월10일 오후2시 부산강의실 6개월간 한문법화경개론 법회. (053)952-8711



이혜성법사(약사여래 포교원)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8일 오전10시30분 초8일법회. (062)263-506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하세요"

월정사 다라니등 일반에 첫 공개

오대산은 〈화엄경〉에 바탕을 둔 불교신앙의 성지로서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전해오는 민족의 성산이다.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화엄경〉속의 청량산을 속세에 옮기기 위해 오대산을 개산했다.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이어온 오대산은 한암스님을 배출하는등 한국불교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해왔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사진)는 윤오월을 맞아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용금루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및 팔각구층석탑 유물친견 대법회를 봉행한다.

세조가 직접 보았다는 문수동자의 모습을 조각한 국보 제221호 목조 문수동자상의 복장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 국보 제48호로 지정된 팔각구층석탑에서 나온 은제도금여래입상과 다라니, 사리함 등이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월정사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중 3대 적멸보궁이 위치하고 있어 삼사순례와 기도의 최적지로 꼽힌다. 올 윤달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대산 월정사를 참배하는 것은 어떨까. (0374)32-6661~2



◇ 국보 221호 목조문수동자상 복장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



◇나주 불회사 대웅전에서 신심나는 여름수련을 체험하자.

불회사 일년내내 관음대참회

7월부터 일반인 대상…오후불식·묵언수련

나주 불회사(주지 정연)는 7월부터 관음대참회 수련회를 연중무휴로 개최한다.

불회사는 91년 관음대참회수련원을 개원, 휴가철에만 수련회를 실시해왔으나 금년부터는 연중무휴, 무료로 수련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불회사는 7,8월 휴가철에는 매월 4회이상(매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실시하며 8월이후부터는 직장·일반인반으로 나눠 매월 2회이상 수련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수련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련회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다.

불회사측은 "이번 수련회 확대개편을 계기로 이론중심의 수련회에서 오후불식, 묵언 등 체험중심의 수련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불회사 관음대참회 수련회에는 고등학생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613)37-3440

신행수첩

불자들의 우리춤·가락

통도사부산포교원 예술제

24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불자들의 한마당 잔치가 열리게 된다.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이 개관 5주년을 맞아 문화관의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이수한 불자들의 공연을 마련한 것.

어린이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대금산조, 가야금산조, 사물놀이와 불교무용단인 으바이 무용단의 춤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될 계획이다.

그동안의 포교의 결실을 보여주는 이 공연에서 우리 가락, 우리 몸짓 속에 내면화된 불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함께가서 동참해 보자. (051)816-2241

영어·한문·다도 배워요

칠곡교양대 여름수련

불교대구방송 부설 칠곡교양대학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신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어린이교실'은 어린이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길러주고 보다 풍부한 교육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또 일반인들위한 다도강좌등 여름취미교실도 준비돼 있다.

한편 7월20일~22일까지는 칠곡 화성사에서 2박3일간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열 예정이며, 7월 24일~26일까지 일반인을 위한 여름수련회를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한다. (053)321-3600

건강한 몸 밝은 마음

광주교육원 IMF 건강교실

우리사회에 닥친 IMF한파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이 '건강한 몸과 마음만들기'를 주제로 30일~7월 3일까지 매일 오후 7시 IMF를 이기는 제1차 건강교실을 연다.

30일에는 정신의학에서 전하는 정신건강법과 상담을, 7월 1일에는 생활도인술과 자연건강법, 2일에는 한의학에서 전하는 건강법등이 진행되며, 마지막날인 3일에는 백양사 기획실장 토진스님의 마음의 평화를 찾기위한 불교수행법 강좌도 준비돼 있다.

IMF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는 이 건강교실은 잃어버렸던 참나를 찾고 불안과 고통속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과 밝고 맑은 마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062)228-9098

나의 수행일기



한재영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신심깊은 아내의 큰절 받고…

불교대서 가르침 듣고 낚시·승마 포기

나와 불교와의 인연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였다. 할머니 어머니 모두가 열심히 부처님을 봉양하는 삶을 사셨지만 그런 불교적 집안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불교와는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한 이후에도 나는 전혀 불교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심 깊은 아내를 만나 전혀 뜻하지 않게 불교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내는 하루도 108배를 거르지 않으며 큰스님의 법문을 청하러 다니고, 또 불교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살림살이보다는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것이 나는 항상 불만이었다. 아내에게 싫은 소리도 많이했다. 나의 구박을 받아가며 묵묵히 불교공부를 해 오던 아내가 어느날 포교사자격증을 받았다며 자랑을 했다. 나는 아내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 포교도 못하는데 포교사자격증을 어떻게 받았냐"면서 "나부터 포교시켜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가 내게 기초교리공부라도 해보라며 권유했고, 그 권유에 못이겨 아내가 포교사니까, 불교기초교리라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조계사 기초교리반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다.



기초교리반에 들어가서도 별 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저 건성으로 수업에 참여하곤했는데 수련법회에서 처음으로 108배를 하게 됐다. 평소 절이라고는 해보지 않던 내가 도반들을 따라 맨바닥에서 절을 하다보니 무릎이 까져서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걸 본 아내가 나에게 덥석 절을 하는 것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대체 알 수 없었지만 내가 그렇게라도 불교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 정도로 생각했다.

기초교리를 마친 후 아내는 다시 내게 불교대학에 입학할 것을 권했고, 나는 다시 조계사불교교양대학에 입학했다. 입학을 하고 불교대학학생증을 받아오던 날 아내는 또 나를 앉혀 놓고 큰 절을 했다. 아내는 내가 불교에 귀의해 진실한 불자가 되기를 매일 기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게 한 큰 절은 바로 부처님에게 한 절이었다. 그후로 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불교대학에서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뜨기 시작했고, 아내의 신행생활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내 능력 닿는데까지 열성적으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학생회 회장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반 서로간의 힘든 일도 돕고, 기도정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또 이왕이면 사중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하나 다는 일에도 마음을 다했다.

그렇게 좋아하던 낚시도 단번에 그만두었다. 함께 낚시를 다니던 낚시 친구들도 모두 잃었다. 살생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하려는 작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낚시대로 사용하던 긴 나무는 꽃과 나무를 키우는데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 말타기를 좋아해 주말이면 승마장에서 말을 타며 나름대로 여가를 즐겼었던 나는 말타는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어느날 말위에 타고 트랙을 돌던 내 머릿속에 불현 듯 한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내가 즐겁자고 이 말을 괴롭히다가 다음 생에 말로 태어나면 어찌하나.' 그리고는 당장 말과 안장과 모든 장비를 마굿간에 다 내줘버렸다. 어찌 생각하면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의 몸과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전개설 강좌도 따로 틈을 내서 공부하는 중인데, 앞으로 보다 깊이있는 경전공부를 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목탁치는 법 등 불교의식도 배워서 명실상부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

게 시 판

♣ 강좌

△아미타불교대학=아미타불교대학(학장 일초)은 기초반과 경전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기초반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경전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6개월과정으로 25일 개강한다. (042)625-1080

△성훈따주기=동화사포교원 관오사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7월 1일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성훈따주기 강좌를 개설한다. 수강료는 10만원. (053)784-3669

△과학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를 위한 과학교실을 매주 화요일에 실시한다. 일상생활과 과학을 접목한 수업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다. (02)852-0525

△퀼트·패치워크교실=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퀼트와 패치워크교실을 연다. 3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5만원. (02)806-1375

♣ 모집

△청소년환경감시단원=경주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은 27일까지 제2기 청소년환경감시단 단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환경감시활동에 관심있는 중·고등학생이며 모집인원은 50명. (0561)41-0762

♣ 알림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7월 4,5일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제19차 부산 경남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접수마감은 7월1일까지. (051)853-5486

△산모 도우미 파견=신도림복지관에서는 산간의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도와줄 도우미를 파견해 준다. (02)631-9792

△정수노인보호센터 개장=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부양가족이 귀가할때까지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수노인주간보호센터를 개장했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02)282-1100

♣ 답사

△송광사·선암사=광주불교교육원은 28일 오전 8시30분 조계산 송광사와 선암사로 승보사찰 참배를 떠난다. 전남대박물관 학예연구사 황호균씨가 안내하고, 참가비는 2만5천원. (062)228-9098

△대흥사~화순 운주사=대흥사 부산포교원(주지 도학)은 27일~28일 해남 대흥사-땅끝마을-월출산 도갑사-화순 운주사로 사찰순례를 떠난다. (051)647-8744

△고운사~거조암=육주사는 30일 윤달맞이 신심증진을 위해 경북 고운사-인각사-거조암으로 사찰참배를 간다. (051)971-0042

♣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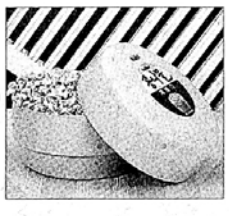
△본사 대구주재 이윤호기자 양부 이완철씨가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영천 만불산 만불사에 안치됐다.

I.M.F. 시대 불자님들을 위한 건강상품 기획전

집에서 간단하게 물 단 한방울 주지 않고서도
무공해 콩나물을 길러 먹을 수 있대요 글쎄…

완전자동 **무공해콩나물 수경재배기**

품질보증 Q마크, 특허원(27677.27678)획득한 제품



· 콩나물콩, 녹두, 무우, 기타 모든 씨앗을
· 하루밤정도 물에 불렸다가(8~10시간)
· 수경재배기 속에 넣어 두기만 하면
· 사나흘 후에 콩나물을 먹을 수 있는

★ 실내에서는 '가습기역할'을 해주므로 호흡기질환 예방효과' 및
★★자녀들「자연학습교재」로도 사용되며
★★화분으로도 이용됩니다.

⊙ 정 가 : ₩19,500
⊙ 기획특별할인가 : ₩9,500

북한의 명산「묘향산」
송화가루(소나무꽃 가루)!!

묘향산 **「송 화 가 루」**

· 알콜성간염, 만성장염에 효과
· 중풍예방, 노화예방, 칭혈작용
· 땀띠, 피부습진, 피부미용에 효과
· 외상출혈시 뿌려주면 출혈이 멎고 내과적 출혈에도 좋으며
· 기력을 돋구어주고 정력에 으뜸



500g입. 3개월 복용분

동의보감,본초강목,중약대사전에 수록된 내용임

복용법 벌꿀, 미숫가루, 선식, 요구르트, 식혜, 우유 및 각종 茶를 마실 때 2~3 티스푼 타서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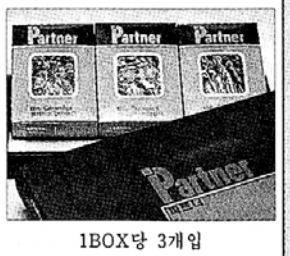
※ 각종 차 마실 때 같이 타서 마셔 보세요

⊙ 정 가 : ₩99,000
⊙ 기획특별할인가 : ₩55,000

아하!! 요 게 바로 그 유명한 건강팬티??

바이오 세라믹 **원적외선 건강팬티**

300여종의 광석에 함유된 원소를 추출 1600℃ 고온에서 소성 정제한 「원적외선 바이오 세라믹」을 100% 면팬티에 코팅처리하여 만든 건강팬티!!
입고만 있어도 원적외선이 인체중 가장 중요한 부위의 7개 경혈에 40mm깊이까지 자극을 주어…



1BOX당 3개입

⊙ 여성 : 생리통, 요통, 냉증, 악취제거
⊙ 남성 : 요통, 냉습예방, 정력증진

★자주 세탁할수록 방사효능이 뛰어납니다.

⊙ 정 가 : ₩39,000
⊙ 기획특별할인가 : ₩25,000

굶기도 해보고 운동도 해 봤고
별별수단 다 써봐도 소용이 없고…

다이어트 맛사지 **헬스 미용벨트**

이직도 2~30만원대
「헬스미용벨트」를 찾고 계십니까?
이 「헬스미용벨트」는
살이 쪄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부위에 장착만 하시면

「주물러 주고」「두드려주고」
「지압도 해주고」…
쾌적한 운동파가 맛사지를 해드림과
아울러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질을 분해 해 줍니다.

고민스러운 뱃살! 이젠 「안녕」…





가 슴 / 배·허리 / 발바닥 / 허벅지 / 둔 부 / 종아리

⊙ 정 가 : ₩250,000
⊙ 기획특별할인가 : ₩98,000

속보!! **보너스상품 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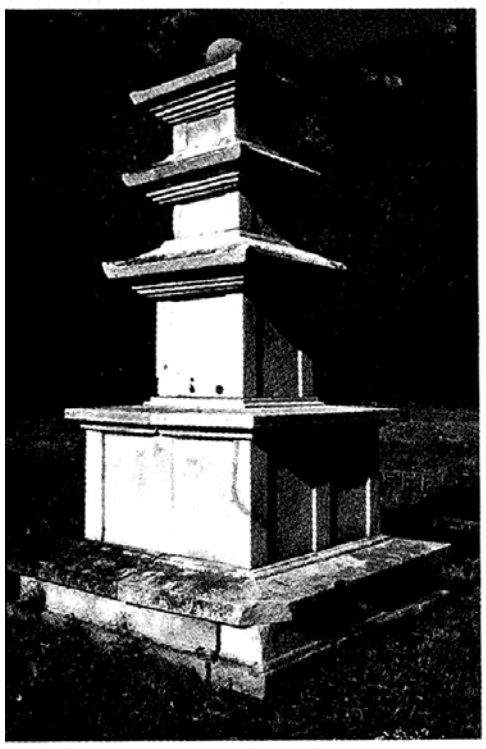
당회사 상품을 ₩30,000이상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는 집에서 간단하게 물 단 한방울 주지 않고서도 무공해 콩나물을 길러서 먹을 수 있는 「전자동 무공해 콩나물수경재배기」를 *돈한푼 받지 않고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처
주간 : 0345) 84-4840
야간 : 011-244-6757
두오상사 소비자 상담실

◆ 대리점 모집 ◆
· 자본금 필요없음
· 현재점포 소유자
· 주부재택 근무가능

강원지역 불교문화재

국보 · 보물지정 잇따라



◇강원도 불교문화재가 잇따라 문화재지정을 받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올해 4월 보물로 지정된 인제 한례사지 남3층석탑.

군사보호시설 묶여 오히려 원형보존

도 · 향토사학자들 지역자긍심 고취 적극

민통선을 비롯 군사보호시설이 타지역보다 많아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강원도내의 불교문화재들이 잇따라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강원문화권 규명을 위한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강원도의 불교문화재는 올해들어 동해 삼화사 3층석탑을 비롯 인제 한계사지 남·북3층석탑 등 3건이 보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보수과정 중 명문이 발견돼 학계를 놀라게 한 삼화사 철불은 국보지정 심의를 받고 있다. 또 원주 소초면 마애여래좌상 등 원주지역 불상 5건을 비롯 태백 심원암 토제좌불상, 양구 심곡사 목조삼존불 등 총 7건은 한꺼번에 도문화재 심의에 올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이 강원도내 불교문화재가 대거 문화재 지정을 받게 된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재관계자들과 향토사학자들이 적극 나섰기 때문.

강원도는 93년부터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도내 각 대학박물관에 용역을 의뢰해 시군별 역사와 문화유적을 조사 정리, 향토문화재자료집 총21권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집대성했다. 올해부터는 문화유적에 대한 목록화 작업과 계층적 정리를 통해 비지정 문화재 가운데 보존대책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문화재를 선별, 지정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책에 기재된 모든 도내 문화재분포상황을 2만5천분의 1지도에 상세히 표시한 〈문화유적 분포지도〉와 문화유적에 관한 특징과 가치 등을 보존대책과 함께 담은 〈문화유적 원부〉를 제작, 문화재 보존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강원도 문화예술과 정연우씨는 "강원도의 많은 지역이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 확인된 바로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아 비교적 원형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며 "철저한 현황파악 및 연구를 통해 군사보호지역의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7년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성익씨는 〈춘주문화〉 12호(춘천문화원 刊)에 '강원도의 지정문화재급 불교문화재 조사보고'를 기고, 비지정 불교문화재 중 상당수가 보존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훼손된 경우(인제 한계령사지)가 있는가 하면 보고가 됐음에도 보존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원주 부흥사지 석탑재, 평창 대상리 석탑재)도 있다는 것. 다행히 홍씨의 지적이 받아들여져 부흥사지에 흩어져 있는 석탑재는 올 4월에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고, 평창강에 빠져 유실위험이 있는 대상리 탑재는 평창군이 예산을 마련, 보존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불심시심 〈133〉

기미 잊어야 하늘 땅 근원 알아

忘機天地本 (망기천지본)	기미마저 잊어야 천지 근본 알지
終日坐漁磯 (종일좌어기)	종일토록 낚시터에 앉아 있다
山影孤帆去 (산영고범거)	산 그림자에 외로운 돛이 지나고
鷺光曉浦歸 (로광만포귀)	갈매기 등빛 저문 개포로 돌아온다
一身琴上老 (일신금상로)	이 한 몸 거문고 속에서 늙고
萬事酒中微 (만사주중미)	온갖 일 술안에서는 하찮다
凉凉煙蕉夢 (곤곤연사몽)	넘실넘실 어옹의 도롱이 꿈
春江十里霏 (춘강십리비)	봄 강에는 십리의 가랑비.

월하대사의 '김씨의 강정에서 쓰는(題金氏江精)' 시이다. 강가의 저녁 풍경을 담박하게 읊었다. 천지자연의 근본 이치를 알려면, 오히려 자연이 이루어진 기미마저 잊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망기이다. 망아라 하여 나를 잊음이 귀하지만 나를 잊으려 하면 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니 쉽게 잊어지지 않는다. 나의 존재라는 그 동기마저 잊을때 그것을 없음이라는 말로 대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고기는 자신이 놀고 있는 물의 있고 없음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제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것이다. 이 망기를 배우려 낚시터에 앉아 있는 것이다.

수면에 떠있는 산그림자. 이것을 가르며 지나가는 배이니, 이 배는 산그림자를 가르고 있는 것이다. 곧 물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산자락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역시 비논리의 논리이다. 갈매기 빛(鷺光)이라 하였으니 석양을 등에 져 한 점의 빛으로 보이는 갈매기다. 시어로서 묘한 표현이다. 이 한 점의 빛이 저녁 노을 띠고 포구로 돌아온다. 이것이 강정의 전체적 풍경이다. 강이, 넓이나 길이, 또는 평방이나 장단의 단위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시선 끝의 한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외로운 돛이나 갈매기 날개로 이 질량적 공간을 여유롭게 포용한 것이다.

여기에 거문고 하나, 술 한 잔으로 작자의 심사를 모두 담은 것이다. 하루의 어떤 한 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로 정착한 것이다. 여기에서 '늙다(老)'의 한 글자가 갖는 시간의 확장과, '작다(微)'로 맞물리는 사물 공간의 축소가 작자의 도량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장단 대소의 이 자리를 봄강의 비가 감싸주고 있다. 강정에서 바라보는 무한의 거리 저 십리의 시선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국내 最古 사경은?

호암미술관 '화엄경' 성암고서博 '다라니경'

학계주장 양분

현존 국내 최고의 사경으로 알려진 호암미술관 소장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196호 · 755년)보다 먼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백지묵서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공개돼 연대추정을 놓고 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성암고서박물관(관장 조병순)이 13일 공개한 사경은 총 길이 7m9㎝, 폭 27㎝로 앞부분에는 비단위에 금니로 그린 변상도(불교의 교리를 알기쉽게 그림으로 압축 표현한 것)가 있고, 본문은 한지에 묵으로 글씨를 쓰고 있다.

25여년전 국내에서 이 다라니경을 구입, 고증작업을 벌여온 조병순관장은 세계최고의 목판본으로 알려진 석가탑출토 무구정광대다라니경보다 40여년 앞선 것(8세기 초반)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관장이 주목하는 것은 변상도에 보이는 3층석탑. 옥개석 모서리를 살짝 들어올린 수법이 백제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옥개석 사방에 매달린 풍탁(風鐸)의 추도 93년 부여 능산리에서 금동용봉봉래산향로와 함께 출토된 유물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박상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은 "지질, 글씨체 등과 함께 고문서의 중요한 편년기준이 되는 무주제자(武周制字 · 측천무후가 자의로 만들어 사용했던 글자)가 석가탑 다라니경에는 4종 10자가 나오는 데 비해 성암본에는 5종 15자가 나온다"며 "무주제자는 측천무후가 죽은 뒤 사용이 금지된 만큼 이 글자체가 많을수록 더 오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으면서도 변상도와 본문의 보존상태가 너무 차이나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5년 성암고서박물관에서 이 다라니경을 확인한 바 있는 천혜봉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무주제자는 고려대장경 1권에만도 10종이상이 보인다"며 "글씨를 베껴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많고 적을 수가 있는 것이므로 절대 편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명대교수(동국대 미술학과)도 "변상도의 탑만 보더라도 기단부에 신증상이 새겨지는 것은 8세기 후반 이후부터이며, 탑의 1층탑신은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지는 체감률은 전형적인 고려탑 양식"이라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16일 공개된 금동아미타삼존불.

개인소장 금동삼존불 공개

연꽃대좌위 삼존불 결가부좌 '독특'

고려불상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영탑사 금동삼존불(보물 409호)에 비견될만한 금동아미타삼존불이 16일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고미술수집가 P씨가 소장하고 있는 이 삼존불은 높이 41㎝로서 세 가닥의 줄기에 핀 연꽃대좌에 지장보살 · 아미타불 · 관음보살이 차례로 결가부좌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시기는 고려가원(元)나라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13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15세기 말 조선시대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은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품"이라고 높게 평했다.

그러나 영탑사 것을 모본으로 하면서도 삼존의 배치나 상호(얼굴), 머리형태, 의습(衣褶), 띠매듭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기석 기자

문화 단신

봉원사 영산재 시연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스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동안 신촌 봉원사 대웅전 앞 특설 도량에서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30년만에 있는 생칠 생전예수재로 봉행되며 송암 벽응 일응 스님 등 인간문화재 스님들과 준보유자 등 총 150명이 의식에 참여한다. (02)392-3007

불교문화재 사진전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회장 이병윤)는 28일까지 전주 전북불교회관 2층에서 불교문화재 사진전을 갖는다.

이번 사진전에는 관조 영담 선암 스님, 이병윤 고준윤 유정애 전창복 씨 등 회원들의 작품 4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0652)75-0108



◇전창복作 '기원'.

국제조각 심포지엄

국제 조각가친선협회장 박찬갑씨가 주관하고 이천문화원(원장 이은구)이 주최하는 제1회 국제 조각심포지엄이 7월 10일부터 보름동안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일대에서 열린다.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조각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박찬갑 강대철 씨를 비롯 영국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 등 19개 나라 유명 조각가 25명이 참여한다.

불교성보문화연구소 설립

인사동에…성보조사 · 감정 · 전시등 추진

성보박물관의 건립준비에서부터 개관 및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담당할 연구소가 설립됐다.

김현정(상명대 강사) 정진희(수덕사 성보박물관 개관준비 학예연구원)씨 등이 8일 서울 인사동에 문을 연 불교성보문화연구소는 성보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불사 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펼친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본 · 말사내 성보조사, 전시장의 규모선정, 박물관 내 · 외부시공, 전시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성보박물관의 전시기획안이 확정되면 효과적인 시공과 운영을 위해 전문 학예연구팀도 운영한다. 학예연구팀은 소장 성보조사 및 감정 성보대장작성 등을 담당할 성보조사 · 연구팀과 전시구성 성보의 보존처리및 보수 홍보자료 작성 등을 담당할 전시행정팀, 도록 및 안내책자 등을 담당한 편집팀으로 구성된다.

불교성보문화연구소는 성보박물관 개관 이후 특별전 개최, 박물관 강좌및 불교문화강좌 개설, 박물관 상설운영을 비롯 문화학습지역 및 종교적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성보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 포교에 적극 활용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김중근 기자 〈jgkim@buddhapia.com〉

身土不二의 企業 (株)興國農産

○ 신 · 토 · 불 · 이 · 정 · 신 ○
土種무엿 · 호두기름 · 土種홍화씨



함양산 토종 홍화씨가 왜 좋은가?

청정지역인 지리산 자락 함양은 홍화씨 재배의 적지이며, 농촌지도소, 약초시험장 등을 중심으로 재배농민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우수한 품질의 홍화씨가 생산되어 소비자들께서 그 품질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는 수입산도 넘쳐나고 수입산으로 한해 농사를 지어 토종이라 값싸게 판매하는 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땅 아무지역에서나 심었다고 모두 토종은 아닙니다.
몇해에 걸쳐 같은 토양과 토질의 땅에서 수확한 같은 씨앗으로 유황을 뿌려 심고 가꾼 함양산 홍화씨는 한알의 씨앗에도 농민의 땀과 정성이 듬뿍 베어있는 토종 眞品 홍화씨입니다.

소비자가격 200g 씨앗 33,000원/250g 가루 43,000원

함양특산물 - 토종 홍화씨

군에서 적극 장려하여 수백여 농가에서 재배,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함양산 토종 홍화씨-보사부의 식품 원료사용 허가와 때를 맞추어 상품화시킨 토종 홍화씨를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안심하시고 구입하십시요.

함양군수 郭 燦 호

뼈에 좋은 함양산 土種 홍화씨

土種무엿 600g = 소비자가 45,000원

'무 하나 잘 먹으면 인삼 한뿌리 먹는 것 보다 낫다'고 알려질 만큼 무는 식용으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무에는 포도당, 스크로브등과 같은 당분과 함께 신맛을 내는 산, 비타민 C, 그밖에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 진해, 거담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고 가래, 기침, 해소천식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무는 해독작용이 현저하여 체내의 독성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으며, 폐질환으로 인한 각혈, 코피등과 두통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무엿은 재래식 가마솥에 생강, 마늘을 깔고 무를 썰어 얹은 다음 약재를 놓고 찹쌀과 엿질금으로 삭혀 3일을 고아 정성껏 만든 옛날 식품입니다.



⊙ 사찰내 불교용품 판매점, 매점등에 전시판매하실분은 연락하세요.

호두기름 100ml = 소비자가 27,000원

호두는 만성기침에 효과가 있는 폐, 기관지질환의 약재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호두는 신장기능이 허약하고 천식해소를 하는 환자에게 좋고 혈액순환이 잘되며 보혈작용, 눈이 맑아지며 피부는 윤택하게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은행과 살구씨는 기침, 발열, 해소, 천식등에 이용하여 왔습니다.
호두기름은 토종호두살을 큰솥에 밥을 지어 뜸이 들즈음에 집어넣어 2회를 찌고 말려서 살짝 볶은 은행과 살구씨를 혼합하여 기름을 낸 것입니다.
호두기름은 교사나 가수등의 성대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문처 (무료전화)

전 국	(080)064-1300
서 울	(080)070-1300
광주 · 전남북	(080)085-1300
대구 · 경북	(080)040-1300
제 주	(080)090-1300

건강한 農民의 鄕土企業
(株) 흥 국 농 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19
전화 : (0597)64-1300
FAX : (0597)64-1304



■ 진흥원 '한국불교총람' 개정판 발간

한국불교 현주소 '한눈에'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총람〉 개정판이 10일 발간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96년 1월부터 2년6개월의 편찬작업을 거쳐 새롭게 개정보완한 〈한국불교총람〉은 '한국불교총람' '종단' '법인' '불교단체/기관' '불교관련 업체' '사찰' '인명' '불교문화재' '불교도서및 논문' '한국불교사연표' 등 총 10편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람은 93년 초판과 비교할 때 한국불교의 발전된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2년6개월 보완 작업
직장 · 직능단체 세분화
9월초 CD로도 출시

그동안 증가한 불교법인 및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직장 · 직능단체는 불교의 질적성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총람에는 56개 종단의 총무원 종조 종지 주요사업 산하기관 교세 기구표등의 현황과 4천여곳의 신행 포교 청년 학생 교육 연수 학술 문화 사회 복지등의 불교단체와 기관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특성에 따라 소재지 활동상 주요연혁을 정리하고 있다. 불교단체의 경우 전문화 · 세분화되는 추세에 따라 직장 · 직능단체들이 창립돼 93년 대비 1천여곳이 증가됐다.

개정판에는 1천여곳의 불교관련업체와 1만3천여 사찰 2천5백여명에 이르는 승가 재가 인명자료가 수록돼 있는데 사찰의 경우 초판에 비해 1천5백곳이 증가했으며 인명도 7백명이 늘었다.

불교법인은 초판당시 97개이던 것이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98년 현재 재단법인 48개 사단법인 57개 학교법인 16개 사회복지법인 44개로 총 1백50곳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1993년 이후 불교관련 국가지정 문화재와 불교도서논문 한국불교사연표도 실려 있으며, 추가 지정 불교문화재 2백16건에 대한 지정내용 소재지 지정일 등이 정리돼 있다. 불교도서및 논문은 3천2백여건이 도서명 편저자 발행처 사양 발행연대순으로 나와있다.

서돈각 이사장은 "현재 작업중인 CD도 9월1일까지 출시하겠다"며 "이번에 발간된 총람이 필요한 곳에 이용돼 불교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4×6배판 1천144페이지 양장제본이며, 구입문의는 도서출판 책섬(02-719-2607)으로 하면 된다. 판매가는 12만원.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해외신간

내면의 혁명



〈내면의 혁명(Inner Revolution)〉은 로버트 서먼교수(美 콜롬비아대)가 최근 미국 역사학계에 제기한 불교적 세계관 논쟁을 정리한 책. 서먼교수는 이 책에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물결은 합리적 과학기술 중심부에 인간의 존엄성을 세운 것이며, 사회구조도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불교적 구성체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Riverhead Books 刊 〈p.p 322, ISBN 1573220906〉

오늘날 다시 살아난…

도원선사(道元禪師 · 생몰연대 미상)의 가르침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한 〈오늘날 다시 살아난 도원선사의 가르침〉이 나왔다.

일본의 선(禪)의 대가 3인, 미야자마 에끼호오(조동종 본산 영평사 주지) 나까무라 모토(동방대학원장) 다테마쯔 가즈히라(동경대 명예교수)씨가 도원선사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묶은 것으로 △도원선사의 구도심 △도원선사의 자연관 등 5편이 수록돼 있다. 日 불교기획 刊

선과 궁술



선(禪)을 다룬 책은 대부분 지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선은 궁극적으로 수행을 요구한다. 독일 철학자 유진 헬리겔이 저술한 〈선과 궁술(Zen in the Art of Archery)〉은 궁술을 배우는 과정을 선승의 수행법으로 풀이해 독자에게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선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Vin-tage Books 刊.〈p.p 81, ISBN 0679722971〉

고침 178호에 소개된 〈벼랑위의 깃발〉 저자는 전 용찬 경감에서 경무관으로 바로 잡습니다.

"홀인원 하려거든 먼저 마음 비우세요"

방민준씨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펴내

방민준씨(51 · 한국일보 광고국 부국장)가 펴낸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서해문집 刊)은 박세리로 인해 '부유층 스포츠'에서 일약 국가위상을 높인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골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얼마나 부단한 정신수양이 필요한지를 선의 화두나 경구(經句)를 통해 설명한 책이다.

골프를 하는 동안 벌어지는 갖가지 상황상황에 적용되는 수많은 교훈들과 일화들이 선승들의 화두나 경구, 그들의 행적과 신통하게도 딱이 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프를 잘하는 방법론 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수행하고 생활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수행지침서'에 가깝다.

자신의 학식에 대해 지나치게 우월감을 갖고 있는 어느 대학교수가 선에 대해 묻기 위해 난인선사(일본 메이지시대)를 찾았다. 선사는 차를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찻잔에 차가 철철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차를 따랐다. "차가 넘쳐 흐릅니다" 그러자 선사는 말했다. "그대는 아상이 이처럼 넘쳐 흐르니 먼저 아상을 비우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어찌 그대에게 선의 차를 따를 수 있으리오."

골프도 그렇다. 골프에 관한 온갖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비우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골프의 지혜를 담을 수 없다. 월터 심프슨이란 골퍼는 "머리 속을 비우면 비울수록 골프 솜씨는 향상된다"고 말했다. 정말 필요한 지혜란 바로 공이며 평상심이다. 골퍼들의 평생꿈인 '홀인원'은 곧 공의 세계다.

이 지혜는 골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스포츠와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책은 이런 속내를 드러내 보이며 골프를 통해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선이 있음을 눈치채게 한다. 독특한 제목만큼이나 이야기들도 재미있다.



◇골프는 곧 선수행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심우도.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제공: 여시아문)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 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펠	여시아문
3	에붐,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4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흥 근	여시아문
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 · 지현	민 족 사
6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8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9	밀교강좌	혜 정	출판시대
10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신동춘교수의 '속 벽암록' 日서 2권으로 번역출간



96년 발간된 신동춘 교수(한양대 명예교수)의 〈속(續) 벽암록〉이 일본에서 〈속 벽암록〉과 〈신(新) 벽암록〉으로 각각 번역,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홋카이도 사탑(斜塔)출판사에서 〈속 벽암록〉이 고오노 에이지(鴻農映二)씨의 번역으로 나온데 이어, 최근 도쿄 서사청수사(書肆靑樹社)에서 〈신 벽암록〉을 펴낸 것.

고오노씨는 신교수가 〈속 벽암록〉에서 보여준 선(禪)과 현대시의 접목에 주목하고 있다. 〈신 벽암록〉은 재일동포 강창중씨(시인)가 신교수에 의해 구현된 사사무애한 선의 세계를 좀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함으로써, 일본어적으로 쉽게 표현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불교상식' '…근본사상' '…불자생활'

동산반야회서 펴낸 책 3권

신행단체인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불교에 처음 입문한 불자들을 위한 기초교리와 부처님의 사상을 쉽게 설명한 세 권의 책을 펴냈다.

〈간추린 불교상식〉은 조계종 포교사 곽정현씨가 엮은 것으로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근본교리, 제불보살, 불교사, 불교문화, 포교이론, 사찰예절 등 불교상식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불타의 근본사상〉은 1978년 나온 월포라 라후라의 저서 〈불타의 가르침(What the Buddha Taught)〉을 동산반야회가 편역한 책. 사성제, 팔정도, 연기, 무아사상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불교교리 그리고 불자생활〉은 교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신행생활의 방향을 제시한 지침서. 불교문화 등을 포함한 불자의 올바른 생활자세를 제시했다. 세 권 모두 동산반야회 부설 출판사인 동산법문에서 간행했으며, 통신판매만 한다. (02)722-0408 한명우 기자

화제의 책

인도 성지순례의 감동 서정적 서술

방랑시작 | 재연스님 지음

"큰스님 분가루는 왜 바르세요" "못난 중생들이란 그저 상을 취하는 법이어서…" "못난 중생들 속에 분가루로 검버섯을 감추시는 스님도 들어갑니까." 되물은 사미는 쭈뼛 치켜든 큰스님의 흰 눈썹에서 고양이의 송곳니를 본 후 묵묵히 산문을 나섰다. 방랑의 시작이었다.

위선과 허위로 가득찬 세태를 풍자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방랑 시작〉은 현재 인도 푸나대학에서 공부중인 재연스님의 산문집. 삽십년 수도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의 순간들, 그리고 삶의 지혜를 서정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인도의 여러 성지를 직접 순례하며 느낀 것을 원시불교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한 것이 특이하다. 〈문학동네, 6천5백원〉

불교와 그리스도교 수도생활 비교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 재문스님외 지음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수도행활〉은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도생활 비교를 통해 두 종교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불교는 수행을 그 자체가 본질이자 궁극인 것으로 보는 반면, 그리스도교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차이점에 대한 논의도 개진되고 있다. 재문스님(중앙승가대 강사) 김승혜(씨튼 까리따스수녀회) 한순희(가톨릭대 종교학과 교수) 윤영해(경주 동국대 강사) 진 토마스(성메네딕토회 왜관 수도원) 등 5명의 '승가계율의 역사와 정신' '그리스도교 수도회 규칙의 역사와 정신' 등 10편의 글이 실려 있다. 글쓴 이들은 모두 이론적이 아닌 실천적 측면에서 두 종교가 서로 만난다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오로딸, 6천5백원〉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 셀러 1위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스님

류시화 엮음



이 시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에게 듣는다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다 떠난 빈 집을 고쳐 홀로 생활하는
법정 스님의 삶의 풍경과 지혜의 말씀

내가 사는 곳에는 눈이 많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내려온다. 그래서 콩이나 팥을 걸 놓아 준다. 박새가 더러 오는데, 박새한테는 좁쌀이 필요하니까 장에서 사다가 주고 있다. 고구마도 짐승들과 같이 먹는다. 나도 먹고 그 놈들도 먹는다. 밤에 잘 때는 이 아이들이 물 찾아 개울로 내려온다. 눈 쌓인 데 보면 개울가에 발자국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질녘에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구멍을 만들어 둔다. 물구멍을 하나만 두면 그냥 얼어 버리기 때문에 숨구멍을 서너 군데 만들어 놓으면 공기가 통해 잘 얼지 않는다. 그것도 굳이 말하자면 내게는 나눠 갖는 큰 기쁨이다.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끝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 본문 중에서

무소유한 삶, 자신을 늘 되짚어 보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고구마 하나까지도 오두막 근처에 내려오는 산짐승들과 나눠 먹는 삶, 그리고 저녁이면 문득 등불을 마주하고 앉는 여유로운 삶,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법정 스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 엮은이의 글에서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이후 3년만의 신간
교보문고 주최 법정 스님 특별 강연 1998년 6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서울시 중구 묵정동 13-9 배영빌딩 401호
전화 263-1941, 팩스 263-1946 동쪽나라

"불교 교리체계 종교 자유 옹호"

김용표교수 '종교의 자유 심포지엄'서 주장



2천5백년 불법포교 박해사례 한건도 없어

"타종교비난 인권유린 공존의 조화 지혜 배우자"

"침된 종교의 자유실현을 위해서 서구 종교에서 중요시 해온 정와 심판보다는 지혜와 자비를 우해야 한다."

UN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으로 일 삼육대에서 열린 국제종교자협회 북태평양지회(사무총장 신 다다오미) 주최 '종교의 자유 포지엄'에서 김용표 교수(동국대 교학부)는 '불교의 관점에서 본 교의 자유'에서 "불교는 종교의 유를 가장 확실하게 옹호하는 교 체계를 지니고 있는 종교"라고 장했다.

인도 베트남 티벳 등 아시아 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자 침해 사례 분석을 통해 김교수 "종교의 자유 침해는 인간의 기적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원인에 대해 △타종교에 대한 타적 교리와 감정 △특정 종교나 데올로기를 이익 집단화하려는 집을 들었다.

김교수는 불교가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에 대해 갖는 입장에 대해 칼라마경〉 야쇼카왕의 선언 등을 용, 관용과 이해의 정신에 바탕한 불교는 2천5백년에 걸친 포교 과정에서 어떠한 박해의 사례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칼라마경〉의 '전통이나 종교적 권위를 지닌 성전 때문에, 이것은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이끌리지 말라. 다만 그대 스스로 어떤 것이 온전치 않고, 나쁜 것인가 알 때 버리도록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한 김교수는 "불교는 사상과 언어와 자유로운 진리 탐구의 태도를 가르치며, 맹목적 믿음이나 전통의 힘을 강요하는 종교에 대해 비판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 아쇼카왕(268~232 재위)의 비석 칙령에는 '자기의 종교만을 존중하고 다른 종교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종교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이의 종교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이의 종교의 교의(敎義)에도 귀기울이도록 하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인용하면서 "불교는 배타적 절대 진리주장이나 도그마적인 진리관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불교가 타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교만이 진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교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불교의 기본 교설을 바탕으로 현대의 종교 자유문제에 대해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교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배타적인 절대 진리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전통과 도그마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참다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기초가 형성 된다는 것. 또 "여러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종교학적 지성의 연마와 아울러 종교간의 대화를 위한 이론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사회이익 집단화하려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돌아가 함께 공존하는 조화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12일 삼육대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심포지엄.

"한국사상사연구 문중중심 치우쳐"

한형조교수 관행 비판



한형조 교수(정신문화연구원)가 '문중학(門中學)'이란 부정적 평판을 들어온 국내 동양철학계에 비판을 제기, 화제다. 13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2회 중국어문학회 학술발표회에서 한교수는 "한 인물의 사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문중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연구논문이 쏟아지는 기현상을 보여왔다"고 개탄하며, "문중의 올타리를 벗어나 행적이나 사상적 특색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풍토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불교와 현대과학 만남은 필연

소홍렬교수 주장



"과학의 마지막 미개척지라고 하는 의식의 세계 또는 마음의 세계에 있어 놀라운 수행의 길을 개척해둔 불교는 정교하고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 주최로 13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2차 세미나에서 소홍렬교수(이화여대 철학과)는 '불교와 의식의 과학'을 통해 "불교와 현대과학의 만남은 필연이다"고 주장했다.

소교수는 "의식의 과학이 의식의 단계, 또는 진화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과학이 되고자 할 때 불교와 연기적 관계를 갖게 된다"며 "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불교적 수행법은 비과학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인지적이고 지성적이며 논리적 철저함을 중요시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의식세계를 그처럼 심오하고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를 설정하지 않고 내재주의적이며 자연주의적인 불교의 자유로움 때문이다"고 덧붙이며 소교수는 "초월적 힘에 의존하는 수행이나 믿음의 방법도 없이 '연기'와 '공'의 두 개념만으로 의식의 계발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불교와 과학적 개념의 접목은 의식세계의 과학적 전개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성철씨(중앙승가대 강사)는 "현대과학에서의 '의식', '인지'와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 '마음'에 있어 먼저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교수에 이어 김옥선씨(이화여대 강사)가 '불교적 추론의 모형'을 발표했다.

김정은 기자

학술단신

7회 백련불교아카데미

제7회 백련불교아카데미가 '불교와 현대문헌의 영역에 관한 제 문제'를 주제로 27일 오후2시 대학문화원 교육관에서 열린다.

서울대 윤원철 교수(종교학과)의 〈선문정로〉 영역작업 중의 경험과 '을 비롯, '불교서적 영역을 위한 방법론'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 (02) 265-5216

'원불교사상' 21집 발간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이천은)에서 최근 〈원불교사상〉 21집이 나왔다.

이번 논문집에는 △최치원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최병헌 · 서울대) △한국에서의 미륵신앙의 전개와 역사(백승종 · 독일 튀빙엔大) 등이 수록돼 있다.

연구논문 지원자 선정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98년 학술연구비지원 '우수연구논문' 지원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선정된 우수논문 및 연구가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한 유식학적 고찰(김명실 · 동국대 강사) △1과 2 그리고 3 -현대적 교판(敎判)을 모색하며(최정규 · 고려대 강사) △선불교사상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해석(백승대 · 영남대 교수) △려말선초 선사들의 계보와 그 활동(황인규 · 동국대 강사) △〈육조단경〉에서의 견성의 의미(월호스님 · 쌍계사 중강) 등 이다.

"종교 수용할때 과학 발전가능"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타운박사등

과학자 27명 美서 세미나 열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찰스 타운박사 등 과학자 27명이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종교와 자연과학 연구센터에서 8~10일 '종교와 과학의 제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종교와 과학 사이의 불화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에서 과학자들은 "20세기 들어서 양자역학과 초미립자 세계의 발견으로 과학이 즐곧 추구해온 객관적 세계관이 불확실해졌다"며 "현대 과학의 영역에 종교를 적극 수용할 때 과학은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엔 포얼스트박사(메사츄세츠기술연구소)는 현재 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인간로봇 '코그'의 의미를 불교의 환생관으로 설명했다. 아서 피코크박사(생화학자)는 "과학적 사실은 매번 새로운 기술 · 지식에 힘입어 개정돼 왔지만 이제는 종교를 수용해 충격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찰스 타운박사(물리학 노벨상 수상자)는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종교 세계관의 허점을 공격하기 보다는 그것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찾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준비했던 자연과학연구센터의 주임연구관 리차드 슨박사는 "동시대 과학자들은 종교를 용납하지 않았던 구시대 과학자들과는 과학의 대세를 거슬리는 종교원리주의자들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해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이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아시아 지역 빈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구휼기관 중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체는 불교빈민구제사업단(Buddhist Relief Mission).

1988년 일본 나라현 카쉬하라시에서 일본불교의 모든 종파를 초월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의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불교빈민구제사업단을 설립했다. 이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무급의 자원봉사 직원들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 · 교육 · 복지사상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등 포교에도 남다르게 활동하고 있다.

불교빈민구제사업단이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아시아 빈민 지원 실태 △사진 · 영상자료 △세계식량 · 기아현황 △소식지 '담마파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단은 카투만두 고원지대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약자들을 위한 불교 수용소, 인도 캘커타시 관자촌 학교, 미얀마 상가병원(Sangha Hospital), 방글라데시 차크마시의 고아원 · 탁아소 시설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국경을 초월해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들을 상가병원에 기증하고 병원, 난민촌, 교도소 등에 불상, 참선을 위한 염주, 불교경전, 포교용 오디오와 비디오 테잎 등을 기증해오고 있다.

또 사업단은 태국과 방글라데시에 피신해 있는 스님들을 위한 도움을 수시로 지원하는 등 제3세계 불교국가의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대개 티벳 · 미얀마 · 캄보디아 등에서 반체제 운동을 전개하다 망명한 스님들이다.

인도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 사업단은 최근 청년불교지식인사절단(Young Buddhist Sutdent Literacy Mission)과 공동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스님들을 지원하고 있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과 하로크하니 몬 난민캠프(Halockhani Mon Refugee Camp) 등지에 평화의 사찰을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피난민들의 불교 신행을 돕기 위해 〈불교개론〉이라는 소책자를 발행 · 보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은 대부분 독지가나 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조달받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단에서는 문서포교의 일환으로 빈민들과 기부금 지원자 그리고 회원들을 위해 〈담마파다(법구경)〉라는 소식지를 무가지로 발행하고 있다.

현재 이 소식지는 라오스에서 4천8백부, 크메르에서 4천부, 몬에서 1천부를 무료로 배포하여 현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시아 기아-기아체험'과 '세계 구제 현황 보고서' 등의 영상물을 제작해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빈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아시아 기아-기아체험' 비디오는 총 80분(分)의 영상물로 250장의 자료사진이 담겨있다. 또 기아 현장에서 봉행되는 법회의 생생한 모습 뿐만 아니라 '기아체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녹취도 들을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다큐멘타리 제작자인 비사까 카와사끼가 제작했다. 이 비디오들은 구제사업단이 개설한 사이트에서 전자 구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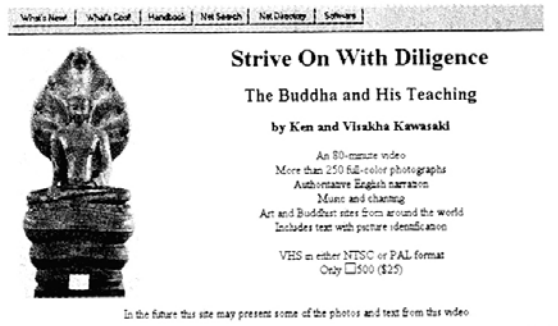
http://www2.gol.com/users/brelief/

오종욱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 빈민구제사업단

日 종파초월 결성 약품 · 의료기기 기증 경전 · 염주 등 보급 아시아 빈민 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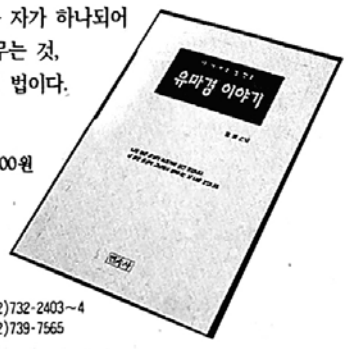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쉽게 풀어쓴 새로운 경전 이야기!

다·시·보·는·경·전①
유마경 이야기
慧 諷 스님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을 것입니다.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을 것입니다.'
중생과 자기를 동체대비시킨 유마의 말이다.
너와 내가 하나되고 없는 자와 가진 자가 하나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되어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유마거사의 법이다.

신국판 240쪽 / 값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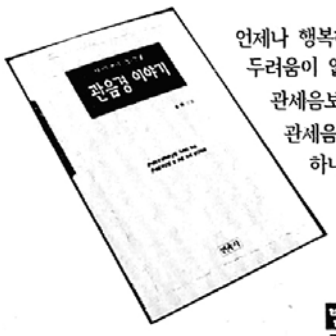


신간!

다·시·보·는·경·전②
관음경 이야기
東 峰 스님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염하라.
그러면 늘 평안하리라.
언제나 행복하리라.
두려움이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 되라.
관세음보살과 그대가
하나가 되라.



신국판 180쪽 / 값 5,5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 · 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詩人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시면서
모은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차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46판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법보시 합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55

오대산 가는 길

*어느 승려가 노파에게 대산(臺山) 가는 길을 물었다. 노파가 대답했다. "이리로 곧장 가시오." 승려가 그쪽으로 서너걸음을 떼놓자 노파가 말했다.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시누만." 그후 누가 이 일을 조주에게 알렸다. 조주가 말했다. "어디, 너희들을 위해 내가 가서 노파를 알아보마." 다음날 조주가 가서 똑 같이 물었고, 노파 또한 똑같이 대답했다. 조주가 돌아와 대중들에게 말했다. "대산의 노파는 내가 다 알아보았느니라."

*나 혜개가 말한다. "노파는 앉아서 전술을 구상할 줄만 알았지 실제 적과 맞닥뜨린 것을 깨닫지 못했다. 조주 노인은 진영을 훔치고 요새를 치는 솜씨는 뛰어나나 대인의 풍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찬찬히 살피면 둘 다 잘못이 있다. 그럼 어디, 말해 보라. 어디가 조주가 노파를 알아본 자리인가."

*송하여 가로되, "물음이 똑같으니 답도 또한 같을 수밖에. 밥 속에 모래가 있고, 진흙 가운데 가시가 있다."

趙州勘婆:

趙州因僧問, 婆子臺山路向甚處去, 婆云, 驀直去. 僧纔纔行三五步, 婆云, 好箇師僧又恁麼去. 後有僧舉似州. 州云, 待我去與他勘過這婆子. 明日便去, 亦如是問, 婆亦如是答. 州歸謂衆曰, 臺山婆子我與他勘破了也. 無門曰, 婆子只



그림 ··이준석

길목에서'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이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지눌의 제자이자 고려 선종의 집대성자인 혜심의 〈선문염송·禪門拈頌〉도 오해의 소지가 없다.

성지로 가는 길목에 한 노파가 있었다. 아마도 덕산의 노파처럼(45~48강) 좌판을 벌여놓고 떡을 팔거나, 혹은 음식이며 숙소를 제공하는 주막집의 주인이었을 수도 있다. 순례자는 묻는다. "대산으로 가는 길이 어느쪽입니까." 노파는 손가락으로 한 길을 가리킨다. 순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러주는 대로 걸음을 옮긴다. 노파는 이를 보고는 도리어 혀를 찬다. "쯧,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대산으로 가는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 혹은 궁극에 이르는 길을 상징 혹은 은유하고 있다. 여기서 길이 갖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떠올려야 한다. 길(路)은 곧 길(道)이다. 노파는 길(路)을 묻는 순례자에게 길(道)을 일깨우고 있다. 바보처럼 내 손가락을 따라가지 말고 네 속의 영원의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라는 주문이다.

순례자들이 길목의 어느 노파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조주가 들었다. 조주는 노파의 실력을 알아보겠다면서 길을 나섰다. "대산으로 가는 길이 어느쪽입니까." 이 물음에 노파는 예의 손가락으로 한 길을 가리켰다. 조주는 그쪽으로 걸음을 떼놓았고, 이 광경에 노파는 또 혀를 끌끌 찼다. "멀쩡하게 생겨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노파에게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조주는 오히려 득의만만했다. "내가 그 노파를 혼내주고 왔다"는 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밥 속에 모래가 있고, 진흙 가운데 가시가 있다!

혜개는 이 게임을 이렇게 평가한다.

"노파는 전술을 구사하는데는 능했으나, 첩자가 소리없이 장막 속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지 못했다." 역시 노파는 백년을 무르익은 고불(古佛)인 조주의 상대가 아니다. 그렇지만 조주도 정공법이 아닌 위계를 써서 노파의 진영을 뺏고 요새를 허물었으니 이무래도 '대인의 풍모'라고는 할 수 없다. 혜개는 둘 다에게 허물이 있다고 총평했다.

여기까지는 주변일 뿐이다. 화두는 크로스워드 퍼즐이나 심심풀이 게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금 명심해야 한다. 세상의 물음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이 이것이다. 묻노니, 조주가 노파의 실력을 알아본 자리가 대체 어디인가. 혜개는 여기가 화두의 눈이라고 짚어준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냥 처음의 그 물음이 좋다. "대체 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가슴속 영원의 길을 찾아가라"

조주가 노파를 알아본 자리 어디인가

解坐籌 帷幄, 要且着賊不知. 趙州老人善用偷營劫塞之機, 又且無大人相. 檢點將來, 二俱有過. 且道那裏是趙州勘破婆子處. 頌曰, 問既一般, 答亦相似. 飯裏有砂, 泥中有刺.

대산은 오대산(五臺山)을 가리킨다. 중국 산서성 동부에 있는 불교의 성지이다. 다섯 개의 봉우리가 마치 누대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5세기 말 북위시대부터 문수보살(文殊菩薩)이 거하는 화엄도량(華嚴道場)으로 조성되고 발전되어 한때 150개의 가람을 자랑했다. 청량국사(淸凉國師) 징관(澄觀)이 여기서 〈화엄경소〉를 지었고, 불공삼장(不空三藏)이 금각사를 지어 문수신앙을 넓히기도 했다. 그래서 이 산을 일명 청량산(淸凉山)이라고도 한다. 청대 이후에는 몽고와 티벳을 회유하기 위해 라마교를 여기다 성행시키기도 했다.

우선 유의할 것이 있다. 얼핏 조주와 노파 사이의 결전이 있었던 곳이 '오대산 바로 아래에서'였던 듯한 인상을 받는다. 특히 〈선림유취·禪林類聚〉가 그렇다. 그러나 조주가 살던 관음원(觀音院)은 하북의 조주부에 있고, 오대산은 산서성 동부이니 멀어도 한참 먼 거리이다. '어디 한번 알아보자'고 소풍 나가듯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다. 사전은 '오대산 아래에서'가 아니라 '오대산으로 가는

베푸는 사랑 정명의 첫 조건

잭·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5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하고 강제적인 도덕이 사라진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정명)은 종교계와 지성계에서 자주 이야기될 만큼 공통의 관심사이다.

정명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올바른 법을 가르치는 팔정도 수행의 한 단계이다. 따라서 정명은 스스로 자각하고 마음을 챙기며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이다. 또 수행자가 부처님의 도리를 깨칠 수 있는 반석이 되고, 경계의 현실적

정명①

표현이다.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정물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거짓말하고 훔치는 일을 계속 한다면, 그는 결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또 그는 오랫동안 지속했던 수행 경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집착과 망상과 같은 삿된 감정에 싸여 있을 것이다.

정명은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다. 바른 마음에서 깨끗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른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처님의 전통적인 가르침에도 있고, 질서·동시대의 사회적 약속도 있다.

미국에서 범종교계 지도자들의 세미나가 개최된 적이 있다. 세미나에는 세실 윌리암 목사가 참석했다. 샌프란시스코 그라이드 메모리얼 교회의 흑인 목사인 그는 척박한 교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둔 목회자로 유명하다. 이 자리에서 세실목사는 "우리가 종교로부터 배워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유·무생물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팔정도의 정명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른 생활이 담고 있는 한 가지 방편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정명의 첫번째 요건은 '사랑'이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봉사
현대를 사는 올바른 길
적절한 직업 행복의 요건

어느 찌는 듯이 더운 오후, 아잔차 스님은 재가 신도 집에서 설법과 축복을 베풀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염불 염송 의식을 간단히 치른 스님은 야자잎에 물을 적셔 집안과 법문을 들으러온 신도들에게 뿌려주면서 법문을 했다. 젊은 승려가 더위를 참을 수 없었다. "스님! 그늘에 앉아 법문할 것이지 이런 쓸데없는 의식을 치르시느라 햇볕에서 애를 쓰십니까?" 아잔차 스님은 "날씨가 너무나 더운 탓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시원한 샤워를 원하니 어쩌겠는가"라고 속삭였다. 스님다운 사랑을 편 것이다.

이 일화에서 아잔차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정명은 우리만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기 보다는 타인의 생활 속에서 깨닫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정명의 두번째 요건이다.

우리의 문화권에서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묻지만 인도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들 대부분은 "어떤 신을 믿고 있어요"라고 질문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교'를 맺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만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를 통시적으로 지켜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장과 자각이 있다.

정명을 위해선 적절한 직업도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어느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냐 보다는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직업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편도 될 수 있다. 일터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의 생활은 윤택해지고 타인에게 봉사한다는 뿌듯함도 얻을 수 있다. 즉 행복의 의미에는 '소비'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종과 탐닉에 근거한 소비는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안겨줄 수 없다. 그것들이 심해지면 당연히 빚을 지게되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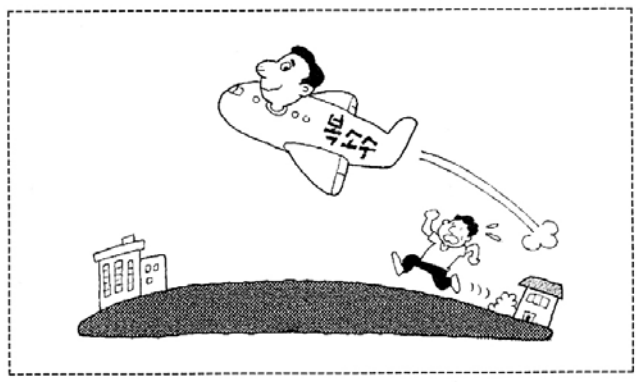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4

불교와 수학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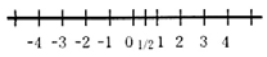
복소수와 마음

김 용 운



"3차방정식 푸는데 복소수 사용하듯 물질세계 문제도 마음 수시로 개입"

한국의 실존주의 시인 이상은 '인생은 일차방정식이 아니다'고 절규한다. 1차방정식 $ax+b=0(a\neq0,\ a,\ b$는 실수)의 해는 항상 실수가 나온다. 실수를 물질로 생각할 때 위의 1차방정식은 물질적인 문제에 항상 물질적인 방법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2차방정식 $x^2=-1$의 해는 $x=\pm\sqrt{-1}=i$로 허수이며 해는 실수의 범위를 벗어난다. '인생은 1차방정식이 아니다'는 싯구는 인생은 물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며, 속된 말로는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사는 마음에 크게 의존하는 존재'인 것이다. '물질과 마음'은 '물신이원론' 세계이며 수학적으로는 실수와 허수로된 복소수의 체계이다.



수학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는 실수만 취급하고 있었으나 발전하면서는 도저히 허수를 수의 세계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수학이 성립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유치한 인간이 미숙한 단계에서 물질(돈)만이 인생의 전부로 믿고 지내다가 마음의 세계를 개입시키지 않고는 진정한 인생이 없다고 깨닫게 된 것과도 같다. 즉 16세기 이태리의 수학자 카르다노는 3차방정식을 푸는데 복소수가 매우 유용함을 알아차렸다. 복소수란 a, b가 실수일 때 $a+bi$라는 형식을 갖는 수이다.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3차방정식의 마지막 답이 실수일지라도 푸는 과정에서 일단 복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아낸 것이다.

고대에는 A와 B라는 두 도시 사이를 가는데 걸어가는 것만으로 가능했으나 중간에 넓은 바다가 있으면 오갈 수가 없다. 요즘에는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카르다노 이전의 수학자는 방정식만을 푸는데 실수만을 사용했었으나 카르다노는 복소수라는 비행기로 슬쩍 날아간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3차방정식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복소수라는 공중을 통과하여 실수의 해에 당도한 것이다. 위의 그림의 직선은 1차의 실직선인데 같은 직선상의 점에 당도하는데 2차원적인 세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 사실은 곧 물질세계의 문제에도 마음이 수시로 관여함을 의미한다. 중병을 앓던 사람이 마음을 안정시킴으로써 쾌유되었다는 실례가 많다. 병은 신체 내의 물질인 세포의 문제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세포의 화학적 작용을 자극하는 것이다. 복소수의 등장으로 비행기 발명에 맞먹을 정도의 중요한 발명이 수학계에 나타난 것이다. 카르다노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목적지에 당도하고 잠이 깨어보니 출발할 때나 다름없는 지상에 있다고 생각한 것과도 같은 경우라고 할까.

진정 방정식을 푸는데는 수의 세계가 2차원, 즉 평면이어야 된다고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19세기 초기에 활약한 독일의 대수학자 카오스였다. 그는 실수측과 허수측이라는 두 평면을 고안함으로써 모든 복소수를 나타낸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왜, 침묵했던가?

일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던져주면서도, 한마디 대응없이 수행에만 몰두한 것은 내 전생의 죄업과 금생의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석용산 스님의 마하무드라
Rev. Suk Yong San
진짜 나 가짜 나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에 이르기까지
구루들과 숨어 사는 성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의 고행길에 오른 석용산 스님의 구도록!

수행자가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면 족하다 하였건만,
왜 이렇게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밑바닥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 같이 가슴에 못을 치고 달아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석용산 지음 | 신국판 350면 | 값 8,000원

문학수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TEL: 790-5999(대) FAX: 790-6656

시방세계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오!
★★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02)732-1522
F. 02)737-0697

전돌재현 30여년 '후회없는 구도'



◇ 외벽 전체를 전돌로 만든 삼선포교원. 김씨는 삼선포교원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작품'으로 생각한다.



◇ 삼선포교원이 모델로 삼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30호).

산문밖의 선禪

와전연구가 김영림씨



◇ 법련사 외벽에 장식된 전돌에 새긴 연꽃과 법륜문양.

의심하고 부수고 무수한 시행착오 포기해야지 하는 순간 비법 터득

흙고르고 문양내고 구워낼때까지 6개월동안 수행자 심정으로 작업

삼선포교원 · 진천 보탑사 등에 전통미와 견고함 차곡차곡 쌓아



◇김영림씨. 그는 전통의 숨결과 혼을 불어넣은 생명력 있는 전돌만들기를 평생의 업으로 믿는다.

점토를 구워 만든 전통벽돌과 기와는 오랜 옛날부터 사찰이나 궁궐을 장엄하는데 쓰여왔다. 목조건축 형식을 기본으로하는 우리나라 건축물에 전통적인 건축용 재로써 화려하지도 야하지도 않고, 질박한 모습으로 은근한 멋을 풍기는 돌이 바로 전돌이다.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의 틈바구니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전통벽돌(벽돌)과 기와의 명인 김영림씨(한국토형미술연구소 대표, 60). 자칫 그 전통의 맥이 끊길 뻔한 우리의 전돌을 오늘에 살려 구도자의 자세로 30여년 한 길만을 걸어 온 이 시대의 장인이다.

광주의 요에서 순식물성 청자유약을 재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는 66년 경복궁에서 인부들이 담장을 보수한답시고 전돌로 된 담장에 페인트칠 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바로 그때 옆을 지나던 도편수 故 조원제 옹이 말했다. "전돌 한번 해보지 않겠나"고.

그 우연한 조 옹과의 만남이후 전돌을 재현해 내기위해 자료를 찾아 도서관을 온통 뒤지고, 좋은 흙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끊어진 맥잇기에 나섰던 것이다.

"수행의 길로 들어선 수행자들도 자신 속의 많은 의심을 만나고, 또 부수고 한다지요. 그때 제 모습이 꼭 그랬어요. 처음 전돌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전돌을 제손으로 만들고 부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다 싶어 빚어 놓으면 갈라지거나 깨지고, 잘구워 졌겠지 하고 불문을 열면 하얗게 되어 버리니 한해 동안 온 정성을 쏟아 부었지만 전통 전돌을 만들어 내기란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통두꺼비 가마를 지키던 어느날,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가마가 은통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포기해야지하며 무너진 가마를 덧없이 뒤적거리다가 너무나도 까맣게 변해버린 전돌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알 수 없었던 전돌 식히는 방법을 바로 한 순간 허부문 차가운 소나기 덕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저는 빗속에서 전돌과 함께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환희로움이란, 전돌은 제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화두였던 셈이죠."

그날 이후 30여년이 흐른 지금, 그는 전돌장이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독특한 송광사 물일법륜무늬를 넣어 만든 법련사 지붕. 내림새 기와의 문양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지금껏 수많은 문화재와 사찰이 그의 손길을 거쳤다. 옛 국립박물관 정문, 예술의 전당, 행주산성 복원공사, 청와대, 삼선포교원, 진천 보탑사, 법련사 등은 그가 직접 참여한 건축물이다.

그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게 말하면 장인일뿐. 전돌작업을 작품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은 작업이지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도 그가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바로 삼선포교원이다.

"삼선포교원은 건물자체가 전탑형식입니다. 분황사 전탑모양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자고 신영훈씨가 제안을 했고, 내가 직접 설계하고 전돌을 만들었어요. 설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탑디자인도 몰라서 탑을 해체복원했던 문헌과 도안을 얻어다가 내부구조는 카피하고, 외형을 설계했지요. 아무도 그 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감히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송광사 물일법륜마크가 들어간 법련사 장식기와와, 법련사 외벽을 두른 전돌도 그가 만든 것이다. 특히 법련사 내림새 기와의 문양은 우리나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법륜 무늬를 넣어 만들었는데 그 모양 만큼이나 제작하는데도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전돌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때때로 그 이상이 걸릴때도 있다. 가장 부드럽고 고운 점토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적당하게 반죽을 하고, 두드리고, 문양을 내고, 바람이 잘드는 그늘에서 일일이 손으로 뒤집어 가며 말리고, 전통 두꺼비 가마에 불을 지펴, 마지막 구워진 것을 식히기까지 단 한 순간도 몸과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생명의 본래 그 자리를 여의지 말라는 수많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는 항상 가슴에 새기며 단순한 흙반죽이 검은 듯 은빛을 발하는 암회색의 전돌이 되는 작업에 임하는 것이다. 한시도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흔들림없는 무심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전돌만이 천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다고 믿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제작과정 때문에 전돌은 대량생산이 힘들다. 요즘처럼 뭐든지 빨리 빨리를 화선으로 아는 이들에게 그래서 전돌은 달갑지 않다. 기한일을 지키지 못해서 배상금을 물어준 적도 수차례다. 하지만 대충 만들어진 전돌은 단 한 개도 밖으로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전돌 장인 김영림씨의 철학이다.

힘든 세월속에서도 어렵사리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는 요즘, 이땅에서 전돌장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새삼 실감한다.

일반 사업가들이나 당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다. 여주의 공장도 경매로 남의 손에 넘어갔다. 전돌과 기와를 만드는 일이 부도를 낼 만큼 큰 기업성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의 전돌과 기와를 가져간 사람이 부도를 내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다시 돌아와 그 지경에 이르렀다.

전돌을 배우던 이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금속공학을 전공한 그의 사위 이상배씨(38)만이 그의 곁에서 7년째 전돌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가마도 공장도 모두 잃었지만 아직도 그는 할 일이 많다. 국적불명일 뿐 아니라 장인 정신 없이 날림으로 지어지고 있는 이 땅의 건축에 전통미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불어넣는 일. 그 일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루종일 전돌생각만 합니다. 큰생 업은 단념 못하는가 봐요. 내가 어렵다는게 알려지니까 오히려 요즘 들어 주위에서 일을 줘야지 하고 마음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꼭! 다시 일어날겁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점토로 구운 벽돌…천년 지나도 무늬 선명

전통벽돌이란

점토로 구워낸 벽돌이 전돌이다.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전해지는 전돌에는 역사이래 여래상, 보살상, 신장상이 새겨져 왔으며, 절마다 전탑이 세워지면서 그 찬란한 문화가 번성해 왔다.

현전하고 있는 전탑으로는 안동신세동7층전탑(국보16호), 여주신륵사다층전탑(보물226호), 칠곡송림사5층탑(보물189호) 등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전탑의 형식을 모방해 석재를 깎아만든 모전탑이 널리 유행했는데 경주분황사석탑(국보30호), 제천장락리7층석탑(보물459호)등이 남아 있다.

우리의 전통벽돌은 천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선명한 무늬가 아름답다. 그래서 안압지에 깔린 신라인의 보상화 무늬벽돌은 전통문화에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준다.

특히 백제와 같은 곳은 와박사 제도가 있어 전돌과 기와 생산을 하는 와박사들은 최고의 예우를 받기도 했다. 전은 부처님을 모신곳, 왕이 계신 곳에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 제조기술은 조선말기까지 이어져 궁궐 건축에 쓰였으나 일제 감점기와 광복직후 혼란기에 끊어졌다. 김영림씨는 창덕궁 대조전을 지을 때 일했던 도편수 조원제 옹에게 전통벽돌과 기와를 만드는 비법을 듣고 정성을 다해 재현에 성공했다.

일본에서도 김씨의 전돌은 잘 알려져 있다. 도예가 심수관씨의 박물관 바닥과 약사사 삼장원의 회랑에도 깔려있고, 90년 오사카 꽃박람회때 조선의 화초담을 쌓아 금메달을 수상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전돌 만드는 일은 돈도 못버는 무지렁이나 하는 천한 것으로 치부돼 와 전돌 보존과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 성 수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전 화 : 0357)31-8736 호 출 : 012)321-6044 팩 스 : 0357)31-5549 핸드폰 : 011)284-5101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범지품(梵志品) ②

非族結髮 비족결발
名爲梵志 명위범지
誠行法行 성행법행
淸白則賢 청백즉현

머리를 한데 모아 묶었다 하여
그를 범지라 하지 않나니
진실한 행 법다운 행이
맑고 깨끗해야 곧 어진이 이다

飾髮無慧 식발무혜
草衣何施 초의하시
內不離者 내불리자
外捨何益 외사하익

머리를 꾸며도 지혜 없으면
초의 걸친들 베풀게 무엇이랴
마음이 집착을 여의지 못한 이
밖으로 버린들 무슨 이익 있으랴

被服弊惡 피복폐악
躬承法行 궁승법행
斷生死河 단생사하
能忍起度 능인기도
自覺出塹 자각출참
是謂梵志 시위범지

생사의 흐름을 끊고
능히 욕망을 참아내 제도하려고
스스로 깨우쳐 구덩이 벗어난 이
이를 범지라 한다

見罵見擊 견매견격
默受不怒 묵수불노
有忍辱力 유인욕력
是謂梵志 시위범지

꾸짖음을 듣고 얻어 맞더라도
묵묵히 받아들여 성내지 않아
그 욕됨을 참는 힘 있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若見侵欺 약견침기
但念守戒 단념수계
端身自調 단신자조
是謂梵志 시위범지

"마음이 집착을 여의지 못한 이 밖으로 버린들 무슨 이익 있으랴"

閑居思惟 한거사유
是謂梵志 시위범지

만약 남의 해침과 속임을 당해도
다만 계율을 지키며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 조섭하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헤지고 거친 옷을 입었어도
몸소 법다운 행을 받들고
마음 한가히 법을 생각하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心棄惡法 심기악법
如蛇脫皮 여사탈피
不爲欲汚 불위욕오
是謂梵志 시위범지

佛不敎彼 불불교피
讚已自稱 찬이자칭
如諦不妄 여체불망
乃爲梵志 내위범지

마음으로 나쁜 법 버리기를
뱀이 껍질 벗듯이 하여
욕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이
이를 범지라 한다

부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치시길
스스로 자기를 뽐내라 하지 않으셨나니
진리에 알맞아 망녕되지 않은 이
그를 범지라 한다

覺生爲苦 각생위고
從是滅意 종시멸의
能下重擔 능하중담
是謂梵志 시위범지

絶諸可欲 절제가욕
不婬其志 불음기지
委棄欲數 위기욕수
是謂梵志 시위범지

삶이란 곧 괴로움 임을 깨닫고
그에 따라 온갖 욕망 없애어
능히 무거운 짐 내려 놓는 이
이를 범지라 한다

모든 하고자 하는 것 끊어서
그 뜻에 빠지지 않고
탐욕을 모두 버린 이
이를 범지라 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좋은 생각 많이하고

이 두 스 님 〈청주 관음사 조실〉



- 1929년 강원도 김화 生
- 1951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 동화사 강원 대교과, 성균관대 졸업
- 1971년 갑사 주지
- 1978년 법주사 주지
- 1991년 인도 팔리대 철학박사
- 現 해동불교대학장
- 現 청주 관음사에 주석

해마다 해마다
앞산이 푸르는 봄을 보면서
입산한지 반세기
쑥대머리로 산길을 찾아 오던 길은 아득한 추상(追想)
문득 지워지는 산하여
인간이 삶에 버리지 못하는게 욕심이나 탐욕은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내 아직은 선선(禪仙)은 아니언만
입산은 잘했다는 생각에
발을 갈고 추수하며
한 해를 보내느니
안려(雁旅) 끝에 가을잎 떨어지고 눈덮인 날 이속(離俗)산방에서 잠을 지새우는 묘미에
삶의 뜻이 청간(淸間)하여라
밤이 낮인 듯 낮이 밤인 듯
창밖에 그윽한 일월이 흐르고.

내 나이 19살때 전에 인연있던 선생님의 추천으로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년고생을 많이 한 때문인지 피로한 증세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별다른 병은 없지만 내년 사관학교에 가려면 요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룡사 기슭에 있는 갑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산문에 들어서게 된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산사에서의 첫날 많은 생각으로 새벽을 맞은 나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예불을 지켜보다가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불 참석 횟수가 늘어나면서 마음의 수양이란 환경의 선택이나 베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임을 배우게 됐습니다. 수양이 깊어지면 잡념이 없어지고 잡념이 없어지면 환경이 어떠하든 무관하게 마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산사의 생활은 예불과 식사시간 외에는 간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지내던중 어느날 스님 한 분이 나를 부른다고 시자승이 찾아왔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방에 들어서자 "이 사람아, 내가 나를 모르면 인생은 허망한 것이야. 수백만명의 남을 이겨도 자기 자신 한명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지. 불교에서의 참선은 나를 이기고 참다운 나를 찾는 일인기라. 남을 이기는 공부를 할끼고, 자신을 이기는 공부를 할끼고"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불교의 참선이란 남을 알고 남을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와 싸우자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51년 금오스님을 만나 출가를 허락받았습니다.

넓은 이마와 우뚝 선 코, 넓게 벌어진 턱언저리, 금오스님의 인상은 장군과도 같았습니다. 산중 달마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겉모습은 마치 호랑이 같았는데 실은 자비심이 흘러 넘치는 분이셨지요. 스님은 중이 되겠다는 내 말에 "쌀 한 섬을 능히 짊어질 수 있겠느냐?" "밤을 능히 지샐 수 있겠느냐?"고 먼저 물었고, 나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금오스님을 모시고 직지사 천불선원, 용현사 금정토굴 등에서 정진을 시작했지요.

금오스님을 모시고 천불선원에서 용맹정진했을 때 일입니다. 용맹정진이란 10일 동안 잠자지 않고 계속 화두선에 몰입하는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동안 잠을 못자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졸다가 앉은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금오스님이 법당 뒤에서 나를 찾는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스님은 "이녀석아, 참선정진은 생사를 떼어 놓고 하는

"참선은 나를 바로 아는 길 수백만명의 남을 이겨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헛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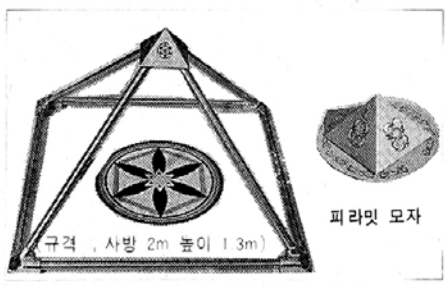
마음의 싸움인데 잘 것 다 자고 졸 것 다 졸면서 어떻게 용맹정진한다고 하겠느냐"며 몽둥이로 쾄습니다. 내가 졸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안거를 해제할 때 일입니다. 스님은 선방이 아닌 별채에서 경전을 읽자며 나를 불렀습니다. 처음 대하는 경전이었지만 받자마자 그 책을 줄줄 읽어내려갔더니 스님은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웠던 것이 도움이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금오스님은 "한문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불교 교리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이다. 하지만 문자에 팔려 참선을 등한시 한다면 아는 것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 알음알이 때문에 참선을 못할 것 같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절을 떠나거라"고 호령하셨습니다.

나는 문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쓴다는 것은 앎을 그럴싸한 모습으로 내어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인이면서 세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용서를 이 사회에 널리 펴기 위한 방편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말을 은사스님이 들으면 "모호한 말로 필선(筆禪)도 선이라고 치부하는구나"며 대갈일성이 떨어질 판입니다.

스님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대중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 한창 수행의 감로를 기꺼워할 때 좋은 인연을 만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법명은 기억나지 않지만 용현사 조실스님의 사자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생사가 없으니 생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세계는 일합상(一合相)인데 일합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합상이다 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인가? …… 불국정토가 아닌 곳이 어디 있으랴. 깨치지 못하면 극락도 사바가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법문이었지요. 해젯날 모든 납자들이 산문을 떠나갔고 조실스님도 떠나버린 용현사 뜨락에서 나는 육도만행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효봉선사는 입산 전에 엿장수로 만행을 했고 금오스님은 전주에서 걸인만행을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밋 히란야!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204454〉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원 NO.1822, 1823, 1824

- 피라밋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호스피스 전문인
양성교육 안내

I AMITA HOSPICE 교육에 관하여…

어디에서?
충북, 청주 대한불교 조계종 청주자원봉사센타 교육원

언제부터?
1998년 7월 2일 개강하여 7월 30일 종강식

준 비 물
소명함판사진 4장, 필기도구 꼭 지참

교 육 내 용
7월 2일부터 매주 수, 목, 오전 10시부터 교육

교 육 대 상 자
포교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스님, 법사님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반 불자님들.

※ 교육후, 대한불교 조계종 자원봉사 단원증과 수료증 발급!!

문의 연락처 ☎ 0431) 54-2258/54-1457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
청주·청원 불자연합 교육센타
원장 여 현 정 합장

금강경탑다라니
다 보 탑 다라니

◐ 탑다라니경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님들에게 최고의 법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싸이즈 185×55cm
재 질 고급한지
가 격 1장에 4,200원
수량판매 50매 기준, 4일내로 발송

주문 전화 ☎ 02)279-2715
FAX 02)275-3739
삼·보·기·업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 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통신도 가능)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큰스님 수행한담

실천하면 운명 바뀌죠"



◇지난 81년 인천 보현정사에서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있는 이두스님.

"불자가 되겠다는 서원 세웠으면 미련할 정도의 굳센 믿음으로 목숨 건 정진을 해야합니다"

"마음수양은 환경으로부터 독립이니 깨치지 못하면 극락도 사바 됩니다"

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만행이란 모든 생활의 보살체험 즉, 지표있는 방랑을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전라도에서 거지만행을 결행했습니다. 1년 남짓 거지행각에서 나는 망상과 번뇌의 소멸만이 업장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길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전생의 일을 알려면 금생에 받는 것이 이것이요, 내생의 일을 알려면 금생에 짓는 것이 이것이다"고 가르치셨지요. 일생을 살면서 선이건 악이건 마음에 둔다면 업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되겠지만 육체가 아닌 무형적 실체인 업심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생은 바로 그 업심을 바탕으로 생겨나며 금생에 형성된 업심이 내생에 숙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생의 숙명은 과거 전생에 있었던 업심의 결과인 셈입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때 금생에서든 내생에서든 운명은 바뀝니다.

〈반야심경〉은 "정신과 육체(오온)가 다 공한 것을 조견함으로써 일체 고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깨끗한 것도 아니요 더러운 것도 아니요 보태지지도 않고 덜어지지도 않는 공(空)이다.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망상과 번뇌가 따르고 당연히 업심은 깊어질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장성 갈재에 도착해서 1년간의 거지만행을 접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나는 이곳에 작은 흙집을 짓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동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소년들이 어디에서건 생활인이 되기 위해선 천자문과 주판, 부기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학습시켰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불심을 갖게 하기 위해 초발심자경문, 관세음경전 등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는 한문 지식이 많은 노인을 초청하여 한문을 가르치게 했으며, 참선방을 만들어 참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참선도 지도하였지요.

흙집을 지은지 6년, 교육의 성과는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능인교민원학당'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타지에서 학당을 찾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상심을 가르쳤고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안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착이 생기면 도심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갈재 학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아쉬움과 집착이 생기는 것을 알고 절실히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학당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광주의 한 유학자를 찾아가 학당 관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배추머리로 유명한 코메디언 김병조씨도 이 학당에서 한문을 배웠다는군요.

갈재를 떠나고선 줄곧 송광사와 갑사의 선방과 용현사 토굴을 오가며 정진에 매달렸습니다. 마음을 찾는 도라는 것은 알고보면 세속과는 반대방향에서 찾아지는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툰 것을 익숙하게 익히고 익혀져 있는 것을 서툴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중생은 다생겁래로 익혀온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과 타고난 성질입니다. 배우지 않고도 알고 있고 익히지 않아도 각각 달리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도둑놈도 후천적으로 익혀서 된다고 하지만 소질이 있어야 하고 소질이 있으므로 배우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잡다단한 업습을 쓰지 않고 곰삭고 서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일 것입니다.

참선을 시작하면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온갖 망상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냥 지내는 것만도 못하다고 할 정도로 잡념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두를 오래 오래 들다보면 잡념의 기세는 누그러지고 화두가 또렷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익힌 중생의 업심을 둔하게 만들고 공부를 익히며 익힌 것을 서툴게 하고 서툰 것을 익숙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관음사에 주리를 틀고 부터는 간혹 수행납자나 불자들이 찾아와 공부하는 법을 묻곤 합니다. 그때마다 '쌀 한 섬 능히 질 수 있느냐'는 은사스님의 질문이 생각납니다. 스님이 말한 '한 섬 무게'는 단지 '몇 킬로그램'의 물리적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시비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석천은 시비왕이 보시 지계 정진 지혜를 모두 갖춰 머지 않아 부처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로 했지요. 비스바카르만신은 비둘기로, 제석천은 매로 변해 뒤따라 갔습니다. 비둘기는 곧바로 왕의 겨드랑이 아래에 숨어서 살려달라고 했지요. 매가 시비왕에게 "나에게 비둘기를 주시오"하자 왕은 "내가 먼저 이것을 얻었다. 이것은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려는 결심을 일으킨때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는 원을 세운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매는 "그 일체 중생에 나는 속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배가 고픕니다. 비둘기무게 만큼의 살을 원할 뿐입니다"하자 왕은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하여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훨씬 무거워서 차례로 다른 쪽 넓적다리, 가슴과 목, 어깨의 살을 베어 다 올려놓아도 비둘기 무게 만큼은 못 미쳤습니다. 마침내 시비왕은 피투성이의 몸으로 저울에 오르자 무게가 똑같아졌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물론 비둘기 한마리의 생명을 내몸보다 더 아낀 전생 부처님의 보살도를 나타내지만 모든 중생은 그 생명의 귀중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많고 적음이 없이 똑같이 고귀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야깁니다. 도를 얻기 위해서는 조그만 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 그러한 투철하고도 절박한 결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웠으면 반드시 궁극으로 도달해야 할 깨달음을 목숨걸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겪었듯 그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굳센 믿음과 꾸준한 정진이 요구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념이 다 생기지만 망상이 오거나 말거나 계속 화두에 몰두해야 합니다. 마치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거세게 쳐도 노를 잡은 뱃사공이 유능하면 제 갈길을 결국은 갈 수 있듯 화두를 잡은 마음이 확고해야 자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매일 독경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염불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하루에 한번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마음이 저절로 순화되고 부처님 가르침이 체화되어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오증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나와 경전 〈58〉

유교경



법 혜
동국대 경주정각원장

부처님 최후가르침…내용엄숙·경건

"계율 스승삼아 부지런히 정근하라"

〈유교경〉은 부처님께서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실 무렵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불수반열반교계경〉〈불유교경〉〈불수열반약계경〉〈불임열반약계경〉 등 여러가지 명칭이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한역본은 구마라집(344~413) 삼장의 번역본이며, 〈고려대장경〉(K 13~1180) 〈대정신수대장경〉(T 12~1110) 등에 있다.

한역은 어휘 구사나 문체에 있어서 매우 유려하며, 또한 부처님의 임종이라는 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하여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간결하게 설하고 있다. 때문에 예로부터 널리 보급되었으며 주석서나 강론의 종류도 매우 많다. 특히 선종에서는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하나로서 중시되고 있다. 〈유교경〉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5세에 진리를 깨치시고 최초의 설법을 녹야원에서 고집멸도의 4성제를 설하여 아야다와 교진여 등 5비구를 교화하였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후 최후의 설법에서 수발타라를 구제하여 중생제도의 사명을 마치게 되는데 사라쌍수 사이에서 이제 곧 입멸할 것임을 먼저 말한다.

그다음 여러 제자들에게 입멸 후에는 바라제목차를 스승으로 삼아 계를 지키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오욕을 삼가하며, 적정(寂靜)을 구하도록 노력하고, 정(定)을 닦아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것을 설한다. 마지막으로 사성제의 가르침에 대해 의문스러운 바가 있으면 당장 질문하도록 세번 권하는데, 이에 대해 제자들은 침묵으로써 의문이 없음을 표시한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곧 자비심으로써 법신의 상주와 세간의 무상을 설하며, 슬퍼하지 말고 노력하여 빨리 해탈을 얻어 지혜의 광명으로써 무명의 암흑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마무리한다.

필자가 이 경전을 처음으로 읽게 된 것은 해인사 백련암에 살면서 큰 절인 해인사 강원에 다닐 때였다. 도반들의 책상 위에 있는 이 경을 읽고 그 내용이 너무나 엄숙하고 경건하여 정말로 부처님의 유언을 듣는 것 같았다. 이제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 경전을 대하게 되면 항상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바로 고치게 된다. 이러한 외경심은 순수했던 초발심 시절에 받았던 영향만은 아닌 것이다. 소위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유지를 받들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참회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출가제자나 재가제자를 막론하고 이 경전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자주 독송하여 부처님의 유교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 교단의 현실은 매우 엄려스럽다.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때면 언제나 이 〈유교경〉을 읽는다. 그리고 종단의 앞날을 생각해 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내가 열반한 뒤에는 누구나 계율을 잘 지켜라. 계율을 잘 지키면 그것은 마치 어두운 데서 불빛을 만난 듯 하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듯 하리니 계율은 너희들의 큰 스승인 줄 알라. 설사 내가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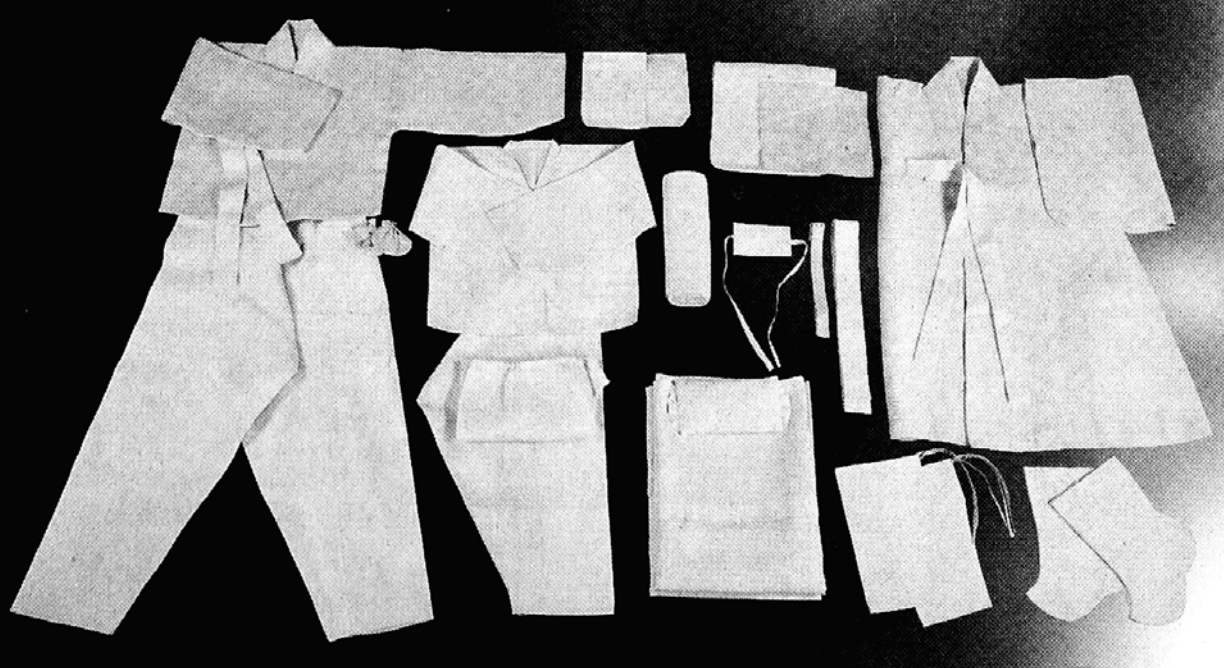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나의 모든 제자들이 서로 탁마하면서 수행하면 여래의 법신이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으리니 인간 무상을 철저히 느껴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는 이치를 슬프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는 본래 영원한 것이 없나니 부지런히 정근하여 해탈의 길을 찾아 지혜로써 모든 어두움을 없애야 하느니라.

내가 지금 열반에 드는 것은 나쁜 병을 제거함과 같느니라. 이 몸은 마땅히 버려야 할 죄악의 물건이요, 허망한 물건이니 생로병사의 큰 바다에 빠져서는 안되느니라. 어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몸을 버리는 것이 원수를 죽이는 것처럼 기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이것으로 그치고 더 말하지 말라. 시간이 다가오면 나는 열반에 들고자 한다. 이것이 곧 내가 최후에 남길 말이 되리라."

" 장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수의는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온다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생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tn이 효심깊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실직자 가족돕기

성각스님 선서화전

■ 23일까지 운현궁 미술관 ■



◇망운진여일색(望雲眞如一色).

구도정신이 피워낸 청정한 예술세계

'무법(無法)을 법문(法門)으로 하고 무문(無門)을 법문(法門)'으로 하는 선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선문화는 공(空)과 무(無)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선문화란 지식적 이론이나 관념적인 접근, 명예욕, 성취욕으로 하는 예술이 아니라 꾸밈이 없이 일체의 형식을 초탈한 무심 무작의 경지에서 직관의 지혜가 작용하여 시각화하고 조형화된 예술이다.

선문화를 대표하는 선서화의 특징은 무심, 탈속, 고요함(寂靜), 파격 등이며 일체의 사량분별이 떨어진 본래심의 세계를 무심필(無心筆)로 표현했기에 작가의 정신과 사상이 혼연일체가 되어 녹아있다. 이러한 적정과 무사의 경지에서 전개된 선서화는 보는 이들조차도 간결한 아름다움과 심오한 진리, 그리고 청정탈속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선가에서는 자성진심을 밝히는 구도의 방편으로 '선사들이 깨달은 심오한 도의 경계를 게송이나 글씨, 그림으로 담아내는 일이 있다. 수행자 본래의 순수한 성품 추구를 위한 구도의 자세로 투철한 선수행을 동반한 가운데 무념무욕의 상태에서 나온 선서화는 선사들의 깊은 선기(禪機)가 담겨있기에 그림속에 구현된 선의 정신이 그 어떤 법문이나 선구(禪句)보다 교화를 직접적으로 또 널리 펼 수 있는 방편도 되고 있다.

성각스님의 선서화 역시 수행과 교화의 방편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연꽃이다. 스님은 남해 망운산 망운암에서 고독한 구도자로서 처절한 수행을 하는중에 늘상 대하는 수행의 도반들인 산 물 나무 해 달 새 등을 소재로 '하여 꾸밈없고 순수한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성각스님은 자연이야말로 현대사회의 삭막해져가는 인간사회를 따스하고 깨끗한 본래심으로 돌아가도록 해준다고 믿고 있어 자연을 즐겨 그림의 소재로 삼고 있다.

산·물·해·달 등 꾸밈없고 순수한 소재

스쳐가는 마음 독특하게 형상화

무념무욕 무심필에 보는 이도 탈속

이번 전시회에서도 선종의 초조 달마와 자비의 대성모 관세음보살을 그린 관음도, 천년 침묵을 간직한 채 깊은 법계를 상징하는 산, 산과 해, 산과 계곡, 산과 나무 그리고 바위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 천진동자들과 복(福)의 상징 돼지가 정답게 어울리는 그림 등 50여점의 그림과 글씨를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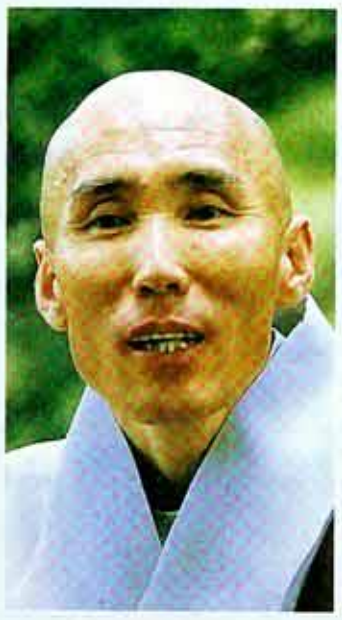
굵은 붓으로 쓴 '山'은 산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운필이 시원스럽고 글씨를 조형화시켜 간단한 그림을 함께 조화시킨 이색 선화도 보여주고 있다. 또 선화의 대표격인 달마의 표정이 파격적이다. 두 눈을 부릅 뜬 달마, 과안대소하는 달마, 눈을 치뜨고 있는 달마, 면벽하고 있는 달마 등 각기 다른 달마가 이심전심으로 네 본성을 찾으라고 일갈한다.

성각스님은 문득 스쳐가는 마음을 포착해 형상화한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서화에 관심을 갖고 감상한다면 저절로 마음을 닦는 일에 동참이 될것이라고 말한다.

홍은식교수(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장)는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작품세계는 그 표현법이 작재적(直截的)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직접적 탐색법으로서 강이면 강, 물이면 물이라는 직접적이고 수식과 장식을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성각스님은 전통 선화의 기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닦은 수행의 경지를 독특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더욱 파격적이고 개성적인 표현법을 쓰고 있다"면서 스님의 이번 전시회가 경제난으로 침체돼 있는 불교미술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성각스님 인터뷰



"실의에 빠진 사람들 희망 가졌으면…"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이 둘이 아닙니다. 요즘 경제난으로 인해 실직 가정이 늘어나고 날로 사회분위기가 환폐해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은 그들만의 잘못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이라고 생각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전체의 화두가 되어 있는 실직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운현궁미술관에서 '실업자가족돕기 성각스님 선서화 특별초대전'을 갖고 있는 성각스님(남해 망운암 주지))은 이미 부산에서 세차례나 불우 청소년 가장돕기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열어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청소년들에게 새 희망을 준 바 있다.

서울방송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도 실직가정돕기 기금마련 뿐 아니라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선서화들을 관람함으로 해서 우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되고 사회의 침체된분위기도 다소나마 일소시켰으면 한다는 마음도 내 비친다.

학창시절부터 미술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고 출가전에는 만화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다는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남해 망운암에서 덕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한국현대미술협회 이사 겸 한중서화교류촉진회 이사를 지내고 통일문화예술상, 한국미술대전 국제공모전 대상, 대한민국한양종합미술대전 대상 수상 등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스님은 중국예술인과의 교류도 활발히 가져 중국 연변박물관과 길림성 역사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으며 현재 중국서화함수대학 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문화학과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며 이제껏 하루라도 붓을 놓아본 일이 없을 정도로 화업(畵業)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오고 있다.

어떠한 주제로 무슨 그림을 그리더라도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한다는 성각스님은 오는 9월 부산에서 또 한차례의 실직자돕기 선서화초대전을 계획하고 있다.





◇심해대도(心海大道)



◇복돼지

◇美山으로 가는 길

◇진여법계(眞如法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망상도 자성 길러내는 원소요 과정"

과학이 영감 따르는 이유

문 어느 책에서 보니까 과학의 위대한 발견이란 대체로 영감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실험을 하다가 어떤 느낌이 생기고 거기서 우연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과학도 궁극에는 종교적인 차원과 만난다는 얘기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찍이 심성과학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생활이 그대로 禪이고 과학입니다
과학의 바탕은 일체 마음에서 나오니
'그 이전'을 간파해야 전체 볼 수 있어요"

답 생활이 그대로 선(禪)이고 생활이 그대로 과학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늘 변하고 부서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선이자 과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또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아는 것인데 말하자면 여기까지 되어야 100%를 간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쓰는 과학이라는 말의 뜻은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과학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만큼 과학이 발달해서 가능해졌다고 말들을 하겠지만 그 수소폭탄이 있기 이전이 있습니다.
또 천체망원경으로 우주의 구석구석을 보고 천체무선통신으로 다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보고 다 듣는게 아닙니다.
그런 물질차원으로는 전체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면 다라고 하더라도 과학의 바탕은 일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을 간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분야가 법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 꽃 한 송이 피는 것,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까지도 이심전심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물질에 국한한대서야 어떻게 그 도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일러주신 이 길의 진리는 평등공법이요 팔수레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는 것과 의정 내는 것 차이

문 방하착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보니까 내 속에서 이런 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체 생각을 바라다 보니까 육근육적이 내 집을 차지해서 휘젓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 자리에서 의정이 자생적으로 나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일체를 놓는 것과 의정을 내는 것이 가끔 혼동이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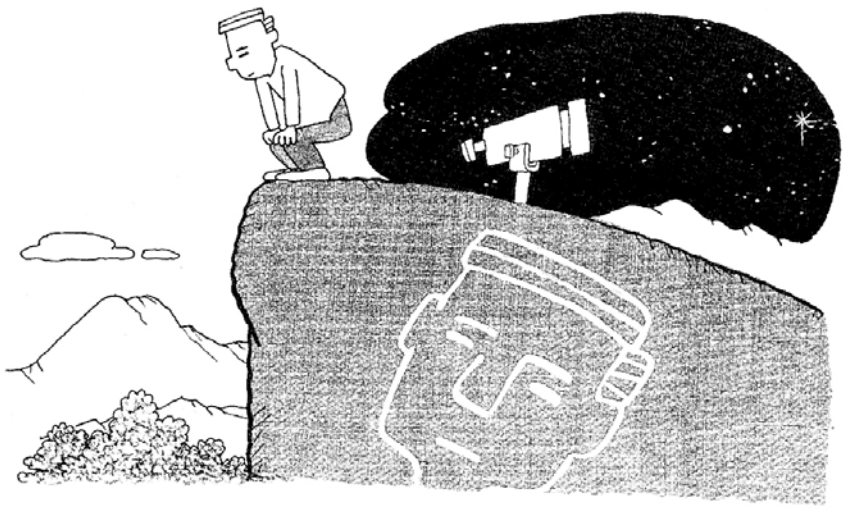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가 쳐놓은 거미줄 자기가 벗어나야
스스로 만든 고집에 걸려 넘어지니…

답 일체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지만 뒷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짊어지지 않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이지요.
본래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놓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 게 없습니다.
헌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마음으로 꿰어잡고 욕심을 두고 집착을 하고…, 모두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 봐라 해서 놓고 가라고 되풀이 되풀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항상 놓고 살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은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하고 되묻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목석으로 살라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흔히 망상이다, 망상에 끄달린다 하지만 망상이란 말하자면 그대로 자성을 길러내는 원소 자체다, 그 과정이다라고 말 할 수 있지요. 생각 생각이 나지 않으면 목석이지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그 관념도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뭔가 하기 이전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끌어 온 주인이 모든 것을, 몸을 시자로 끌고 다니면서 아프게 되면 제 시자를 제가 낫게 할 수 있고 화목하게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체만법을 다 그놈이 하는 일이니 그놈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놈으로 해서 모든 길로 이끌어진다는 걸 믿고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놓고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쉬는 그런 것이 진짜 놓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것.
내면에서 그대로 들어 고 내는 것을 보세요. 그걸 모르겠거든 들이쉬고 내쉬는 들숨 날숨 있지요. 그것이 없다면 죽습니다. 그런데 들이고 내고 숨 쉬는 것을 어떤 놈이 하고 있습니까?
생활하면서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지껏 수억겁 광년을 끌고 온 진화의 장본인, 지금도 끌고가는 장본인이 아니라면 그걸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 주인이 있다는 걸 증명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파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말씀드려 온 것입니다.
의정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여태 설명한 대로라야만 의정도 대의정이 나오지 일부러 지어서 의정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빈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예전 한 때에 내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산 길을 가다가 그야말로 한발자국도 떼어 놓을 수 없는 낭떠러지를 만났는데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발도 떼어 놓을 수 없는데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밖이라도 나갈 수 있는데 마음도리를 배우는 사람이 육신의 길만 찾아서 다닌다면 이건 서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겠구나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거미줄에 얽혀서 발목을 빼지 못하면 일어서지도 못하지요. 이런 게 실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랬는데 마음도리를 안다면 놓고 안 놓고도 없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들이고 내는 그놈이 한다는 그 한가지 믿음만이 남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무변 광대한지 나도 모르게 싱긋이 웃을 때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길을 가다가 무덤 둘이 있는데서 하룻 밤을 묵는데 한 순간에 부모가 자식한테 오면 자식과 하나가 되고 자식이 부모한테 가면 부모와 하나가 되느니라, 그게 무슨 연고인고? 하는 겁니다. 그만 거기에 딱 얼어 붙었는데 한 생각 떠오르니까 하늘보고 웃지 않을 수 없고 땅보고 울지 않을 수 없더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들 한걸음 한걸음 걸아가는 자체가 전부 업을 짓고 걸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냥 걸어가면 될 것을 내가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닐까, 걸리지 않고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모두들 그런단 말입니다.
그 생각에 그만 걸리는 겁니다. 업을 짓고 걷는 거지요.
다리 많은 지네가 서슴지 않고 걸어가건만 여러분은 두 다리로 걸어가면서 그것조차 걸릴까봐 바들바들 떠니까 걸립니다. 본래는 걸릴 게 없으나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에겐 거기서 잘못이 대두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 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나가는 것을 다스려 놓아야 한다, 그냥 무조건 다 여여하다 해서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을 할 때 남에게 이익되게 말하고 이익되게 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믿음에 대해서…

문 말씀하시는 대로 일체를 놓는 것, 다스려 나가는 것도 결국은 믿음에 귀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어떻게 믿기는 뭘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있는 거니까 믿어야지요.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 놈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 놈인데, 주인 놈이 과거에도 이끌었고 지금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허공을 믿겠어요 이름을 믿겠어요? 이 고기덩어리 형상을 믿겠소 무얼 믿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3)

내 마음 속에 인등 하나 훤히 밝히고 살자.

"지켜보라. 자기 발걸음을 지켜보라. 말하는 건 누가 하고, 듣는 건 누가 듣고, 보는 건 누가 보는지 지켜보라.
잘하든 못하든, 하든 안하든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볼 때 그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한군데로 나고드는 주처가 있는 듯이 느껴질 것이다. 한 치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라.
거기, 진정으로 울고 웃고 기뻐하고 괴로워할 것이 있는가를 보라.

마음의 인등을 밝혀라. 날마다 마음의 인등을 켜라. 선(禪)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면서 '나'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참선이다."

우리들의 생활은 대부분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부에 대한 목마름, 권력 · 명예 · 건강 등에 대한 목마름,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면 다 갖고 싶다는 소유의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탐 · 진 · 치로 산다.
눈 뜨고서만이 아니라 꿈 속에서조차 탐 · 진 · 치의 마음을 쓰며 산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그 속에 나, 나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삶을 거부하셨다. 탐 · 진 · 치야 말로 자신의 삶을 그르치는 독(毒)이라고 하셨다.

삼독(三毒)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삶은 어떤 경우라도 괴로움으로 귀착된다. 즐거운 듯 기쁜 듯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뒤 끝은 언제나 고(苦)로 돌아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버리라, 비우라 하셨다. 버리고 어찌 사느냐고 하겠지만 버리면 더 잘먹고 더 잘살게 된다. 삼독의 마음을 덜어내는 만큼 삶은 더 편하고 더 즐거워진다.
그러니 못 비울 까닭이 없다. 비울수록 삶은 고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 간다는 데 무엇이 두려우랴. 두 눈 부릅뜨고 마음에 불을 밝혀가며 비우고 버릴 일이다. 하루 하루 순간 순간 비우고 또 비울 일이다.

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며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버리기가 쉽다. 지금까지 삼독의 마음이 곧 나의 본성인 줄 알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으니 먼저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버릴 수 있다. 그걸 알면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는 의문도 사라진다.



먼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라.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라. 자기의 느낌, 생각, 감정, 지각활동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가 걷고 있는가, 누가 화를 내고 있는가, 누가 울고 웃는가…, 그것을 보라. 자기의 몸을 보고 자기의 느낌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보고 자기의 행동을 보고 자기의 의식을 보라.
누가 그것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무엇이 그것들을 생겨나게 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버리지 못한다.

내가 할 때는 안 보이던 일도 남이 하는 것을 바라볼 때는 더 잘 보인다.
내가 두는 장기보다 남이 두는 장기판에서 서너수가 더 보이게 된다.
나를 지켜볼 때 그와같이 하라. 나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아니 거울 속의 나를 보듯이 그렇게 보라. 그냥 비춰보고 지켜보기만 하라. 개입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바라만 보라. 마음 속에 등불 하나 밝히고 그 등불에 비춰보듯이 그냥 보기만 하라. 더도 덜도 말고 지켜보기만 하라. 그것이 바로 참선이다.

지켜보노라면 서서히, 조금씩 탐 · 진 · 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며 본질이 무엇인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나의 행동 나의 느낌 감정 생각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조금씩 알아채고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러면 놓치 말라해도 저절로 놓기 시작한다. 버려라 비워라 하지 않아도 절로 버리고 비우게 된다. 거기엔 애씀이 없다. 억지가 없다. 그냥이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
'여덟가지 바른 길'로 들어섬과 다르지 않다.
24시간 탐진치를 쓰며 살던 나의 삶이 마음에 인등 하나 밝히고 지켜봄으로써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잘먹고 잘사는 삶이 시작된다. '누가 삶을 고라 했던가' 하게 된다.

협찬 : 故한갑동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자기가 자기를 못믿으면 누굴 믿나"

☞ 15면에서 계속

소.

나부터 믿고 나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우주를 알고 세계를 알고, 내 나라도 생각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믿고 돈 꿔주고 보증 서주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온통 난리를 치느냐? 어떻게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냐?

아프다고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죽게 되었다고 대신 죽어줄 사람 없고,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자줄 수 없고 대신 똥 눠줄 수 없단 말입니다. 자식과 부모지간이라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못 믿어요? 어째서 못 믿는다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자성신이 없다면 그 지각, 직감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목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지요.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세계가 벌어졌는데, 내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고 무효인데 나를 어째서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주어도 그냥 물질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습에 얽혀서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고 줄줄이 착을 둡니다. 아주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다.

날짜를 받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간다고 고집, 삼재가 들었으니 뭘 하면 안된다는 고집, 팔자운명 때문에 어떻다는 고집, 업보가 있다는 고집, 유전이 있다는 고집, 온통 고집을 부리고 생활에다가 그걸 덧씌워서 거기에 걸려 넘어진단 말입니다.

이 고집을 다, 몽땅 한순간에 놓으십시오. 예전에 어느 스님이 날 보고 이러십디다. '눈을 뜨고 삼년만 푹 쉬어라' '자거라' 이 말씀이죠. 하하하….

눈을 뜨고 어떻게 삼년을 잡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에 갈광질광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무척 가난했습니다. 일제시대였죠. 그때 먹는 거라고는 우거지에다 건빵 같은 것을 넣고 푹푹 끓여서 한 그릇씩 먹고 허기를 때웠는데 다른 집들은 보리밥 해 먹는 걸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남들은 그렇게 해먹는데 우린 이런 걸 먹나' 투정을 부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집 쌀밥보다 우리 집 풀죽이 더 좋느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천부당만부당이였지요.

그런데 보세요. 못 났든 잘 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내 부모가 제일인 것처럼 나 자체가 제일인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있음으로써 나를 끌고 다닌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활을 쏘실 때 자기한테 진짜로 쏘십시오. 그러면 일천만가지가 다 녹아서 스러져 버리고 과거 업보성 윤회성 유전성 세균성, 이런 것들이 다, 몰록 그냥 녹아버립니다.

주인공을 영원한 친구로 믿으세요
"주인공에 놓아도 잘안돼요"하는 건 믿음 약하고 진실치 못해서지요

7각 8식 9해탈의 뜻

문 법문을 읽던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6근 6적이 작용해서 7각이고, 8식 9해탈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답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따져 말할 게 아니라 6근 6식 6적이 공했으니 그대로 7각이 되고 7해탈도 되고 7활공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법이지요. 이 선(禪)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무슨 6근이 어떻고 6적이 어떻고 하는 게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따지다보면 어느 세월에 내가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일체가 다 공했어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에 어느 것을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부처라고 했던 겁니다. 〈반야심경〉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따지고 맨날 그리 해보았자 헛수고예요. 그래가지고야 어느 때 맛을 볼 것이며 씨를 되심어서 되나오고 되먹일 수 있겠습니까?

노사나부처님 어느 분인지

문 경서를 읽다보면 석가모니부처님, 노사나부처님, 비로자나부처님이 나옵니다. 청정법신하고 석가모니불은 분명히 비교를 해서 알 수 있겠는데 노사나부처님은 모르겠습니다.

답 다 이름일 뿐입니다. 집에서 여보! 하면 남편 노릇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하고 얘야!하면 아들 노릇을 하지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게 다 한마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만명이 깨우쳤다 해도 한마음도리에선 부처는 하나다 이 소립니다.

그러기에 또 부처라고 이름하면 부처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얽매이지 마세요. 이름에 얽매이면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했다가 남편 노릇을 하고 사위 노릇하고 형님 노릇 아들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름에 매이지 말고 놓고 돌아가면 아주 다양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것저것 다 여여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미래 현재 하나인 까닭

문 과거는 없다, 미래도 없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보라는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을 테고 과거는 지금 이 배낭 속에다 다 짊어지고 나왔으니 없죠.

지금 이 배낭 속에 말입니다. 수십억 마리가 들어 있다고 해도 되지요. 그게 인연도리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따라 뭉친 '중생 덩어리', '고(苦) 덩어리'. 그것이 바로 지금의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한마음으로 동쳐서 그 자리에 다 되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퓨터에다 비유한다면 과거에 입력한 것이 인(因)이 되어 현실의 업보로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다 그놈이 하는 짓이구나!' 하고 믿고 놓는다면 앞서 입력한 것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겠지요. 새것을 입력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놈 짓이다' 하고 놓으면 그릇이 비워지고 새것이 담기고 그럴텐데 그렇게 해나가다보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알게되고 자기가 어떻게 양면으로 작용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만법을 듣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천식 · 백내장 앓고 있어요

문 오래 전부터 천식을 앓아서 이젠 지병이 되었습니다. 병원엘 가보아야 임시변통 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이들면서 눈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려니까 영 안보여야 수술을 하지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매번 비슷한 질문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헛탕 믿음이 아니라 '주인공! 너 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진짜로 믿는 것 말입니다.

주인공을 영원한 내 친구로 믿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요. 그 정도는 믿어야 정말이지 내가 죽으면 너도 무효가 되고 네가 없다면 나는 송장이 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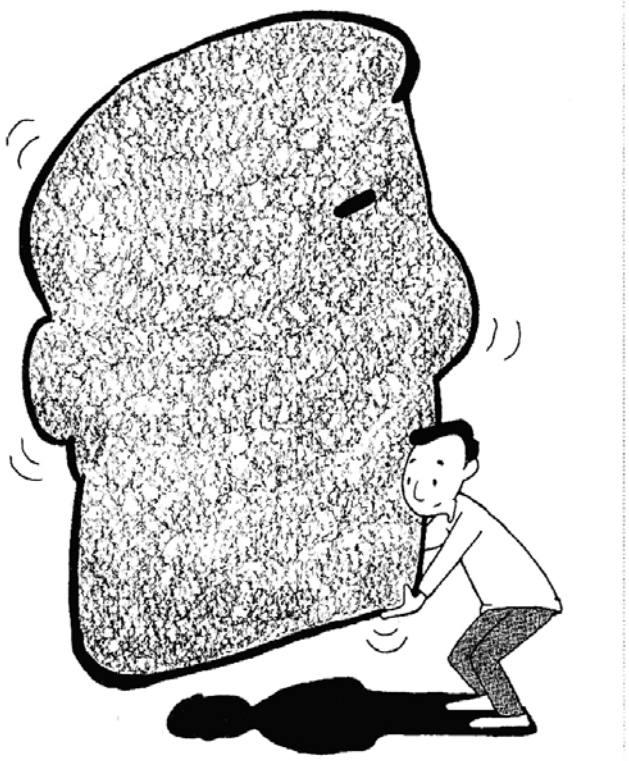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까짓 마음공부야 뭐'이러는데 그러다보면 자기가 그냥 그까짓 것이 되고 맙니다.

공부한다면서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영원한 내 자성을 찾기 위해서도 그래선 안됩니다.

한마디 더 하지요. 이 몸 속에, 꾸러미 속에는 말입니다. 과거에 살던 인연들이 다 뭉쳐 있는데 이 몸 속의 중생들은 나쁘고 좋은 걸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든 좋든 거기서 일어난 것 거기다 맡기고 그 도리를 믿고 일체를 뭉쳐서 '한마음 너 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할 때에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족끼리 충돌 잦습니다

문 스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 집안 사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서로 만나면 죽일듯이 충돌을 하니 이게 무슨 법인가 싶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해 보지만 한편으로 천도재를 지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요.

답 주인공 그 놈더러 해결하라고 하세요. 허허 네 놈이 과거로부터 날 이끌어 왔고 그 쪽도 과거로부터 그 쪽을 이끌고 왔으니 네 놈들끼리 해결하라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공만이 양면에서 다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세요. 그래야 인과니 응보니 하는 것도 녹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무조건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 드리지요.

어떤 삼형제가 있었는데 6·25 때 피난을 가면서 병든 아버지를 놓아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냥 죽게되자 마을 사람들이 담요에 둘둘 말아서 아무렇게나 뒷산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형제들이 걸핏하면 서로 싸우고, 싸움을 해도 마치 원수진 것처럼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길래 그랬습니다. '그래 아파 드러누운 사람을 저희들만 살겠다고 산 채로 놓아두고 달아나서는 그냥 죽게 만들었느냐? 그래놓고 이제 살만 한대도 담요에 둘둘 만채로 묻어 놓고 방치하느냐?' 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잘 모시든가 화장을 하라고 일러주었지요. 그렇게 하되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진심으로 맡기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라고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삼형제가 구순하고 집안도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조건붙이지 말고 믿고 놓으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때가 되면 사대를 다 흩어버리고 또 이끌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텐데 그걸 못믿어서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면 에너지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것입니다.

염불 · 기도 가르쳐 주셨으면

문 저는 나름대로 수행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버릇없는 말씀같지만 '에고'에 빠져서, 말하자면 똥 오줌을 제대로 못가리는 아이에게 똥 오줌을 가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헷갈리기도 할 뿐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기 쉬운 게 아닐까요? 예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근기와 그릇에 따라서 염불이나 기도 또는 지·관법을 가르쳐 조금씩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도 몇겁생을 거치며 수행을 했는데 우리같은 중생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침 바랍니다.

답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고 말입니다.

염불도 좋고 기도도 좋습니다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먹고 자고 숨 쉬는 거기서 '나'를 발견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렵고 쉽고는 어디 있으며 높고 낮고는 어디 있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여기까지 너를 이끌고 온 그 놈을 믿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가라는데 그게 어렵다면 어쩝니까?

염불이나 기도를 하라 하면 그건 쉽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염불이나 기도도 안으로 들이대는 것이지 바깥에 기대는 것은 아닙니다. 밖으로는 허구헌 날 빌어보았자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니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안으로 들이대라, 너를 이끌어 왔고 너를 이끌어 갈 한마음 주인공에다 들이대라고 할 밖에요.

밖으로 허구헌 날 빌어보았자 공덕이 없습니다 쉽든 어렵든 안으로 들이대야죠 내 근본 주인공믿고 모든 걸 거기서 해결하십시오

사람들은 이 몸뚱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다 너다 하고, 내가 했다 내 것이다 하는데 그 시자로서의 나가 아닌 한마음 주인공, 말하자면 내 근본인 뿌리를 믿고 모든 걸 거기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적에 이 육신의 나를 믿지 말고 너 자신에 의지하고 너 자신을 믿어라 하신 말씀은 바로 너 자신을 이끌어 온 참나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을 의지하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따로 형상을 만들어 밖에다 대고 빌겠습니까?

저 법당의 부처님 형상이 곧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자성불에 귀의하고 자성불을 믿어야 하겠지요.

감당하기 힘든 일 닥쳤어요

문 지면을 통해서 스님의 말씀을 접하며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요즈음 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 벌어져서 삶의 의욕마저 잃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찾아 뵙고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죽든 살든 '주인공 알아서 해!'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답 내가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될대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이 될만큼 지극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지극하게 진심으로 믿고 '주인공! 너만이 할수 있어"한다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통한다더라 하면 그건 또 아니지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주인공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믿음이어야 오는 길 가는 길을 아는 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럴까 저럴까가 붙지 않는 무조건이요.

지금 이 배낭속에 과거를 다 짊어졌으니…
급한불 껐다고 믿음 약해지면 또 되풀이

갈광질광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이 시자를 끌고 다니는건 너다, 네 종을 끌고 다니면서, 네 심부름꾼을 부리면서 이렇게 기침이 심하고 눈이 안보여서야 제대로 심부름인들 하겠는가? 그래서 쓰겠느냐?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어떠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도 잘 안되거든요' 이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그것도 믿음이 약해서 입니다. 마음이 진실치 못한거지요.

어떻게 해서 급한 불만 껐다 싶으면 그냥 해이해집니다. 해이해져서 바쁘게 먹고 살고 일하고 하는 것만 알지 또 흐지부지한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잘 안되네요 합니다. 그게 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다들 각자의 탓이겠지요.

급할 때는 '스님 어찌하오리까' 하다가도 좀 나아졌다 싶으면 해이해져서 마음공부는 또 잊어버리고 '아이구 이거 일을 해야지' 한단 말입니다.

아니, 일 다하고 죽는 사람 보았습니까?

죽으나 사나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데 가는 길을 알아야 오는 길도 알 수 있고 온 것을 알아야 눈으로 볼 줄 알고 귀로 들을 줄을 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믿고 좀 지긋이 인내하면서, 당당하고 패기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조금 괜찮다 싶으면 해이해지고 달아나서는 그냥 죽게 만들었느냐? 그래놓고 이제 살만 한대도 담요에 둘둘 만채로 묻어 놓고 방치하느냐?' 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잘 모시든가 화장을 하라고 일러주었지요. 그렇게 하되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진심으로 맡기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라고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삼형제가 구순하고 집안도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조건붙이지 말고 믿고 놓으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때가 되면 사대를 다 흩어버리고 또 이끌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텐데 그걸 못믿어서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면 에너지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것입니다.

염불 · 기도 가르쳐 주셨으면

문 저는 나름대로 수행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버릇없는 말씀같지만 '에고'에 빠져서, 말하자면 똥 오줌을 제대로 못가리는 아이에게 똥 오줌을 가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헷갈리기도 할 뿐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기 쉬운 게 아닐까요? 예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근기와 그릇에 따라서 염불이나 기도 또는 지·관법을 가르쳐 조금씩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도 몇겁생을 거치며 수행을 했는데 우리같은 중생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침 바랍니다.

답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고 말입니다.

염불도 좋고 기도도 좋습니다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먹고 자고 숨 쉬는 거기서 '나'를 발견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렵고 쉽고는 어디 있으며 높고 낮고는 어디 있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여기까지 너를 이끌고 온 그 놈을 믿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가라는데 그게 어렵다면 어쩝니까?

염불이나 기도를 하라 하면 그건 쉽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염불이나 기도도 안으로 들이대는 것이지 바깥에 기대는 것은 아닙니다. 밖으로는 허구헌 날 빌어보았자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니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안으로 들이대라, 너를 이끌어 왔고 너를 이끌어 갈 한마음 주인공에다 들이대라고 할 밖에요.

사람들은 이 몸뚱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다 너다 하고, 내가 했다 내 것이다 하는데 그 시자로서의 나가 아닌 한마음 주인공, 말하자면 내 근본인 뿌리를 믿고 모든 걸 거기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적에 이 육신의 나를 믿지 말고 너 자신에 의지하고 너 자신을 믿어라 하신 말씀은 바로 너 자신을 이끌어 온 참나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을 의지하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따로 형상을 만들어 밖에다 대고 빌겠습니까?

저 법당의 부처님 형상이 곧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자성불에 귀의하고 자성불을 믿어야 하겠지요.

감당하기 힘든 일 닥쳤어요

문 지면을 통해서 스님의 말씀을 접하며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요즈음 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 벌어져서 삶의 의욕마저 잃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찾아 뵙고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죽든 살든 '주인공 알아서 해!'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답 내가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될대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이 될만큼 지극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지극하게 진심으로 믿고 '주인공! 너만이 할수 있어"한다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통한다더라 하면 그건 또 아니지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주인공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믿음이어야 오는 길 가는 길을 아는 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럴까 저럴까가 붙지 않는 무조건이요.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5신 410쪽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개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제작용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여시아문의 의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팩스 : (02)737-0696

협찬 한마음

물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제3의학 · 심요법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밀교 · 기공 · 지압 · 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 · 고혈압 · 간경화 · 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如來院**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 한달분(60첩)

1팩으로 쑥향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IMF가격: ~~₩98,000~~ → ₩50,000

천호한방 담당 정 재 환
080-565-1005/015-7705-5457/016-341-4584

평생무료진료 천호가족이 되신 분은 천오인술한의원에서 평생 무료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천호인술한의원(전국 최대 의료보험오일기관)원장 한의학박사 한택환(前영지한방병원장)-

동충하초(冬蟲夏草)

※ KBS 뉴스방영

항암효과(85%-암억제율)
폐암, 유방암, 간암(85%-암억제율)
항종양, 고혈압, 간경화 환자의
보양등에 탁월

☎ 02)897-7772
(농장직영 - 서울 판매처)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만다라 개운법 (九 성기학 급소) 학인모집

■생활철학, 운명판단, 운세개운, 풍수, 방위, 실점
■발행 저서
- 「변하는 손금, 바뀌는 운명 · 가정수상술」
- 「백리길 여행으로 운명이 바뀐다」
- 「만다라 개운법」

※ IMF시대, 시대 흐름을 알고 대처하는 지혜
※ 일본 운명, 관상술 한국지회장, 일본 점술협회 정회원
직접지도 저자 배 성 현 · 김 식 이
서울사무소 02)872-3452
수원사무소 0331)258-1669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통신생도 모집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풍수지리 운세도 직접 전문 감정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학 장 석 일 관 합장
☎ 02)482-4550, 488-1569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교양과정:일용생활불교의식, 상용의식, 통과의례 〈매주 월 · 목 오후 3시〉
●기본과정: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매주 월 · 목 저녁 7시〉
●중급과정: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매주 화 · 금 저녁 5시〉
●어산작법: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원왕생과정: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원왕생 봉사회원 모집 ※각 과정 통신생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수 련 원 •

★동양사상을 공부하실 분★

■ 과 목 : 불교경전, 참선지도, 노장사상, 주역원문, 관상, 가상(家相), 풍수
■ 강 사 : 金 棠 瑚 居士
(전강, 탄허스님 門下에서 수학 · 월정사 주역강사)

★ I.M.F 이 어려운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 출장상담도 해드립니다.
02)914-6551
011)755-5333
달마선원 김 소 호 합장

사주 · 명리학 배우실 분

평생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진로선택 등을 자신있게 풀이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개강일 : 7월 1일부터 3개월
(주2회 오후 1:30부터 4:30까지 3시간씩)
※ 오전반도 있음
■ 수강료 : 교재대 포함 월 10만원
■ 장 소 :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02)713-4852~3

불교기초교리 단전수련

⊙ 지 도 : 신학장, 여관장
⊙ 일 시 : 매주 水 오후 7시
⊙ 장 소 : 신설동 76-35 원용빌딩 5층
(1호선 2번출구 東쪽 6m)
※ 첫달 무료, 수시 접수

선정불교대학 학장 신상철
02)925-1303

동양비전특강

혼자서는 백년을 공부해도 인연이 없으면 알기 어려웠던 신선(神仙)이나 선도인(仙道人)들이 알고 있던 간단하고도 알기쉽고 명확한 비급을 함께 연구할 회원을 약간명 모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의문점을 물어도 알고 묻지 않아도 알고 일년 당월 당일 당시의 용건도 알고 마음속까지도 알고 비전되어온 도액비방과 의술 단방도 알 수 있는 것이 동양비전입니다.
※ 상대앞에서 사주를 풀어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지도상담)

※ 동양비전연구학회 ※
02-597-6211, 017-332-1633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 東 禪 寺 ◆

전통예술과 고유무술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으로 대금, 태평소, 가야금, 바라춤, 전통무용, 사물놀이등과 선무도, 봉술, 전법, 호신술등을 지도하여 文, 武, 藝를 겸비한 全人敎育의 場을펼치고자 하오니 우리 문화와 예술에 관심 깊은 분의 많은 수련을 바랍니다.

☞ 일반 회원은 매주 화 · 목 · 토 수련가능
☞ 스님, 행자는 특별 개인지도하며 출장지도, 단체지도도 가능함
☞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도자 자격부여(타 무술 유단자도 희망함)

0523)82-5074, 388-0921(FAX 겸용)

• 불 교 용 품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하계수련대회 유치

삼도봉의 청정계곡에 위치한 **만계사**에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학생 및 불교신행단체의 소규모(50名이내) 하계 수련대회를 유치할 예정이므로 대회개최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일정을 잡아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만 계 사
0547)437-4135 ~ 6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불 교 미 술 •

탁자,달집,법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달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웅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달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달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달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회판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 貴 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성동석재불사공예사

■미륵불 · 지장불 · 석탑 · 석등
■석재 동물상 · 석재 · 조형물조각
■석재불사에 관한 모든 것
※천불 · 삼천불 · 만불 조성전문

T. 0357)31-8736
011)284-5101
012)321-6044
F. 0357)31-5549

• 구 인 구 직 •

공양주 보살님

선우도량 **백양사 운문암**에서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0685)92-7706

• 탈 종 공 고 •

탈 종 공 고

한국불교조계종 귀하

■사찰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8-1 **무악사**
■주 지 : 정 모 계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8. 6. 20.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청우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2) 427-5369	0347) 794-2818

• 기 타 •

무불스님 ● 달마보급



011-841-3591

• 사 찰 안 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주)광 진 불 사

◇ 포교원 급 양도

◇ 위 치 : 서울 강동구 시장 중심통
◇ 총 50평(법당 35평, 방 3개, 공양칸, 창고 및 샤워시설
◇ 가 액 : 보증금 포함 총 3천 5백만원 (월 50만원)
※ 18년 유지된 포교당으로 성업중이나 사정에 의하여 급 양도합니다.

02)488-1569

◆사찰을 찾습니다.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상 요양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노장스님(보살절)절의 예수재 및 천도재를 정상 운영하여 드리겠습니다.

02)943-9942

◆天 藏 地 秘 (음택 · 양택)

■ 사람의 無價寶는 解脫이요 땅의 無價寶는 天藏地秘이다.
■ 하늘은 땅을 돕고 땅은 사람을 돕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을 닮아가는 것이다.

農山 011-573-2700

◆ 사찰양도안내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전철역 부근
◇ 건 물 : 4층건물의 2층
◇ 건 평 : 약 30평
◇ 법 당 : 삼전불 · 지장단 · 신중단 · 영단(최고급 시설)
◇ 요사채 : 주방, 거실, 화장실 완비
◇ 보증금 : 2천만원, 월 60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2)202-1123
011)255-3999

◆ 포교원 양도

◇ 대단위 아파트 단지
◇ 염창동(강서구)
◇ 26평 아파트 상가 3층건물의 3층
◇ 전세 : 4,000만원
◇ 권리비, 시설비, 월세 없음.

02)663-2671
02)664-8389
※ 오전 11시 이후 전화요망!

◆ 사찰전세안내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 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채 : 주방 · 거실 ·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 포교당 안내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
◇ 실평수 : 45평형
◇ 방 4개, 법당 20평, 세면장
◇ 가 격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권리금 1,500만원)

02)807-9381
011)230-7511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목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335-6392
011)881-4863 012)1568-6392

금화 **공 인 중 개 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 사찰안내

◇ 위 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 대 지 : 437평
◇ 총건평 : 83평(방 11개) 법당(27평), 사무실(15평) 요사채 41평(방4), 주방, 화장실
◇ 가 액 : 4억 5천만원
◇ 특 징 : 발전요충지의 명당 (부동산사절-직접면담)

0331)32-4999
012)925-6118

◇ 대구시내 포교당

◇ 급히 양도함.
◇ 법 당 : 60평
◇ 시설완벽 방4 주방1
◇ 가 격 : 보증금 2,500만원
◆ 시설투자 7,000만원
◆ 양도가액 1,000만원 (불구용품점 700만원)

053)943-4179
016)586-3669

◇ 위치 :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 대지 : 200평
◇ 대웅전 : 요사방 2개, 산신각
◇ 매도가 : 7천 5백만원

0559)32-4807

사찰 분납 인수하실 분

◆위 치 : 예천
◆부 지 : 700평(등기평수)
◆법 당 : 20평
◆요 사 : 25평
◆가 액 : 8천만원
◆특 징 : 신축건물로 1억2천만원 투자를 했사오나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분납으로 드립니다.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외 사찰 건축법률, 세무도 무상상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주)동국불사
상담전화 : 080)512-4447
호출상담 : 012)1648-6334
※ 출장중이 많습니다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므로 스님 외 일반인, 무속인, 보살 및 대리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 2천만(절충가능)

02)936-4785

◆ 사찰 운영하실 분

◇ 위치 : 경희대 입구 회귀역서 2분거리
◇ 평수 : 4층 · 5층 약 70평
◇ 가격 : 4천만원, 월 85만원
◆ 특징 : 최고급 시설완비
◆ 교통편리한 곳임.

011)286-2680

◆ 사찰 양도받으실 분

◇ 위치 : 부천역서 5분거리 산속에 위치
◇ 부지 : 1천평
◇ 법당 25평, 요사채(小) 9평, 산신각
◇ 평수 : 2층건물 100평
◇ 가격 : 상담후 절충!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미륵불 · 석등 조성되어 있음.

011)281-3256

◆토굴, 절터 별장터(5천만원)

· 설악산 봉정은 봉황의 머리, 횡성의 봉복산은 봉황의 배, 봉황의 꼬리인 봉미산 두계곡 만나는 부처꼴, 정남향 일출일품, 전망일품, 청정지역, 암벽약수, 2층 황토토굴, 길 · 전기 · 전화 有
- 전 : 470평.
- 잠실에서 1시간 20분 소요.

0338)71-7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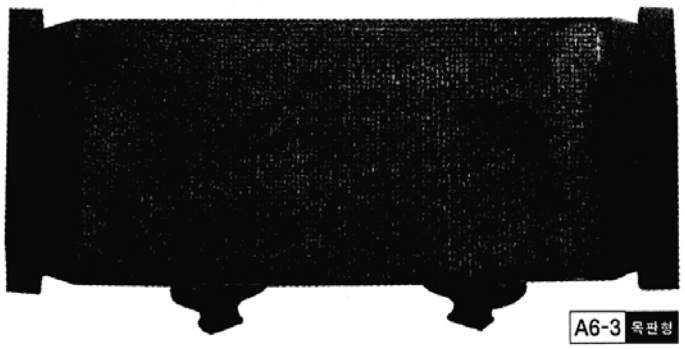
부다피아 쇼핑몰

buddhapia shopping mall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A6-3 목판형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사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하였습니다.



경판받침

재 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 격 : 1개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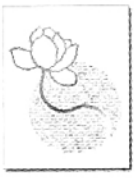


A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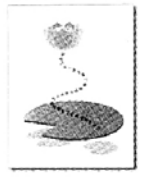
A5-2



A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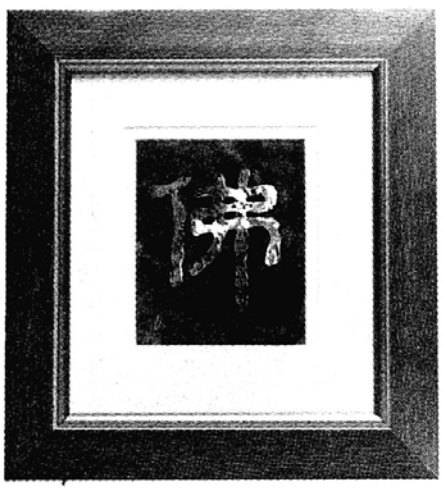
A5-4



불교디자인 티셔츠

천진한 동자의 맑은 세상 비쓸기 , 연꽃나팔 등 본지에서 제작한 동자 캐릭터 및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한 면 티셔츠. 여름 수련대회및 각종 행사용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사찰 이름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격 : 아동용 ₩ 5,500
성인용 ₩ 6,500 / 9도 칼라 인쇄



금속 수공예 액자 A8-1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츰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범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念)하며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 늘 마음에 새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 결혼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 선택사항 : 수공에 작품이므로 다량 주문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골동품형 A4-1



개금형 A4-2



브론즈코팅형 A4-3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 : 100% 청동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A10-2



A10-5



A10-6



A11-1



A11-2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기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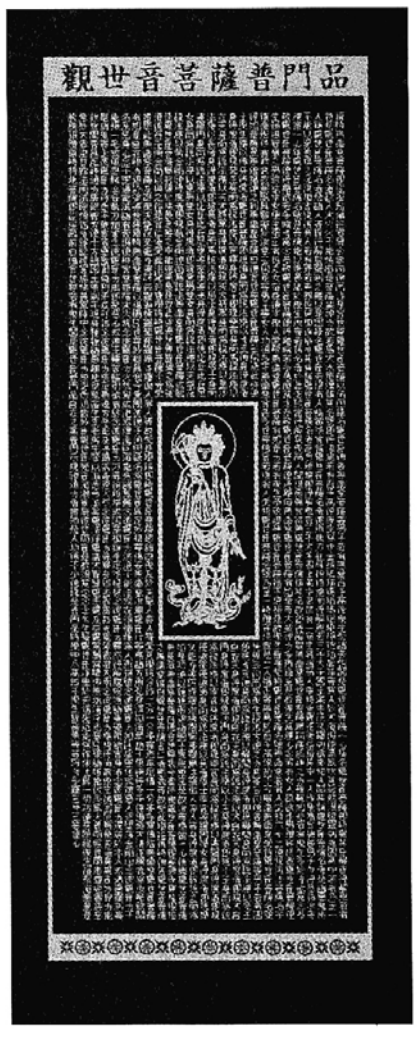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재 질 : 면

다포

가격 ₩ 800 / 기장 50㎝ 폭 39㎝
재질 :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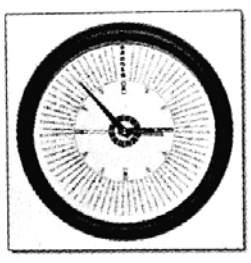
내부그림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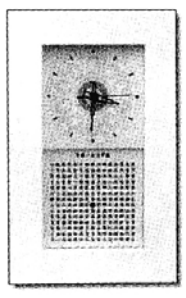
색상 :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기모지 / 특징 :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A3-3

사각링 벽걸이 시계

화엄경 약찬게 , 보왕삼매론 경전 문구 디자인 100개 이상 주문시 원하시는 경전 및 문구를 넣어 드립니다.
가격 : ₩ 13,000



A3-1

사각 그림 벽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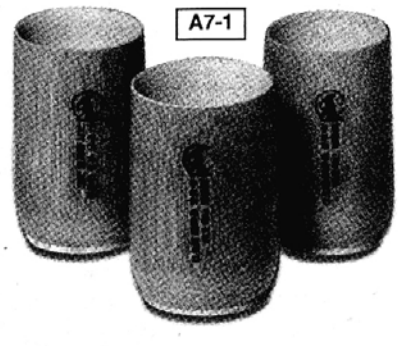
색상 : 청색, 흰색
크기 : 200(가로) 320(세로) 45(두께)㎜
특성 : 하단부분 화엄일승법계도 및 법성게 경전문구 디자인
가격 : ₩ 11,000



A3-2

원형탁상형 알람시계 (벽걸이겸용)

색상 : 군청, 노랑, 빨강
크기 : 160(가로) 160(세르) 45(두께)㎜
특성 : 심플한 모양의 다양한 칼라와 탑 모양의 반야심경 한글 및 한자 내부디자인
가격 : ₩ 10,000



A7-1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입니다. 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단 외줄 인쇄이며 10자 이내)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A9-1

단주 열쇠고리

A9-2

다양한 칼라 디자인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A10-2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 6.2 (세로)㎝ , 547쪽 / 가격 : ₩ 4,000

빨리온 장마…청결유지로 건강하게

온 집안이 습기로 눅눅해지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30도를 웃도는 기온과 습도가 60~70%에 육박하는 덥고 습한 기후는 병원균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기에 적당한 환경. 반대로 사람들은 불쾌지수가 높아져 평상시의 신체리듬을 잃기 쉽다. 장마철을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 장마철에 발병하기 쉬운 질병들과 대응법, 청결한 집안관리법 등을 소개한다.



주의해야 할 질병

▲장티푸스=환자의 70% 이상이 염된 물을 통해 감염된다. 장티스는 10~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이 40~41도까지 올라가면서 오,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한다. 사나 변비 증상을 보이기도 한.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보균자가 가능성이 높다. 예방백신보다는 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

▲이질=오염된 물·음식을 통해 병하며 전염성이 강하다. 증상은 한 복통, 고열, 구토, 식욕부진, 변시 통증, 혈변 등. 어린이환자 40%는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 합병증인 탈수로 인해 신부전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한다. 료법은 수분을 보충해주면서 적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

▲비브리오패혈증=40대이후 남에게 주로 발병한다. 1~2일 잠기를 거쳐 갑작스런 오한과 열, 육통 증세를 보인다. 구토, 설사, 부괴사 등도 나타나며 사망률은 ~50%정도. 술을 자주 마시거나 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어패류를 것으로 먹으면 위험하다.

▲급성위염=흔히 배앓이로 불리며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 우가 많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기는 장마철 설사의 가장 가벼운 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면 곧 절로 회복된다.

▲설사=기후가 고온다습해지면 음식과 물이 쉽게 변질되고 세균의 번식이 왕성해질 뿐 아니라 더위때문에 찬음식과 찬물을 많이 찾아 설사가 난다. 이럴 경우 항생제와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안정을 취한다. 설사가 계속되면 지사제를 사용한다. 배탈 설사와 함께 열이 올라가고 구토 혈변, 탈진,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집안팎 습기없애 병해충 번식 방지

설사 · 이질 오염된 물 · 음식주의 **주방** 냄새제거 · 바람 통하게

비브리오패혈증 어패류 끓여먹도록 **가스** 연결부위 누출 점검

▲세균성피부염=털이 있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모낭염이나 상처가 난 후에 2차적으로 감염되는 세균성 피부염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청결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처엔 반드시 소독약을 발라야 한다. 면도상처를 그냥 두면 봉와직염으로 발전하므로 초기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쾌적한 실내관리

▲부엌, 주방용품=싱크대 배수관에서 악취가 날 때는 식초를 섞은 물이나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흘려보낸다. 조리대, 찬장은 식초, 알코올을 섞어 닦은 뒤 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고 습기를 없앤다. 싱크대 아래 찬장에는 제습제를 넣어두거나 숯 또는 건조 커피가루를 넣어 냄새를 제거한다.

행주는 매일 삶고 칼, 도마는 2~3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특히 칼의 손잡이는 수세미로 잘 닦아 사용한다.

▲벌레 제거=바퀴벌레, 진드기, 모기등 벌레가 생기지 않게 지하실이나 통풍이 안되는 곳은 선풍기를 이용해 강제통풍을 시키도록 한다. 진드기 제거를 위해서는 흡입구가 작은 청소기로 천소파나 카페트의 먼지를 없애고 햇볕에 잘 말린다. 바퀴벌레 퇴치법으로는 수도관, 가스관 부근의 구멍에 세척제와 제습제를 뿌리고 갈라진 벽면 틈새는 찰흙이나 액상 실리콘으로 막는다.

▲냄새제거=음식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해서 버리는데 물이 잘 안 빠질 땐 신문지에 말아 수분을 흡수시킨다. 쓰레기통에 찻잎이나 커피찌꺼기를 뿌리거나 소독용 에탄올을 뿌리면 냄새가 없어진다.

드라이어로 신발 속의 습기를 말리고 건조제나 신문지를 넣어두는 것도 방충·방습·냄새제거에 효과적이다. 냄새가 심할 때 소독용 에탄올로 닦거나 구두 안에 커피가루를 넣어 둔다.

▲가구, 가전용품=습기에 민감한 가구는 벽에서 10㎝ 이상 떼어놓고 오디오 등은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거나 뒤에 습기제거제를 놓아둔다. 컴퓨터는 습기나 먼지 제거에 신경을 쓰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 30분 이상 전원을 켜두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번개로 모뎀과 연결된 전화선에 과전압이 흐를 수 있으므로 전원 코드는 빼두고 모뎀과 전화선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옷, 이불=옷장 안에 방습·방충제를 넣고 옷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보관한다. 이불은 햇볕에 말려 비닐 등으로 밀봉해 두도록 한다. 옷을 옷걸이에 걸어 보관할 때는 틈을 넉넉하게 한다. 옷이나 이불에 곰팡이가 나면 냉장고에 일주일정도 넣어 뒀다가 세탁한다.

▲전기, 가스=가스 연결부위가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은 교체한다. 지하실 등 밀폐된 공간에 LP가스통을 설치하면 위험하다. 가스시설이 물에 잠기면 LPG가스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분리. 높은 곳으로 옮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계량기 옆에 붙어있는 주밸브와 중간밸브를 잠그고 대피한다.

강지연기자 〈jygang@buddhapia.com〉

건강 365일 〈24〉 삽주뿌리(百出)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삽주뿌리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뿌리로 췌·위장이 허약할 때 쓰인다.

동의보감에 보면 췌·위장을 보하며 설사를 멎게 하고 몸 안의 수분을 조절하며 식은 땀을 멎게 한다고 나온다.

삽주뿌리는 백학이 심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청아한 백학 한 마리가 중국의 천목산 남쪽 기슭 양지바른 명당자리에 약초를 심어 밤낮으로 돌보며 지켰다고 한다.

음력 9월9일 오래된 백출은 아름다운 낭자로 변하여 국화무늬와 주사(朱砂)점으로 수놓은 하얀 치마를 입고 구름을 타고 어느 약방에 가서 백출을 팔려고 하였다. 절세미인을 본 의원은 낭자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낭자는 성은 백씨고 학산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낭자는 백출의 용도를 알려주고는 사라졌다. 과연 백출의 효과는 대단했다. 그 후 약이 더 필요했던 의원은 학산에 가서 그 백씨 성을 가진 낭자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약을 구할지 곰곰히 생각하던 의원은 9월9일을 기다려 보기로 하였다. 9월9일이 되니 그 낭자가 약초를 가지고 왔다. 흥정을 하는 사이 의원 부인은 낭자의 치마자락에 묶은 실을 달아 놓았다. 낭자가 떠나자 의원은 사람을 데리고 그 낭자를 쫓아갔는데 어느 순간엔가 백의 낭자가 사라져버렸다. 낭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묶은 실을 따라가 보았더니 그 실이 약초에 매달려 있지 않은가. 약초를 캐어보니 향내가 진동을 하는데 천년은 묵었을까? 갑자기 약초에서 빛이 나와 그 의원은 눈이 멀었고, 약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몸안 수분조절 · 위장 허약증에 효과 빈혈 · 의욕상실엔 인삼과 함께 복용

소음인은 췌장이나 위장이 약한 것이 흠이다. 증상은 어지러움증, 구역질, 심장 두근거림 등이다. 밥맛이 없고 속이 불편하고 설사, 식곤증이 온다. 몸이 무겁고 배가 그득하며 영양흡수가 되지 않아 빈혈이 오면서 나중에는 무릎관절염도 생긴다. 정신적으로도 의욕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 인삼과 함께 먹으면 성약이 된다.

복용법 1회 삽주뿌리 8g, 인삼 4g을 달여 하루 두번 복용하는데 이때 함박꽃뿌리 8g을 첨가하면 더 좋다.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청소년 탈선 부채질 우려"

청교련 유해환경감시단 공청회서 제기

'학생을 규제할 방법이 전무하고 폭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 점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 규제의 폐지는 청소년들의 밤거 방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장이 나왔다.

새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부 선일스님)이 16일 개최한 '식품 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에 한 공청회에서 반대측 토론자로 한 정천수지회장(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모임 인천지회)은 이같이 주장했다.

찬성측 토론자 김영찬지부장(단란주점협회)은 "영업규제의 완전폐지, 일반규제의 강력시행과 청소년 출입시 업주들에게 엄격한 통제나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청소년 선도"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찬성 반대 모두 영업시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제한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시민의식,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원진소장(인천발전연구소)은 "일반적인 규제완화나 철폐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유흥업소가 주택가, 학교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한 청소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 △시설·업소의 엄격한 통제 △주류·담배 판매 금지 △기성사회 기풍의 쇄신 등을 제시했다.

박창화교수(인천전문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선일스님, 김영수과장(인천YMCA 사회개발부), 정명숙위원장(건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김평구지부장(영상음반 대여업협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단 신

파라미타 이사8명 충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법정이사 영담스님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정이사 8명 충원, 임기만료 이사에 대한 신규이사영입 등을 하기로 결의했다.〈사진〉

청교련 '효실천의 날' 행사

청소년자원봉사연합회(회장 현성스님)은 '98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하는 효실천의 날'봉사를 28일 경기도 시흥 혜명양로원에서 가진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1백여명이 동참하는 이날 자원봉사는 의복·침구세탁하기, 숙소 청소하기, 풀뽑기, 목욕·안마해드리기, 식단준비, 취사돕기, 대화나누기, 다과회, 사물놀이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 24개 교구본사 주지를 당연직 지부장으로 하자는 안건이 제안돼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는 8월20일 오후3시, 총회는 20일 오후5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알 림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교사 모집

남녀 25명…27일 접수마감

현대불교신문은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를 이끌어갈 역량있는 교사를 모집합니다.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분들은 27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본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가능〉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교사는 별도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집인원: 남·여 25명
◇지원자격: 불자 대학생 및 어린이 법회 선생님
◇특전: 당사 규정 보시금 지급.
본사 어린이 관련 행사 지도교사 활동.
(02)732-1523

현대불교신문사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인 신선(仙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이제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미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불자 세상보기

장한며느리 김묘희씨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암 투병 시아버지와 병환중인 시숙부 시숙모를 10여년 동안 극진히 간호했는가 하면 주위의 소년소녀 가장들을 10년동안 자기 아들처럼 돌보아온 40대 효행주부가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김묘희씨(44). 김씨는 지난 10일 시가 후원하고 신생윤리연구소(소장 김채곤)가 주최한 제34회 효행대회에서 '장한 며느리'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전교생에 '천원통장' 선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전교생에게 1천원이 들어있는 예금통장을 나눠줘 '제자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전 변동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 정한규교사(52)는 박봉 속에서도 사재 1백30여만원을 털어 지난달 28일 전교생 1천3백여명에게 모두 1천원씩이 예금된 통장을 만들어 나눠줬다.

'이웃사랑 나눔의 장터'

경기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상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농수산물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웃사랑 나눔의 장터'를 개설해 화제. 농산물시장 관리사무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깝게 버려지는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11일부터 나눔의 장터를 개설했다.

청부 폭력 날로 흉포해져

서울지검 강력부는 16일 빚을 대신 받아준다고 돈을 받고 채무자들에게 폭행을 해온 9개파 48명의 폭력배를 구속했다. 청부 폭력배들은 채무자를 납치해 때리거나 가족을 협박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동묘지에 생매장 시키기, 5층 옥상에서 떨어뜨리기, 강물에 익사시키기 등 협박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흉포했다.

'인륜 저버린 권리' 패소

대법원 민사2부는 12일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명도-퇴거 청구소송을 낸 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20평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김모(80)씨와 간염을 앓고 있는 셋째 오빠(42)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부유한 딸(46)이 "인륜을 망각한 권리는 없다"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설계도면 훔친 해고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회사가 개발중인 기계의 설계도면을 훔친 장모씨(28·무직)를 절도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벤처기업인 S사 사무실에 들어가 위조지폐 식별기 설계도면 20장을 훔친 혐의다.

■ 병역은 돈없는 사람들만의 의무인가

가진자 삐뚤어진 자식사랑 군 간부와 결탁 병무 특혜

'유전(有錢) 면제, 무전 현역'. 병역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돈 없고 힘없는 보통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눠 가져야 하는 짐인가. 최근 군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진 대규모 병무비리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 실태가 상당부분 사실임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번 병무비리 사건의 주범 원용수(53) 준위의 비밀수첩 청탁자 명단에 前 국회의원, 변호사, 중소업체 사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듯이 병역의무는 일부 부유층에게 얼마간의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애물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병무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公憤)이 커지자 군 당국은 당초 비공개 방침을 바꾸어 청탁과 함께 돈을 준 6백여 민간인들의 명단을 전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청탁자 명단공개는 병역면제를 사회지도층의 특권인양 남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병역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삐뚤어진 자식사랑이란 사회풍토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96년 통계에 따르면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도지사, 외청장 등 행정부 고위공직자 96명중 31명이 병역면제(방위병 1명 제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3명중 한명의 비율인 32.3%의 고위공직자가 군경험이 없는 면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 자제 가운데 사병생활을 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을 비롯 국회의원, 부유층 자제의 병역면제 비율이 국민 평균 18% 보다 높은 20~25%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의 사회지도층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루스벨트 미 대통령의 아들 4명은 2차대전 당시 모두 전방근무를 자원했으며,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아들 존은 육군소령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병무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엄격한 병무관리와 함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성실한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처럼 "신분이 높을수록 사회적 의무도 무겁게 진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교육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 및 전력약화를 불러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반국가적인 범죄인 병무비리. 형평과 공정성이 생명인 병무행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병무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 국방의무는 누구에게나 평등

〈화엄경〉은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서 다섯가지 공포(恐怖)를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로 "군인은 충절이 있고 현명하여 육심내지 않는 것을 신조로 하되 '왕의 측근이 협박한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꼽고 있다. 〈대승대집지장십륜경〉은 "군인들에게 전투의 기능을 잘 가르쳐 외침과 내란을 막복받아 인연들을 포육(抱育)하는 것"을 3종업륜(三種業輪)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법구성전경〉은 "장군과 사병을 잘 양육하여 지위를 주는 것"을 5종대사(五種大事)의 하나로 중요시 하고 있다. 이처럼 경전은 호국호법(護國護法)의 주체인 군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평등하게 이들을 육성할 것을 가르친다. 한편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은 국토를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방법을 불교의 본질(般若)로부터 밝히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국가가 위태로워지자 산속에서 뛰쳐나와 대창과 낫으로 외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의승(義僧軍)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 오늘의 병역비리가 '내 자식만 편하면 된다'는 삐뚤어진 국가관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되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들었다

IMF관리체제에 따른 고금리로 일부 계층이 금융자산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혜택을 받으면서 사치·낭비풍조가 사회일각에서 만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불로소득을 누리는 일부계층이 사회분위기를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이들 부유계층의 자녀들이 강남의 유흥가를 가득 메우고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대로'라는 건배구호를 외쳐대며 흥청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불로소득은 마땅히 일정부분이 사회에 환원돼야 하며, 이로 인한 사회분위기 저해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편집자 주〉

불로소득 — 법답게 재물구하고 써야

▨남으로부터 과분한 이익을 받게 되면 본래 깨끗했던 마음을 허물게 되나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이익되는 일에 빠지지 말라. 저 사리라비구는 선정을 닦아 제석천에 태어났었지만 갑자기 신통력이 사라지고 백정 같은 사람으로 타락하였다. 〈증일아함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한다. 〈증일아함경〉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 〈잡아함경〉

▨아무도 제가 벌어 들인 것을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중의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인연이 맞아서 제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된다. 〈육방예경〉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계량기를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면 죄가 된다. 〈우바새계경〉

▨복을 닦기 위하여 살림 살고 장사하면서 온갖 법답지 않은 일을 하니 일은 비록 성취하지만 그 이익은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상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치 두 눈알이 빠지는 것과 같다. 〈백유경〉

▨만일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땀흘려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남에게 이바지 하고 스스로도 쓰며 널리 베풀어 복도 지으면 이 모두가 다 덕이 되는 일이니 욕심부리는 일 가운데 최상이니라.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앙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려 족함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속에 살아가는 사람중에 최상이니라. 〈복음경〉



"'통일의 밭' 갈아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에 제공하는 500마리의 '통일소'를 태운 50대의 트럭이 1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파주 평화통일사 주지 일선스님이 '통일소'를 보며 평화통일을 발원하고 있다.

통일소 북송 지켜본 일선스님

저 소떼 따라가 법음 전했으면…

16일 아침 북송길에 오른 통일소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 이었던가. 저 소떼의 잔등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북녘동포들에게 무량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목이 메어 속으로만 수없이 되뇌였다. 비록 축생이지만 사람대신 통일의 한을 풀기 위해 북송되는 소를 보고 출가 수행자로서 묵묵부답할 수만은 없었다.

목탁을 힘껏 잡고 목이터져라 일념으로 정근을 했다. 너희들이라도 평화통일의 밭을 일구는 통일소가 되어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실향민들의 아픔과 국민의 염원을 씻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슴이 져며왔다. 노예처럼 온갖 노동에 시달리지는 않을까. 도착하자마자 도살장에 끌려가지는 않을까. 이런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소가 눈에 띄였다. 비록 말을 못하지만 소들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5백여마리의 소들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너희들이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전법사로 모든 북한동포의 평화통일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평화의 다리(통일대교)'를 건너 북으로 북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소들을 향해 통일의 그날이 오면 다시 만날 것을 발원했다. 그리고 1마리의 소가 사람 1백여명의 몫을 한다는 말처럼 북녘땅 곳곳에 퍼져 통일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길 서원했다. 이번 기도는 20여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진각에서 평화통일 기도를 한 나에게는 특별했다.

통일소들이 하루빨리 남북간의 벽을 허물고 남으로 되돌아 오길 다시한번 합장 기원해본다.

새상품 "온열 전위 치료기"

인체에 음전위를 부가해 혈액순환과 세포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가정용 온열 전위 치료기 '매트공'.

체액, 세포, 신경 등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음이온 치료법에 근거해 개발된 이 제품은 자율신경 조절작용과 병균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저항력 증진작용 등을 해준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좋아져 신경통, 요통, 관절염, 디스크 등과 각종 성인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

(주)내가보산업. 가격은 165만원. (02)927-8660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치료됨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의술(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은 사향·호골(虎骨)·인삼·박하수오·적화수오·원방통 외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의 치료, 중풍·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당뇨병·소화불량·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택해진다.

■ 진 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윤달수의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장례발생 즉시연락
불교식 장례 종합서비스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시론

사라진 갈마법

부처님의 교단인 승단을 '화합하는 무리'라 하여 화합대중이라 한다. 부처님은 교단이 유지될 수 있는 첫째 조건으로 계율을 지킴으로써 제자들의 화합을 항상 역설하였다. 계율을 지키는 화합대중은 대중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남의 착한 일은 대중에 널리 알려주고 허물은 숨겨주며, 부끄러움은 알리지 않고 가려주고 비밀을 들으면 감추어주고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내세우고 고집하면 어찌 화합대중이랴

작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크게 갚으려 생각하고 자기에게 원망을 하는 사람에겐 항상 착한 마음을 내며, 원망하는 사람과 친한 이가 똑같이 괴로워하면 먼저 원망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 꾸짖는 자나 와서 때리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모든 중생을 부모와 같이 여기려고 애쓴다. 자주 상하가 대담으로 바른 법을 논하고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며 법을 받들어서 법에 금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철 우

〈파계사 영산율원장〉

그리고 많은 스승과 벗을 보호하고 바른 생각을 가져셔 스승을 공경함으로 여긴다. 음욕을 떠난 깨끗한 수행으로 중생의 본능인 욕망에 따르지 않으려 애쓰며, 남을 먼저하고 나를 뒤로 하여 이익을 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이를 율장에서는 장로라 불렀다. 장로는 대중의 가장 윗자리의 스님이다. 좋고 나쁜, 크고 작은 일들이 장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자면 자연히 아랫사람들의 불평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불평을 마음으로 삭이는 것이 수행이며 대중생활은 화합하는 힘을 기르는 곳이었다.

부처님께서 사밧티의 교외 제타숲의 정사에 계실 때이다. 두 비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한 비구가 잘못을 거듭 사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차 소란해지자 비구들은 사과하는 비구를 종용해 부처님께 나아가 전후 사정을 사뢰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죄를 범하고 인정하지 않는 잘못과 마찬가지로 용서를 비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도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빌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함께 현명한 사람이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에 부처님은 장로들로 하여금 대중에서 어른이 되어 잘못을 풀어나가는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갈마법이다. 머리를 깎고 모여살기만 하는 것만으로 대중이라 할 수 없다. 서로 화합하려 애쓰고 어른을 공경하고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사는 것이 화합한 대중이라 할 수 있다. 이 갈마법이 사라진 것은 바로 세속의 법에 의존하여 산다는 증거이다. 화합의 시작은 자신을 내세우는 경쟁이 아니다. 나를 내세우고 고집할 때 화합은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합한 스님네에게 선거란 맞지 않다. 화합이 깨어지는 시비가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권력을 남용하는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명예와 거울은 사소한 입김으로도 흐려진다는 외국의 속담이 있다. 명예란 이름 석자와 체면에 해당된다. 속한 문중이나 개인의 주위에 세력을 넓혀갈 수는 있겠으나 한사람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절집안에서 감투욕심 승단 더럽히는 속된 짓

'중벼슬 닭벼슬'이란 말이 있듯이 절집안에 감투란 것이 무어 쓸데가 있단 말인가. 보잘것 없는 것에 불과하다. 일부 본사의 주지선거에서 수행자 본연의 풍토를 흐리게 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린다. 우리가 화합대중으로 살아가려면 승단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세속적인 선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로서의 바른 길을 걷다보면 그만한 대가의 공정과 존경을 얻을 수 있지만 명예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해가 돌아올 것이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단월들의 입에서 '스님네의 감투 싸움'이라는 말이 들려와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열린마당

선암사 사태

선암사를 둘러싸고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조계종은 3일과 17일 총무원과 전남지역 5개 교구본사 공동명의의 성명서와 중앙종회 결의문을 통해 선암사가 본래 조계종 사찰임을 주장했다. 태고종은 선암사에 총무원을 설치하고, 17일 열린 종회에서는 총림법을 제정해 선암사를 태고총림으로 설정하는 등 두 종단 모두 한치의 양보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종단의 입장과 선암사 사태를 바라보는 재가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95년 1월 40년만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월주스님(오른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이 만나 분규종식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선암사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조계종소유…대화자세 되찾자"

조계종 입장 제원〈총무원 기획실장〉



1600여년 한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치열한 수행정신과 계율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호계의지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정신과 의지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퇴색되고 왜색화되어 왔다. 이를 바로 잡고자 떨쳐 일어난 사건이 정화운동이다.

태고종측 스님들도 이를 인정하고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하며 "경향각지의 사찰의 관리권이 태고종과는 아무런 관련을 없음"을 각서로 댕서하고 물러났던 것이다.

국가에서도 1969년 10월23일 '종헌개정결의 무효 확인 소송' 최종판결에서 '한국불교의 법통은 조계종에 있음'을 명백히 판결하였으며, 1971년에는 전국의 태고종 무단점유 사찰을 조계종 명의로 등기해 줌으로써 법적인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을 만천하에 밝히기도 했다.

수년 전부터 태고종측이 분쟁이 완료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또한 근자에는 총무원을 선암사로 옮기고 승려대회를 개최하는 등 화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실로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처사이다. 본 종단은 하루빨리 원 상태대로 돌아가 다시 진지한 대화의 자세를 되찾기를 촉구하고 기대하는 바이다.

원인조명 세미나 · 헌법소원 추진

태고종 입장 지성〈총무원 총무부장〉



50년대 자유당 이승만 독재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유시로 인하여 이 땅에 불교분규·법란이 일어났으며, 지금은 폐지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사로 전국의 수천여 대가람을 침탈당했다.

그들은 오늘날 새 정부 대통령 취임 이틀을 앞두고 선암사를 강점하려 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과 호남지역 4개 교구본사 주지 명의로 적반하장격으로 삼보정재를 탕진하며 터무니없는 주장과 광고를 내 국민들과 2천만 불자, 그리고 호남지역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본종에서는 이에 대하여 논평 또는 반박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불타의 가르침대로 묵빈 대처하고, 총무원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고로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78년 4월 대법원 판결에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과 61년 10월 비구측 종헌은 무효이고 태고분손측 종헌이 유효하다는 관결을 상기하기 바란다.

역사이래 전례없는 불교법란, 분규의 원인을 새롭게 조명하고 전도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분규정립 세미나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할 뜻을 밝힌다.

"청정수행가풍 조계종서 이어야"

강민영〈불교사학자〉

한 목숨 내던진다는 각오로 수행하고 가람수호에 임해야 온전한 수행자가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야 불조의 혜명이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선암사 문제는 조계증과 태고종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통불교를 지키려는 비구와 왜색불교의 잔재인 대처와의 싸움이다.

불교분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50년대에 입산한 사람들은 태고종을 원하지 않았다. 어느 종단인지, 자기의 은사가 대처인지도 모르고 입산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몇차례 갈등이 있었다. 수행자는 독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스님들은 선암사에서 돛겨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대처한 스님밑에서 공부하길 원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런 생각을 지닌 스님들이 많이 계신다. 따라서 불교의 정통과 왜색불교 잔재와의 싸움이 선암사 문제의 본질이다.

조계종이 법의 판결을 근거로 선암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수행자가 세속법에 기대어 문제를 풀려는 비불교적인 것으로 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종교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지 않은가. 불교의 정통성에서 뿐만아니라 세속법으로도 선암사는 조계종의 소유임이 분명하다.

선암사 문제는 한국불교의 청정수행가풍을 이어가려는 비구와 이에 맞서는 대처와의 갈등이다. 그렇다면 선암사에는 누가 살면서 수행하고 가람을 수호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은가.

"태고종이 남인가…타협책 찾길"

이원섭〈시인〉

도대체 절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 절하는 곳이기에 절인 것이다. 곧 부처님께 예배드리며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출가자들의 실천장(도량)이 절인 것이므로, 절의 성립 요건을 가람의 웅장함 따위 경제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수행의 유무여부에 걸려 있다.

따라서 절을 머무는 의식없이 머무는 곳(不住而住)-마치 봉우리에 무심히 머물던 구름이 다시 무심히 그곳을 떠나가는 듯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홍인(弘忍)스님으로부터 의발(衣鉢)을 전수받은 육조대사(六祖大師)는 그날밤으로 미련없이 그곳을 떠나갔다. 이렇게 머물없이 머무는 정신에 투철하지 않았던들, 조계의 법맥이 어찌 오늘까지 존속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조계종 측에 권하고 싶다. 태고종에서 마음있어 하거든 선암사쯤 쾌히 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태고종이 어찌 남인가. 뿌리를 같이하는 다른 잔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절이란 절을 모두 잃은 것이 태고종인데, 오직 하나 남은 그 절마저 뺏어 어쩌겠다는 것인가. 만약 그리 못하겠다면 백년쯤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좋겠고, 다시 그것도 안된다면 어떻게든 타협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나는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임을 인정한다. 그러기에 대인(大人)다운 처신으로 만인의 추앙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결코 법정에 나가 망신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조계-태고 분규일지

1954년
△5월: 이대의 이종익 이재열 문정영 강석주등 불교정화운동 발기
△5월21일: 이승만대통령 제1차 유시발표(이후 55년 8월까지 7차례, 발표)
△6월25일: 교단정화추진준비위원회 구성
△7월6일: 불교조계종 종헌 공포시행
△9월27일: 한국불교조계종종헌제정 공포
1955년
△1월: 비구측 보조종조론과 대처측의 태고종조론 대립
△2월4일: 승려자격 8대원칙 규정
△8월15일: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제정 공포
1959년
△1월3일: 비구·대처승 분쟁종결을 위한 성명서 발표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와장 박정희, 불교분규수습에 대한 담화문 발표
1962년
△1월18일: 비구·대처 양측, 불교재건위원회 구성에 합의
△4월14일: 대한불교조계종 문교부에 등록
1967년
△2월6일: 비구·대처 양측 지도급 승려 30명, 아서원에서 조계종 발전 위한 추진위원회 간담회, 통합종단의 종헌 재확인 협정어 서명.(27일 대처측, 아서원 모임 참석자 이탈자로 규정, 분종결의)
1969년
△10월23일: 대법원, 대처승측이 통합종단을 상대로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결의 및 종정추대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
1970년
△4월16일: 대처승측, 제9차 전국대의원회의에서 한국불교태고종으로 독자노선 선언.
△5월8일: 한국불교태고종 창종. 문교부 태고종의 불교단체 등록접수.
1973년
△9월21일: 조계종, 태고종의 등록 취소건의, 분규재연.
1976년
△6월11일: 대한불교 산하 15개 종단, '불교 분규종식에 관한 결의문' 채택
1988년
△8월5일: 조계·태고 양종단 총무원장을 포함한 간부 9명, 문공부 회의실서 회합, 사찰분규 해결 모색.
1995년
△1월17일: '조계 태고 분규사찰 실무협의회' 구성.
1998년
△2월23일: 세민스님등 조계종 스님 80여명 선암사 진입, 12시간 대치 후 해산.
△3월25일: 태고종, 선암사서 승려대회 후 총무원 현판식.
〈한국불교현대사(사공사)〉 참조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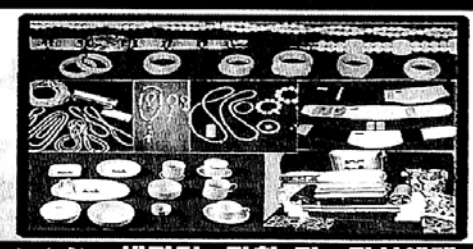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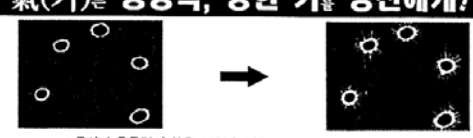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사 소견서에 건강은 백명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玉山家 옥만을 찍찜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삐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02)777-0105 (우편판매可)

종단소식

조계종

조계사 백고좌 대법회

조계사(주지 현근)는 18일부터 9월27일까지 백고좌 발심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는 혜정, 무진장, 암도, 성타, 정락스님 등 고승초청법회가 마련된다. 또 조계사 신도회는 7월1일 삼사순례 및 백고좌선지식을 찾아서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직지사 첫 군장병 수계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7월 12일 대웅전에서 불자장병들을 대상으로 제1회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에앞서 26일에는 남원 실상사,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 일대로 삼사순례를 실시한다.

은해사 신도회장 안종학씨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25일 대웅전에서 안종학 신도회장 임명식을 갖는다. 또 22~25일 대구보전문대 정법회, 25~28일 계명대 중도반 수련회를 각각 실시한다.

태고종

종회의장에 일우스님



태고종 중앙종회는 16일 선암사에서 제75회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공석 중인 종회의장에 일우스님(보현사 주지·사진)을 선출했다. 또 운영·법제·재정분과위원장에 우담·운경·남섭스님이 각각 당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태고회 회장인 벽응스님(문수사 주지)외 14명의 원로스님을 추대해 종정자문기관인 승정회의를 열고 승정추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 광명사 대웅전 낙성

제주 광명사(주지 방수보)는 19일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대웅전은 96년 2월 착공식을 가진 이래 2년여의 불사기간을 거쳐 완공한 것으로 50평 규모의 전통 목조양식이다.

수보스님은 "광명사는 선친인 방동화 스님과 불자들이 무장항일투쟁을 벌였던 성지"라고 소개하고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호국불교의 근본도량으로 가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방불교대 수련회 마쳐



동방불교대학과 동방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주관한 '동방인 수련회'가 14~16일 선암사에서 '동방인, 새로운 진로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

천태종

삼개사 호국영령 천도재

강릉 삼개사(주지 이덕해)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호국영령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강원도 지회 스님을 비롯 강릉시 보훈가족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여수 장덕사 법당 기공

여수 장덕사(주지 정거호)는 여수시 둔덕동 소재 1천 4백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23일 법당 기공식을 가졌다.

거호스님은 "우선 1백50여평 단층 법당을 6개월 공기로 짓고 3층 규모로 장덕사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위덕대 교직원대상 설법

통리원(원장 성초)은 19일 위덕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덕대학교에서 교직원 순회법회를 봉행했다.

교직원 포교의 활성화와 신심 심화로 종교관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순회법회에서는 지광종사와 혜정대정사가 법사로 나서 '정송 정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자성일불사의 공덕'에 대해 설법했다.

또 7월2일 진선여중·고, 7월3일 심인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순회법회를 갖는다.

보문종

석굴암 조성기념 법회

총본산 보문사(주지 법준)는 14~16일 석굴암 조성 26주년 기념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 동참한 3백여명의 불자들은 석굴암 조성불사의 공덕을 나누고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마음의 힘 길러 IMF 극복"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시민선방 개설

실직자들에 매일 참선 법문·교수특강
이웃돕기용 'IMF 캔 보시함' 제작배포

'경제적 IMF가 마음의 IMF까지 될 수는 없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원장 혜안)이 시민선방을 개설하고 내건 슬로건이다. 6월15일부터 7월10일까지 참가비 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입방을 허용하고 있는 시민선방은 실직자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문을 열었다.

매일 오후 2시~5시 참선 법문 토론과 함께 매주 수·금요일에는 울산대학교 윤병국교수, 박승휘 한의사, 김갑진교수를 초청, '불교와 과학' '한의학에서 본 정신건강' '우리 자신을 알자'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혜안스님은 "선뜻 나서지지 않는 마음을 비우고 시민선방의 문을 두드린다면 향긋한 향내음과 잔잔한 명상음악 속에서 참선삼매를 체험할 수 있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담긴 법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50여명이 입방해 있는 시민선방을 7월 10일 이후에도 상설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지원은 실직자돕기 'IMF 캔 보시함'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울산지원 학생회 청년회 신도회는 캔 보시함 일만개 제작, 배포를 목표로 캔 수거 및 세척, 보시함만들기 작업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민선방을 지도하고 있는 혜자스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는 마음의 힘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시민선방을 통해 정신적 힘을 키워주고 캔 보시함을 통해 모인 성금으로 이웃의 실질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해준다면 물질의 IMF가 결코 마음의 IMF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실직자들에 마음의 여유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개설한 시민선방. 아래는 성금모금을 위해 만든 'IMF 캔 보시함'.



◇국내 최대규모인 길이 3m 무게 4톤의 백옥 와불이 홍천 자명사에 봉안된다.

자명사 국내최대 백옥와불 봉안

진신사리 3과도…7월5일 개원법회

국내 최대 규모인 길이 3m 무게 4톤의 백옥 와불이 새로 건립되는 홍천 자명사(주지 효성)에 봉안돼 교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명사는 7월5일 오전11시 백옥와불 이운식과 함께 2천5백년전부터 태국 승왕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봉안하며 대대적인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법륜종 종정 일화스님, 총화종 前종정 야옹스님, 법륜종 총무원장 혜우스님 등 1천여 사부대중과, 대만 자명사 상상노스님 주지 상재스님, 만불사 주지 상개스님 부흥사 주지 상장스님 불광인수당 주지 상보스님 등 대만의 중진스님과 신도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4천여평의 대지에 지상2층 지하1층의 연건평 3백50평규모의 무설전과 요사채를 낙성하고 개원되는 적멸보궁 자명사에는 태국 승왕이 2천5백년 동안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된다. 또 백옥 와불은 태국에서 조성돼, 대만 故성인대사(聖印. 前 대만 만불사주지)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한국에 모셔져 이번에 적멸보궁 자광사에 봉안되는 것이다.

주지 효성스님은 "백옥 와불은 친견하는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하게 맑아지는 법력을 체험하게 된다"며 "앞으로 2005년까지 대웅전 사리탑 종각 등 10동의 당우를 세워 명실상부한 보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울산 정광사 삼천불 점안

경제난 극복 기원도…사부대중 2만명 참석

경남지역 포교거점으로 울산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천태종 정광사(주지 영재)는 13일 옥 관음존상과 삼천불 점안 및 경제난국 극복 기원 법회를 지관당에서 봉행했다.

점안의식, 육법공양에 이어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해 2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운덕스님은 법문을 통해 "애국불교를 종단의 지표로 삼고 있는 우리는 국가적 난국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힘과 마음을 모으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광사는 부산의 삼광사, 서울의 관문사에 이어 6년여간의 대불사로 이뤄낸 불교회관형 사찰로 대지 1천5백80여평 건평 2천3백여평 규모에 대웅보전 지관당 유치원 소법당 예식장 요사채 부속건물 등을 갖추고 있다.

천미희 기자

"경내지 군부대 이전해주오"

건봉사 각계에 진정서

강원 고성 금강산 건봉사(주지 해장)는 15일 사찰 경내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 민원실과 국방부, 육군본부, 강원도청 등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건봉사는 진정서에서 "사찰경내지에 사전승락 없이 군부대가 주둔, 여러 차례 철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건봉사에 따르면 육군 모부대는 현재 건봉사 소유인 대웅전입구 불이문에서 1백m에 있는 밭 1만7천여평에 주둔하며 지난 96년부터 부대주변 철책공사를 하는 등 시설을 증·개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사찰측은 "복원사업에 지장은 물론 건봉사를 찾는 신도 및 일반 관광객들이 부대 정문앞을 통과해야 하는 심적부담과 주변정서를 해치고 있다"면서 "문화재 지정과 복원사업 이전부터 부대가 주둔했더라도 사후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부대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중근 기자 〈jgkim@buddhapia.com〉

제주 법화사지 복원
연못·극락전등 건립

고려시대 제주도의 대표적 사찰이었던 법화사지에 대한 복원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12일 법화사지 종합정비 복원계획사업에 따른 용역보고회를 열어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마무리했다.

서울 세안건축이 마련한 복원계획안은 지난 82년 이후 지난해까지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 법화사지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후기의 건축양식으로 복원토록 돼 있다.

지난 88년 이미 복원된 대웅전과 남순당을 제외한 현재 요사채로 사용하고 있는 슬레이트 가건물과 콘크리트 누각 등은 철거되고 내년부터 2001년까지 총 1백8억6천만원을 들여 명부전, 극락전, 강당, 승방, 석탑, 일주문이 새로 세워지고 연못이 복원된다. 이밖에 법화사지 주변에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각종 현대식 편의시설이 갖춰진다.

서귀포시는 7월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확정안을 마련, 11월에 연못복원공사를 발주키로 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밝은길 아봐타센터

지금 당신의 변화를 위해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삶에 원치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봐타코스에서 과감히 지우시고 늘 원만한 삶의 향상과 발전, 밝은 지혜의 길을 획득하십시오.

코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새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유식과 함께 깨어남을 경험하십시오.

수련기간 7~9일간 (수시 접수)/ 비용 160만원(상담 무료)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합장

전 화: (02)396-2736 · 휴대폰: 016-228-2358

연막 소독 살충기



CARNIVORE 2000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어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58,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현 금 가 : ₩130,000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등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절·염불·독경·참선·기도 (수련안내)

⊙ 참선기초수행법, 좌선호흡법, 행선염불, 금강경봉독법, 특별기도법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①숨이 차고 헐떡대며 절하는 것은 마음이 크게 동요된 것으로 정신 집중 안되고 폐와 심장 등의 신체에 무리가 오는 어리석은 수행이다. 들숨과 날숨을 절 동작에 정확히 대입하여 자연 단전 호흡되면 삼천배를 하여도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절삼매 이루고 강력한 기운의 집중과 방출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당뇨, 치매, 중풍은 예방되고 치유된다.
②염주들고 숫자세고 시계보면서 절하는 것은 바보같은 수행이다. 호흡과 동작에 숫자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헤아려지며 정신 집중이 좋아져 생각이 또렷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된다.
③합장하고 절할때, 일어설때 우주의 밝은 기운이 몸에 쌓이는데 염불하면서 절하거나 입벌리고 절하면 기운이 빠져나가 몸이 흔들리고 힘이들며 몸살나게 되니 허 입천장에 말아붙여 단전에 쌓인 기운을 유통시켜야 생기가 나게 된다.
④요가, 선체조, 기공체조, 단전행공, 명상체조보다 동작과 호흡의 일치가 전혀 무리없이 쉽게 잘되며 장소 구애 않받고 돈낭비, 시간낭비 않으며 지극한 신심이 증대되고, 단기간에 효과 발휘하는 최고의 건강법이며 만인류는 필히 실천해야할 수행법이다.

※ 서있는 상태부터 숨을 내쉬도록 가르치는 지도자는 호흡법을 전혀 모르고 어리석은 스승이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수행하라.

⊙ 염불 通 철야 정진

올바른 자세가 계속 유지됨으로 졸립지 않고 피곤하고 지겹고 피곤지 않으며 갈수록 정신은 맑아지고 자동으로 염불되고 자동으로 단전 호흡되어 힘이 넘치게 되는 가장 쉽고 언제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이다.

※ 염불을 통해 허를 완벽하게 이완시키면 중풍, 치매, 고혈압이 예방치유되며 스트레스는 즉각 해소된다.

⊙ 선비의 도인 건강법

피로회복(20분), 소화불량(3분), 불면증(즉시), 화병(1달), 무좀(3회), 변비(순간), 비만, 고혈압(100일) 특히 당뇨병은 합병증 상태서도 쉽게 치유된다.

●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기본수행법 수련
● 매주 토요일 저녁9시 ~일요일 아침 8시 철야용맹정진
● 예약수련,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 (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월정사 자연학습원 운영

원주 치악산에…실직자엔 무료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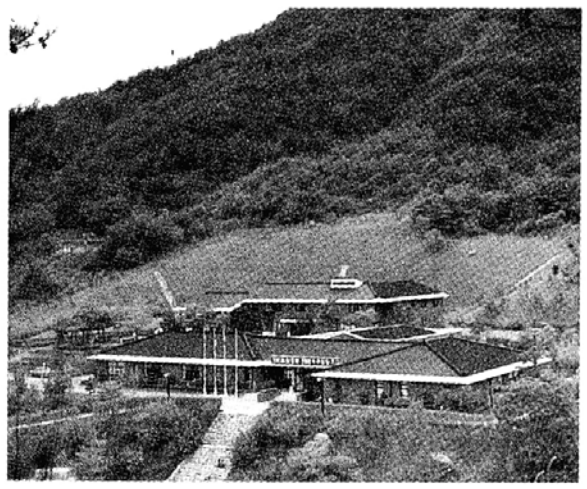
치악산 자락에 자연과 부처님 법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연학습도량'이 마련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현해)가 강원도로부터 자연학습원을 위탁받았다. 도 단위의 자연학습원을 불교계에서 위탁받기는 이번이 처음. 월정사는 7월 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3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위치한 자연학습원은 1만5천여평의 부지에 연수동·숙박동·표본관 등의 건물과 6개 자연관찰로, 10여종의 체력단련시설, 운동장 3곳으로 조성되어 있다. 특히 치악산 국립공원 내 구룡사 경내를 통과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포교기반을 다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치악산등반, 드림랜드 관람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다. 학습목표는 자연보호, 심신단련, 여가활동, 윤리의식 함양 등이다. 학과편성은 자연학습, 소양교육, 심신단련, 레크리에이션 등인데 이를 위해 월정사측은 불교적인 심성교육이 녹아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원장 현각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은 "가족단위 연수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함양하고 불교청소년단체, 신행 소모임 등의 연수 뿐만 아니라 실직자를 위한 무료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월정사가 교계 최초로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은 자연학습원 전경.

뉴스 & 뉴스

"종단연수원 마련해야"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6일~17일 용인 중소기업개발원 연수원에서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봉선사 등의 주지스님 2백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말사주지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연수교육을 위한 상설 연수원의 필요성을 절감, "종단연수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24일 '생태농활' 워크숍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스님)는 24일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전국귀농운동본부와 불교환경교육원 등과 공동으로 '생태 농활'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이 '왜 생태농활인가', 윤영우 기독학생회총연맹 대학부장이 '대학농활,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제한다. 김재경 기자

'늘푸른 알뜰매장' 개설

진각종 진각복지회(상임이사 회정)는 25일 대구 진각문화회관 1층에 중고물품 상설 교환매장인 '늘푸른 알뜰매장'과 주민쉼터를 개설한다. 늘푸른 알뜰매장에서는 도서와 환경사진 등을 비치하고 각종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진각복지회는 또 25~26일까지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배포 △환경상품 및 자원재활용 장난감 전시 △가전제품 무료수리 등도 펼친다. 김재경 기자

조선시대 청동종 밀반출

조선시대에 제작된 청동종을 미국으로 밀반출, 처분하려한 김정웅 前 한국고미술협회장이 12일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4년 국내에서 2억원에 구입한 16세기초에 제작된 청동종을 미국으로 밀반출한 뒤 미국 골동품 경매상 등을 통해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기석 기자


◇워싱톤 노턴버지니아 커뮤니티대학에서 7일 열린 대행스님의 법회에 8백여명의 교포·미국인 불자들이 참여했다.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스님 워싱턴·뉴욕법회 '성황'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본지 회장)이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톤과 뉴욕에서 '참나 찾기'를 주제로 개최한 법회가 교포·미국인 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성황리에 회향됐다.

워싱톤 노턴버지니아 커뮤니티대학 디강당에서 7일 열린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 자기의 근본을 믿고 일체 집착과 욕심을 여여하게 놓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삶은 고(苦)가 아니다"고 말했다.

스님은 법회 후 미국인 불자들에게 '사회·도덕·윤리와 옳고 나쁜 행위에 선(禪)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 어떤 스승을 만나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아시아 포튠' 등 현지 언론들은 대행스님의 워싱톤·뉴욕 순회법회에 대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대행스님의 법문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미국내에서 일고 있는 불교와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반영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석굴암 '수술'

전실지붕 해체복원 내·외부 돔 방수

경주 석굴암이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간다.

문화재관리국과 불국사(주지 설조)는 19일 석굴암에서 기술지도단회의를 갖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석굴암에 대한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대한건축학회가 제출한 '석굴암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더 이상 미룰 경우 원형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 불국사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 문화재 전문보수업체인 창성건설(대표 송일동)에 용역을 의뢰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보수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총공사비 3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보수의 주요대상은 목조전실과 콘크리트 내·외부 돔의 누수부분 등. 전실의 경우 지붕을 해체 복원하고 노후기와와 뒤틀려 있는 바닥의 전돌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콘크리트 내부돔은 천장을 중심으로 본존불 위쪽과 벽면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부위를 온·습도의 영향이 없는 무수축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외부돔은 안쪽 측면에서 발견된 4곳의 누수부분을 특수 방수처리한다. 이밖에 소음과 진동으로 석굴암 벽면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공기조절시설이 교체되고 석굴암 외곽봉분의 잡목들도 제거된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생태학교지도자 교육 봉은사 7월14일까지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는 22일부터 7월14일까지 신도회 간부 60명을 대상으로 생태학교 지도자 교육을 실시한다.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의 지원으로 사찰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번 생태학교는 수료생을 중심으로 환경모임을 구성, 환경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불교환경교육원은 지방 사찰에서 환경교육을 의뢰할 경우 생태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02)765-6324 김재경 기자

조계종 명예포교사 10월중 임용

본사주지 추천거쳐

명예포교사 제도가 시행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명예포교사 제도 시행에 따른 세칙을 마련, 10월 중 명예포교사를 임용키로 했다.

명예포교사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명예포교사 수여자격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에 종사했거나 △대학교수 및 경력자 △종립학교장 △10년 이상 출가수행 경력이 있고, 현재도 포교활동을 하며 △불교신행단체 지도경력 10년 이상 △불교 전문서적을 3권 이상 출간했거나 불교관련 논문 10편 이상을 학술권위지에 발표 △국위를 선양한 불자체육인 등이며 부적격자의 남발방지를 위해 본사주지 및 중앙종무기관 부장급 이상 소임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역량있는 분들의 업적과 원력을 종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명예포교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명예포교사는 포교사의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BBS 공금횡령 재수사 서울 서부지청 공안부서

서울지검 서부지청 공안부는 10일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재수사 착수는 4월12일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 대책위원회에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청 등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낸 것과 5월초 불교방송 장부조사과정서 김현안씨가 8억3천만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데 따른 것.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노인모시는 자녀모임' 동화사 8월결성

대구 동화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스님) 부설 노인상담전화(대표 우재현 대구대교수)는 '노인을 모시는 자녀들의 모임'을 8월중에 결성한다.

이 모임은 집단의 성격별로 며느리모임, 딸모임, 아들모임과 같은 소집단을 꾸리고 자조집단(self-help group)을 형성, 상호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부모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게 된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이 모임이 활성화되면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세대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053)476-663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목탁소리

여의도불교문화센터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여의도는 시끄럽다.

정치 경제 방송의 1번지로 자리잡으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여의도. 이 여의도가 최근 불교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여의도에 불교문화센터를 설립, 정치 경제 언론 종사자들을 향한 포교의 거점도량으로 삼으려 했으나 준비업무를 맡은 한 스님이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냥 잠적한 것이 아니라 준비자금을 들고 사라져 버렸다. 교계의 단체들은 이 일을 두고 총무원의 종무원 관리 헛점과 주먹구구식 불사 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물본 132회 중앙종회에서도 이 문제는 집중 거론됐다. 총무원은 여의도문화센터 설립을 위해 그간 2억원의 재정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6천9백30만원의 행방이 그 스님과 함께 묘연해 졌다고 하지만 아직 여기에는 적잖은 의혹이 있다는게 일반적 견해다. 내부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 어렵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가 "중앙종회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회견을 취소한 것도 석연치 않다.

총무원은 종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7월중에 문을 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무원의 장담대로 다음달 개원이 되더라도 여의도불교문화센터는 좋은 취지에 비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겼다. 무엇보다 크게 부각되는 상처는 불교계에 대한 각계의 신뢰도 문제다.

한 스님은 "이 사건을 정치인에게 들었다"며 부끄러워 했다. 총무원이라는 거대 기구가 추진한 일이 한 스님의 '딴 생각'으로 교계 안팎을 시끄럽게 한 것은 조계종 전체에 대한 신뢰를 깎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총무원의 한 스님은 이 일을 '호사다마'라 표현했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사라진 정재를 다시 찾고 잠적한 '딴 생각'의 주인을 징계하고 문화센타의 문을 여는 일상적 처리에 앞서 부끄러운 상처를 주춧돌로 삼아 세워지는 문화센터를 어떻게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도량이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고민에 '너와 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ytlim@buddhapia.com〉

호국보훈의 달 값진희생 추모하고 빛난공훈 예우하자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뿌리 뽑힌다. CELL FORTE (셀 포르테)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등에 대한 멕시코 국립대학의 임상연구 결과 관절염, 관절통, 중풍 기타 염증 등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관절염, 노화 등의 면역기능 강화에 의한 효능이 임상실험 결과 60명을 상대로 98%이상 효과가 입증되었다.



셀 포르테에 대한 석학들의 증언

- 미국 Jame 박사 "**셀 포르테**는 2억 2천 이상되는 미국인들의 관절염을 치유하는데 주목할만한 물질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 미국 Corade 박사 "**셀 포르테**는 현재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변형성 관절염의 치료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기타 Lowa 대학 및 Wabash 대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
- 셀 포르테는 현재 세계 33개국에 수출중

한달분(180정) ₩220,000 / 2개월분(360정) ₩400,000

사례문

이영래(57세,목싱세계챔피온 트레이너) 본인은 세계챔피온인 문성길, 장정구, 김용강등 많은 권투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다리등에 만성신경통과 관절염으로 20여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한약과 양약등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고 침도 많이 맞아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여 한 때는 지도자의 길을 포기할까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광고에서 셀 포르테가 좋다는 광고를 보고 속는 셈치고 2개월분을 구입하여 복용중에 처음에는 진통이 심해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함께 복용하여야만 했습니다. 약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차도가 나타났고 10개월을 계속 복용하고 부터 저의 몸은 정상을 되찾았고 현재는 거짓말처럼 아픈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세계 챔피온을 만들고져 땀을 흘리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와같이 고통을 받고있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져 이 사례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저의 건강을 찾아준 삼천실업에 감사드립니다. ▶이영래

청보원 서울:(代)790-8200 본사: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8번지

※ 셀 포르테의 자세한 안내 책자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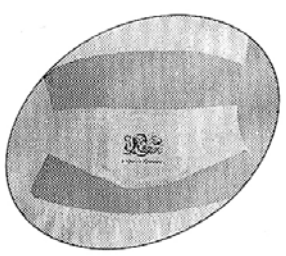
▶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 예금주 : 삼천생업
- 농 협 : 394-01-004150
- 우체국 : 100149-0210155

※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 (등기, 소포우송)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다도에서 생활禪 배운다"

화제의 프로 불교TV '차문화 산책'

불자 탤런트 김혜정 진행
차의 역사 · 예절등 소개
초의선사 일대기도 방영



부처와 중생 모두를 평등한 한 맛으로 융섭하여 우주적 삶 자체로 귀일시켰던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 차문화를 통해 다선일미의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불교TV의 '차문화 산책'(담당PD 양흥식)이 불자들의 안방을 찾아간다.

7월4일부터 6개월간 방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불자 탤런트 김혜정씨〈사진〉의 진행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30분에서 8시까지 30분간 방송된다.

차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이번 프로는 '차의 역사' '차와 불교' '차의 종류와 보관방법' '다례법' '차와 다기 만들기' '중국·일본의 차문화' '차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차와 관련된 선사' 등의 코너를 통해 시청자들을 차의 세계로 안내한다.



◇茶禪一味. 다례법 시연을 통해 차의 묘미를 느끼고 있다.

특히 '차와 관련된 선사' 편에서는 중국차에 대한 애호로 가득차 있던 당시의 풍토를 타파하고 동다(東茶) 즉 우리차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렸던 초의선사(1786~1866)의 일대기를 소개해 보는 이로 하여금 다선일미의 세계를 만끽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문화 산책'을 제작한 양흥식 PD는 "다도와 다예 등을 포함한 한국의 차문화에는 불교 전통문화들이 많이 스며 있다"며 "이 프로를 통해 생활 속에 다도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속에 내재돼 있는 불교의 역할도 동시에 알리겠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기자〈jkim@buddhapia.com〉

BBS 지방국 프로개편
교양 · 포교내용 강화

대구, 부산, 광주, 청주 등 4개 불교방송 지방국들은 15일 교양 정보와 포교프로그램이 강화된 프로그램 개편을 실시했다.

■ 부산BBS=△BBS 부산의 아침 (월~토, 08:30~08:55) △3시의 가요희망곡 (월~토, 15:05~16:00) △반야의 샘(월~토, 16:10~16:40) △일요법문(일, 16:05~16:50)

■ 대구BBS=△불국토의 아침(월~토, 08:30~08:55) △우리들의 찬불가(월~일, 18:15~18:20) △5시뉴스(월~토, 17:00~17:10) △일요설법(일, 15:05~15:20)

■ 청주BBS=△출발, 정보데이트(월~토, 15:05~16:00) △우암산 전망대(월~토, 16:10~16:50) △BBS 일요초대석(일, 15:05~15:20) △일요매거진(일, 16:25~16:50)

■ 광주BBS=△빛고을 건강교실(월~토, 15:05~15:20) △행복한 노래마을(월~토, 16:10~16:50) △우리소리 한마당(일, 16:05~16:50)

종파 법계 검소함 상징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⑩

가사



◇남장사 감로탱화(부분). 1701년작.



◇지오토作 '최후의 만찬'(부분). 1304년경. 스코로베니예배당 소장.

장삼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밑으로 걸쳐 입는 가사는 원래 내버린 옷 또는 죽은 사람의 옷을 모아 108염주를 본떠 108장을 모아 꿰매어서 몸에 걸쳤기에 '분소의(糞掃衣)' 또는 '납의(衲衣)'라고도 한다. 이는 수행자의 검소함과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게 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인도처럼 더운 지방에서는 이것만으로 몸을 가리었기에 법의라 하는데 우리나라, 중국 등 추운 곳에서는 가사 속에 장삼을 입었다. 또 가사는 후대에 내려오면서 종파와 법계에 따라 그 색과 형태에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위 그림은 남장사 감로탱화로 화려한 색깔의 가사를 볼 수 있는데 색상에 따른 지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지오토 작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앉아있는 12명의 사도가 가사 비슷한 천을 두르고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신행수기 당선작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창회의 눈물①

나는 남편이 옆에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다. 남편이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제발 이쯤해서 그만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집착과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라 제살 깎아먹는 노릇인데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빚 속에서 사는 나의 마음 고생과 육체노동은 끝이 없었다. 남편만 믿고 살다가는 알거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조그만 장사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하게 되었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악해질 때 종교란 것을 갖게 되나 보다. 점도 많이 보았고, 재수있게 해준다는 말에 굿이라는 것도 몇 번 했다. 그러나 아무리 없는 돈이나마 갖다놓고 지극정성으로 빌어봐야 소용없는 일인 것을….

나는 잠시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다. 1년 넘게 다녔는데 의외로 미신적 요소가 너무나 많아 정나미가 떨어져 다시 절로 돌아왔다.

바쁘더라도 멀리 산 속에 있는 절을 정해놓고 다녔다. 그 동안 여러 불서들을 읽었기에 그대로 한 번 실천해 봐야지 하는 생각에 열심히 다닐 수 있었다.

사업성취기도, 두아들의 수능백일 기도도 하고 산중기도 등 열심히 기도에 몰입했다. 경을 열심히 읽으면 소원성취 한다는 말에 〈천수경〉을 매일 아침마다 읽고 정근도 했다. 〈금강경〉〈관음경〉〈반야심경〉도 1년 넘게 사경을 했다. 먹을 갈아서 붓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 가노라면 모든 잡념들이 사라져 밤새워 쓸 수가 있었다. 장사를 끝내고 나면 12시. 집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반야심경〉 사경을 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다. 아이들 도시락싸서 학교보내고 또 절에 다녀와서 가게 나가 장사를 하면서 꾸벅꾸벅 졸던 일들. 어디서 그런 신심이 났는지 생각해보면 신기하기만 하다.

절에 기도하러 가기위해 아침마다 샤워하는 일이 하루일과가 되어버려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지 않고 절에 가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불법에 대한 갈증은 더욱 심해졌다. 이 절 저 절 마구 찾아다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에 반가운 인연을 만났는데 순간 '아! 이것이 부처님 가피로구나' 하는 탄성과 함께 가슴이 뛰했다. 내가 다니는 절에는 보살같은 마음을 지닌 불자가 있었다. 그 불자가 어느날인가부터 선지식을 만나 공부하러갔다면서 보이지가 않았다. 나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 속에 일어났다. 바로 그것이 발원이었나. 길에서 마주친 그이를 붙잡고 나도 그 공부하고 싶으니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이는 내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며 가게 문을 몇 달 닫던지 그만두던지 한 후에 찾아오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기에 장사를 좀 늦게 시작하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아직껏 그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복으로만 빌어왔던 기도가 헛되지 않아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점 보고 굿하고 교회가도
어려운 집안사정 안풀려
불법만나 밝은생활 시작



그림 · 이준석

지금 이렇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공부하고 기도한 덕택이다. 그 어렵다고만 했던 불교가 알고보니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아니 분명히 어렵긴 하다.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쉽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엉터리였을지언정 너무나도 열심히 부처님께 매달려 살다보니 업장소멸이 되었기에 조금이라도 부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하나. 내게도 이런 광명이 있을 줄이야.

오늘도 부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한다. 자비광명의 가피에 힘입어 좀더 오묘한 불법의 세계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인금숙〈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역·사·속·으·로·떠·나·는
죽·음·기·행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저자 : 맹 란 자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닮은 꼴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그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 전화 : 3462-2277 ·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